

발 간 등 록 번 호

52-6260000-000656-01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인식과 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품격의 도시 부산

PUBLIC DESIGN GUIDELINES OF
BUSAN METROPOLITAN CITY

제출문

본 보고서를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2월
유원디자인연구소

목차

INTRO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04
----------------	----

PART.1 공공공간

공공공간 기본방향 및 목표	16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원칙	17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5
도로 가이드라인	27
광장 가이드라인	49
공원 가이드라인	58
기타공간 가이드라인	68

PART.2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및 목표	86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원칙	87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95
도로(부속)시설물 가이드라인	100
교통관련시설물 가이드라인	127
보행안전시설물 가이드라인	158
편의시설물 가이드라인	171
녹지·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205
공급시설물 가이드라인	215
범죄 및 안전시설물 가이드라인	225

PART.3 공공건축물

공공건축물 기본방향 및 목표	238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원칙	239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47
행정 가이드라인	249
문화 가이드라인	256
복지 가이드라인	267
교육연구 가이드라인	278

PART.4 공공시각매체

공공시각매체 기본방향 및 목표	288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원칙	289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97
교통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00
보행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14
안내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31
영상정보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37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INTRO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요

과업명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과업의 배경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부산의 다수 공공디자인의 문제 해결과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및 지형적 요소등이 공존하며 부산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 필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 22조에 근거하여 본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관련 정책전개



과업범위

1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 기초조사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정책의 연도별 조사, 분류 및 분석
- 국내·외 정책 및 유사사례 수집, 현황 및 실태 조사 분석
- 기존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및 타당성 조사

2

사업 시행원칙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목표 및 디자인 원칙 설정

- 부산광역시의 시정철학과 시대 정신을 반영한 목표 설정
- 부산광역시의 특수성(급경사, 산수도시 등)과 환경 변화의 정책적 수요 조사·분석을 통한 목표 및 디자인 원칙 설정

3

분야별 영역, 적용범위 및 대상 검토·설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건축물, 재난대응형·글로벌 도시 디자인 분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물리적 영역과 더불어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환경(정보, 환경, 서비스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수립
- 획일적, 개별적 기준을 벗어난 지역의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맥락을 유지하는 배치,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4

활용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설계·심의·시공·평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
- 실무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단계별 프로세스 제안
-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등 관련법·제도 등 조사
- 관련기관(부서) 및 시민참여,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방안 제시
- 공공디자인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재난대응형 디자인 가이드라인 통합화 방안 마련

과업주요내용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특화 가이드라인]

수변공간

갈매길

산복도로

+

공통가이드라인과 특화가이드라인으로
구분하여 요소별 및 장소별 가이드라인 개발

+

공공디자인 체크리스트 개발

공공공간

수변공간

유니버설디자인

공공시설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공공건축물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공공시각매체

산복도로

재난대응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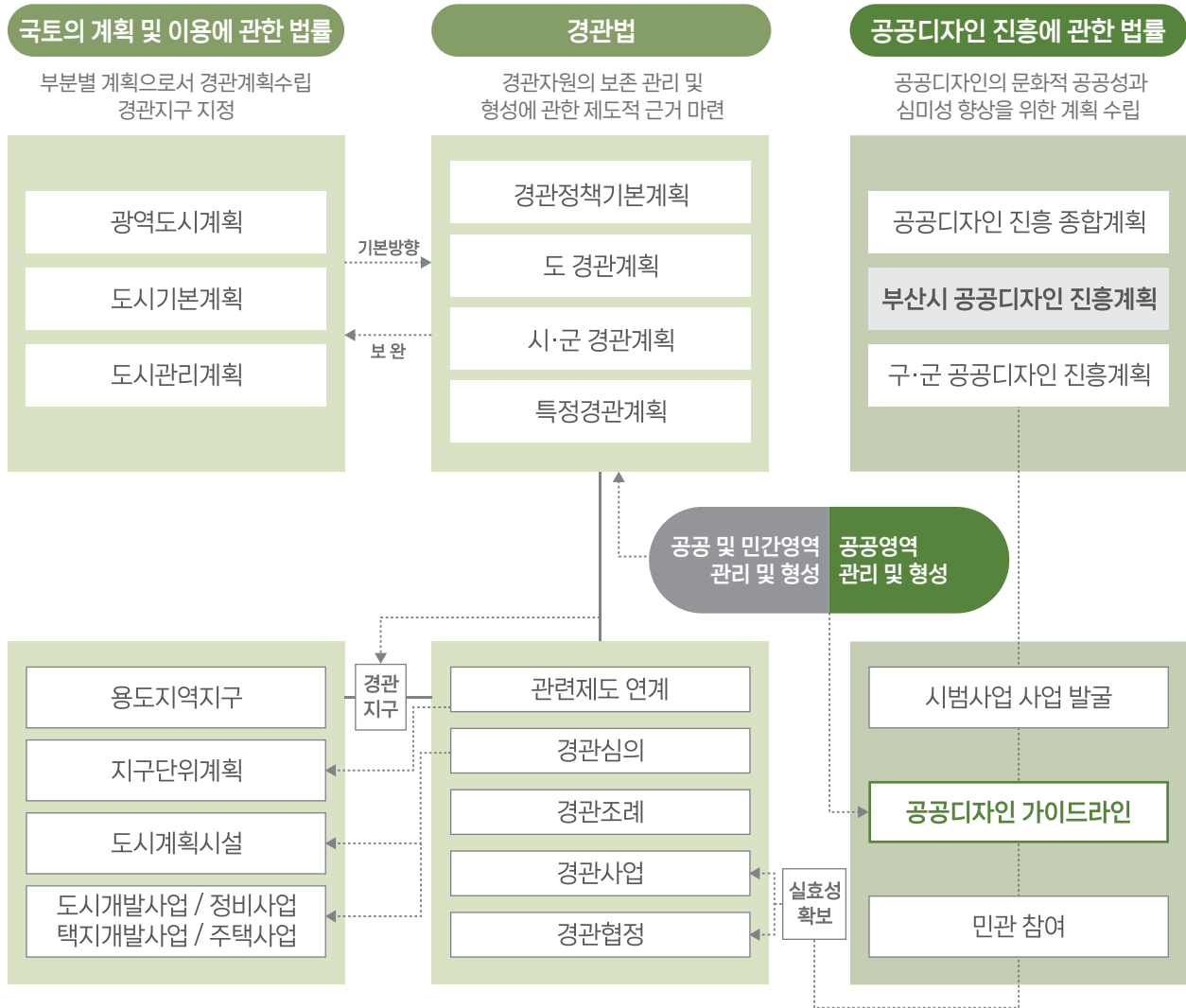
+

갈매길

+

가이드라인 작성된 모든 요소에 대해
심의 시 활용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법령과의 관계성 검토



관련지침 및 구성

<p>사전타당성 검토 가이드라인</p>	<p>부산광역시 기본경관계획 중 - 공공공간 시설 가이드라인</p> <p>[시설별] 도로시설물, 문화관광시설, 환경관리 시설, 교통시설</p> <p>▶ 요소별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업그레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p>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도시색채 가이드라인 · 공사장 가설 울타리 등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 부산시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p>▶ 개별적 내용 검토 후 공공디자인 공통가이드라인에 반영</p>
------------------------------	---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2016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디자인의 정의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법 제1장 제2조(정의) 제1호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법 제1장 제2조(정의) 제2호

국가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 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법 제1장 제2조(정의) 제3호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항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물
-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pergola: 서양식 정자) 등 편의시설물
-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공공디자인 사업

형태와 조형 중심의
결과물로서만이 아닌
기획, 분석, 계획 등 과정과
서비스 중심의
디자인 개념으로 확장

공공디자인 개념과 대상의 확장

공공 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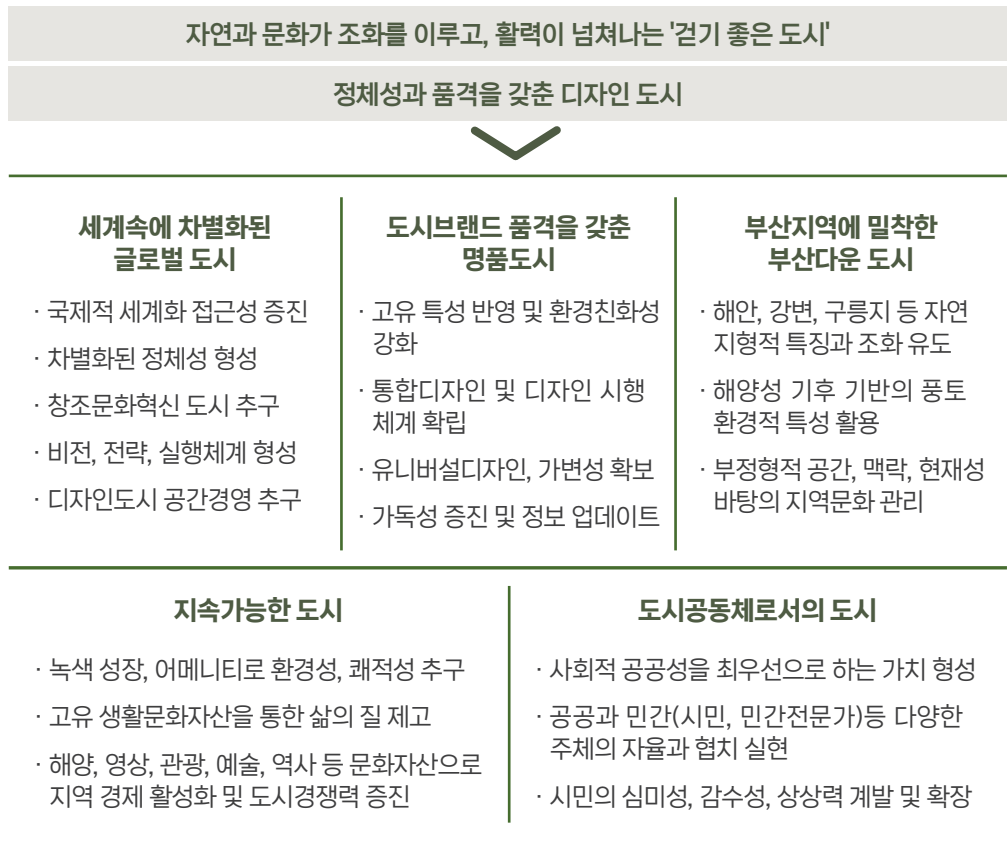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의 대상을
‘공공시설물’로 정의하여
디자인 사업 대상 및
과업수행 범위 설정 필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구성체계 변화

2010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공간 비전은 시민의 생활공간인 도시공간 속에서 '부산다움'을 구현하고, 부산 사람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기위한 목표를 가진다.

미래상 및 지향점



도시공간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전략 가이드라인”			“일반 가이드라인”	
근린 (동단위)	지역 (구 단위)	거점 (부산시 단위)	공공 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산지형 도시공간 주거지형 도시공간	수변형 도시공간 상업무지형 도시공간 역사문화형 도시공간	산지형 도시공간 수변형 도시공간 상업무지형 도시공간 주거지형 도시공간 역사문화형 도시공간	도시 구조물	가로 시설물

2020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제도적 안정성,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생활을 위한 공공디자인

통합성 [제도적 안정성]	공공성 [사회적 형평성]	적용성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제도 연구 및 정책 기획 ·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운영규칙의 보완을 통한 제도적 위상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적용단위별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셉테드 디자인 강화 · 모든 이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 재난재해 방지 디자인 · 공공시설물 통합 디자인 · 실천적 운영방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디자인 제도 연구 및 정책 기획 ·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 ·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와 운영규칙 보완을 통한 제도적 위상 제고

공공디자인 9원칙

셉테드	유니버설디자인	재난재해 방지
보차도 경계설정 명확화 가로 보행공간 안전성 확보 경사지 보행로 안전성 확보	지역 특화형 디자인 도입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디자인 건축과 관계성 있는 통합 디자인	경사로 가로공간 안정성 확보 고지대 차량, 보행 안전 관리 필요 방치된 하천변 보행 안전성 확보

권역별 가이드라인 및 적용대상

수변권역	부산 대표 하천 인접 및 해안, 포구 인접 가로공간
시가지권역	간선도로에 형성된 상업·업무·주거지 가로공간
자연근린권역	산지, 구릉지 주거지 근린생활가로 중심 도시공간
자연산지권역	부산다운 장소인 산복도로 중심 도시공간

가로공간
가로건축물

오픈
스페이스

도시
시설물

다양한 특성을 가진 부산광역시 내 권역별 지역의 사회적·공공가치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 추가 및 권장형 타입의 가이드라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

- 부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2020) 심의대상은 공공시설물로만 구성되어 통합관리가 미흡하다.
- 공공공간·공공시설물·공공건축·공공시각매체 등 공공디자인 구성요소별 가이드라인 항목 재정비를 통한 공공디자인 통합적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통합 가이드라인 외에 부산의 중점적·특성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특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공디자인 기본방향

"공통 가이드라인"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도로 광장 공원 기타공원	도로(부속)시설물 교통관련 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녹지·수경시설물 공급시설물 범죄 및 안전시설물	행정건축물 문화건축물 복지건축물 교육연구건축물	교통관련시각매체 보행관련시각매체 안내관련시각매체 영상정보시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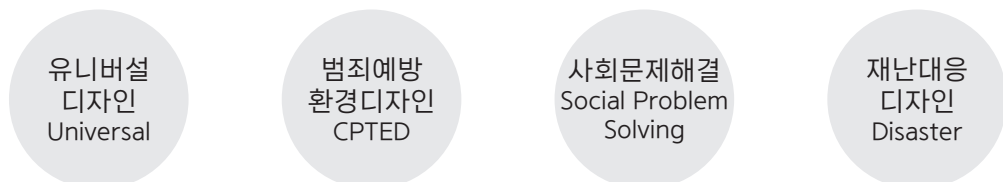
+

"특화 가이드라인"

중점적·특성별 관리 필요지역		
수변공간 가이드라인	갈맷길 가이드라인	산복도로 가이드라인

+

"세부항목 및 지침 정비"



+

"실행력 높은 체크리스트"

공통·특화 가이드라인 및 도시변화에 따른 공공디자인 요소 정비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가이드라인

구성체계 및 적용대상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성체계는 광역차원에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부산시 전역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분류 4개, 중분류 19개, 소분류 104개로 공통 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공공공간

도 로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트램전용도로
광 장	교차점광장, 역전광장, 중심광장, 근린광장, 경관광장, 건축물 부설광장
공 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기타공간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선착장, 생태습지, 전통시장

공공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교량, 고가차도, 보도육교,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도시철도 출입구, 회전교차로, 교차로
교통관련 시설물	버스쉼터,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펜스, 전신주, 통합지주, 중앙분리대, 옹벽, 방음벽, 전기차충전소
보행안전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옐로 카펫, 점자블록
편의시설물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 휴지통, 공중화장실, 관광안내소, 공원등, 음수대, 무인키오스크, 스마트그늘막, 흡연부스
녹지·수경시설물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화분대, 분수대
공급시설물	맨홀, 방재시설, 분전함/배전함
범죄 및 안전시설물	CCTV, 보안등, 비상벨,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공건축물

행정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문화	박물관, 공연장, 근대건축물
복지	보건소,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교육연구	공공도서관, 교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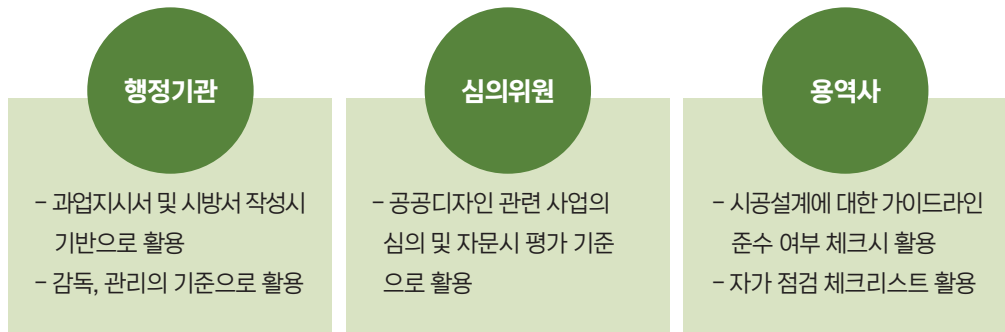
공공시각매체

교통관련 시각매체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표지, 노면표지, 이정표·방향·방향예고 표지, 공공시설·사설안내표지, 버스정류장 표지·노선안내도,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지하철 안내표지판, 지하철 노선·역사안내도, 택시외관, 택시정류장 표지, 유람선 외관
보행관련 시각매체	보행자 안내표지·방향표지, 무단횡단금지표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건물안내도, 공원안내표지·시설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판·기념표석, 관광안내소·매표소 안내, 관광안내표지·안내도,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장애인 유도사인·안내표지
안내관련 시각매체	현수막게시대,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영상정보 시각매체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교통상황·교통사고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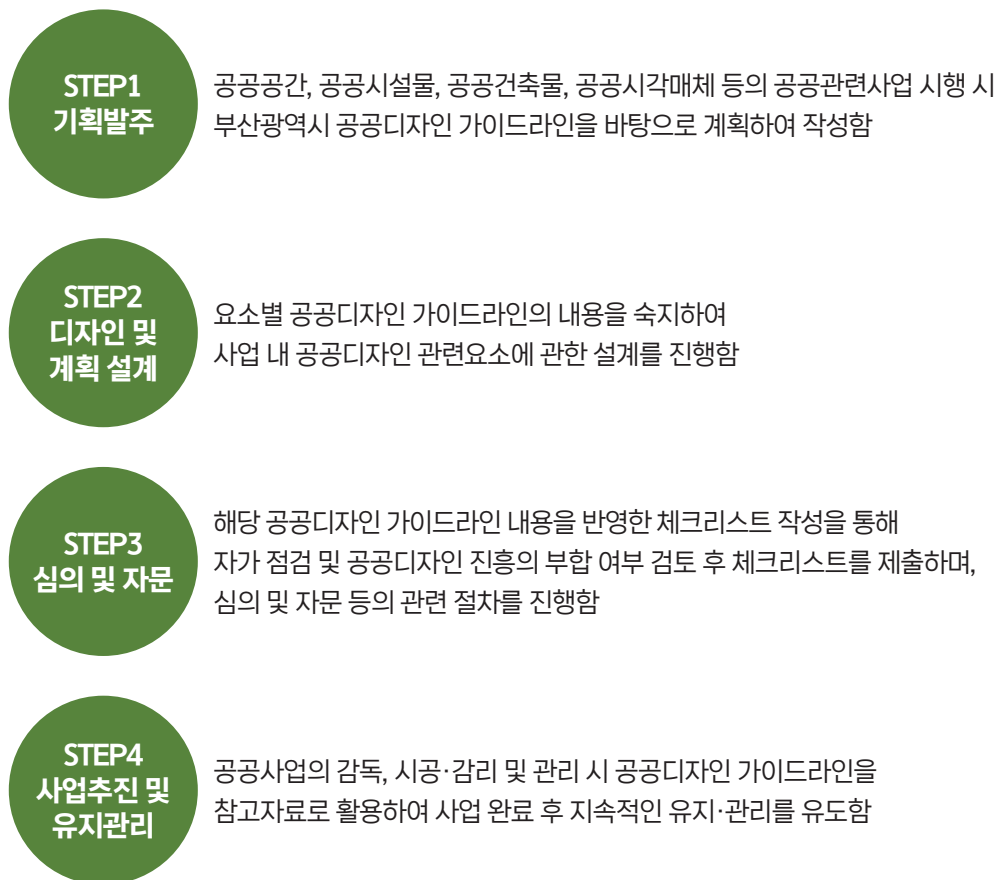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활용방안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부산광역시 전 지역에 적용하며 가이드라인의 활용 및 준수를 권장하는 권고적·유도적인 성격을 지닌다.
-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발주, 설계 등 공공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참고 및 활용해야 할 기준 및 지침으로 사용한다.

활용대상



활용프로세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체크리스트는 시공업체의 시공 과정과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해당 공간, 시설물, 건축물, 시각매체가 적정한 수준으로 디자인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체크리스트는 가로 공간+가로 건축, 오픈스페이스, 도시시설물로 이루어져 있어 부산 전역의 시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본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는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조성 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아 심의·자문자, 사업자가 가시적으로 디자인 지침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구성방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구성 방향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공공시각매체

기본원칙

- 개별 공간, 시설물, 건축물, 시각매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세부 공간 및 시설물

필수 준수사항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연계하는 부분
- 도시 품격 훼손이 우려되는 부분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법 적용이 필요한 부분 등 기본원칙 외 세부 공간 및 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공공공간

PART. 1

공공공간 기본방향 및 목표	16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원칙	17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5
도로 가이드라인	27
광장 가이드라인	49
공원 가이드라인	58
기타공간 가이드라인	68

공공공간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하고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도시 부산을 지향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공공공간의 조성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공공간 디자인 원칙을 제시한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목표



안전한 도시

범죄나 사고, 재난 등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편리한 도시

누구나 걸어다니기 쉽고 공공공간을 이용하기 쉬운 환경 조성

품격있는 도시

과도한 조형적 요소를 지양하며, 조화롭고 정돈된 부산다운 환경조성

균형있는 도시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적 유지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공공공간의 조성목표가 전반적으로 반영되도록 2023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원칙 및 각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원칙

부산광역시
공공공간 연출을 위한
디자인 7원칙

1

공공공간은 시민의 보행과
안전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2

보행 유효폭 확보와 장애물 최소화로
누구나 걷기 좋은 거리를 디자인한다

3

시설물, 시각매체 등의 통합화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을 한다

4

부산 정체성을 부여하되
조화롭고 정돈된
공공환경을 디자인한다

5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 조형물, 식재 등
장식요소를 최소화한 일관된 디자인을 한다

6

지속가능성, 환경영향 등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을 한다

7

그린·스마트 디자인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한다

1 시민의 보행과 안전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디자인

○

권장

-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
- 범죄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 방법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누구나 안전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공간의 인지성을 높이고, 위험 및 불안지역은 제거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접근통제 등의 안내를 확실히 한다.
- 위급시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이용가능한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 한다.



×

지양

-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은폐가 쉬운 공간계획은 지양한다.
- 공간이용시 시각적으로 공간을 차폐하는 요소는 제거하며, 노후된 공간 및 시설물은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 이용자의 행태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계획은 지양한다.
- 설치기준을 미준수하여 계획하거나 임의 변형을 지양한다.



② 보행폭 확보와 장애물 최소화로 누구나 걷기 좋은 거리 디자인

○

권장

- 유효 보도폭은 2m 이상 확보를 권장하고, 불가 시에는 교행구간 등 대응책을 계획한다.
-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바닥은 평탄성을 확보하며, 보행을 방해하는 돌출시설물은 최소화한다.
- 시각적 확장성과 시공 완성도가 높은 무채색 계열의 대형사각 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 주요 보행 진입로와 보행가로의 수직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행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을 함께 설치한다.



×

지양

- 보행약자가 통과하지 못하는 간격으로 시설물들을 밀집하여 설치하지 않는다.
- 보도에 돌출되어 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과도한 수량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 우천 시 보행약자 이용시 미끄러짐 사고발생 여지가 있는 바닥마감재를 피한다.
- 경계부의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표면 요철과 경사가 심한 시공법은 피한다.



③ 시설물 통합화로 이용하기 쉬운 디자인

○

권장

- 공공공간의 시설물은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최소화한다.
- 기능이 유사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디자인하며, 완충녹지공간 등을 활용하여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 좁은 가로에는 보행등, 교통안내시설 등 보행 필수시설만 설치한다.
- 보행약자의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물 등을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배치하며,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지양

-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 및 가로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통합시설물은 과도한 장식적인 시설물 디자인은 지양한다.
- 교통관련 시설물 주변부에는 시설물 인지와 이용을 방해하는 기타시설물은 지양한다.



4 부산 정체성을 부여하되 조화롭고 정돈된 디자인

○ 권장

- 지역 정체성은 함축적이고 단순하게 디자인하며, 일관되고 공간의 기능 및 질 향상에 집중하여 계획한다.
- 공간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행태 및 여건에 맞는 공간구성 기법을 적용한다.
- 일반시설물은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무채색 적용을 권장한다.
- 공공공간의 연속성과 정체성 부여를 위해 주변과 동일하거나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지양

- 일반시설물에는 과도한 크기의 지역상징적 요소 적용을 자제하며, 심벌마크, 캐릭터 등이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게 디자인한다.
- 일반시설물에는 지자체의 비전 및 지속가능하지 않은 문구 및 디자인은 지양한다.
- 지나치게 다양한 패턴과 조형요소등 장식성이 과도한 시설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 자극적인 고채도·고명도 색채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⑤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장식요소를 최소화한 일관된 디자인

○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쉬운 공간이용성과 청결하고 안전하게 계획한다.
- 공공공간의 접근성을 높이며,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 기존 도시 인공구조물(옹벽, 교량 등)은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기능 시설물을 적극 활용한다.
- 시민의 다양한 활동을 고려하여, 도시 유희공간의 활용계획 및 디자인을 제시한다.



×

지양

-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은 보행가로상 전면 노출을 지양한다.
- 공공공간 이용시 눈부심방지를 위해 과도한 조명은 지양한다.



⑥ 지속가능성, 환경영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

○ 권장

- 부산광역시의 산지, 해양, 수변 등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 장소의 성격을 존중하고, 주변공간과의 맥락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부산시 지역경관의 역사성을 보존하며, 지형적 특색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 차폐 식재 및 띠녹지 등 다양한 자연친화적 기법으로 시설물의 기능을 대체한다.



✕ 지양

- 경관을 저해하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수량의 시설물은 지양한다.
- 자연경관 및 지역경관의 품격을 훼손하는 장식적 요소 사용은 지양한다.
- 이용 편의 위주로 녹지 내 수목을 무분별하게 절단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자극적인 조명이나 색채를 사용하지 않는다.



7 그린·스마트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O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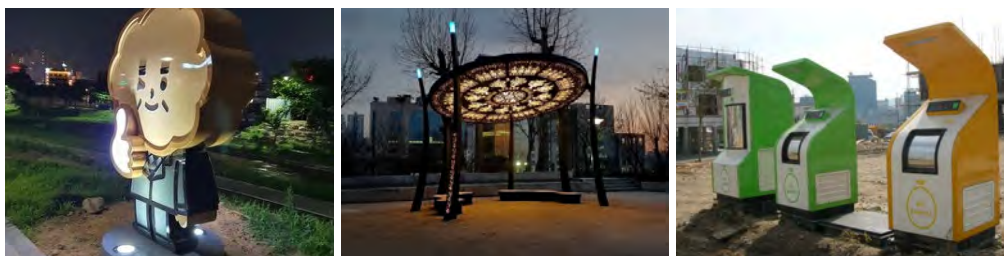
- 충분한 녹지공간 계획으로 기후 변화 등을 대비하여 탄소제로 에너지를 지향한다.
- 스마트 신기술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을 계획하여 통합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 태양광 등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시설물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설치한다.
- 저비용, 고효율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X

지양

- 도시경관을 해치는 과도한 구조물은 설치하지 않는다.
- 일시적인 용도나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스마트 시설물 설치 공간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유지관리 비용 과다 시설물은 지양한다.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둔다.
-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은 도로, 광장, 공원, 기타공간에서 파생된 소분류 항목 18개로 구성한다.

중분류	코드	소분류	심의대상	페이지번호
도로	A1-1	보도	심의대상	p.28
	A1-2	자전거도로	심의대상	p.33
	A1-3	자동차도로	심의대상	p.38
	A1-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심의대상	p.42
	A1-5	트램전용도로	-	p.46
광장	A2-1	교차점광장	심의대상	p.55
	A2-2	역전광장	심의대상	p.55
	A2-3	중심광장	심의대상	p.56
	A2-4	근린광장	심의대상	p.56
	A2-5	경관광장	심의대상	p.57
	A2-6	건축물 부설광장	심의대상	p.57
공원	A3-1	소공원	심의대상	p.63
	A3-2	어린이공원	심의대상	p.63
	A3-3	근린공원	심의대상	p.64
	A3-4	역사공원	심의대상	p.65
	A3-5	문화공원	심의대상	p.65
	A3-6	수변공원	심의대상	p.66
	A3-7	체육공원	심의대상	p.67
기타공간	A4-1	옥외주차장	심의대상	p.69
	A4-2	공개공지	심의대상	p.72
	A4-3	선착장	심의대상	p.76
	A4-4	생태습지	-	p.78
	A4-5	전통시장	-	p.80

관련 법규사항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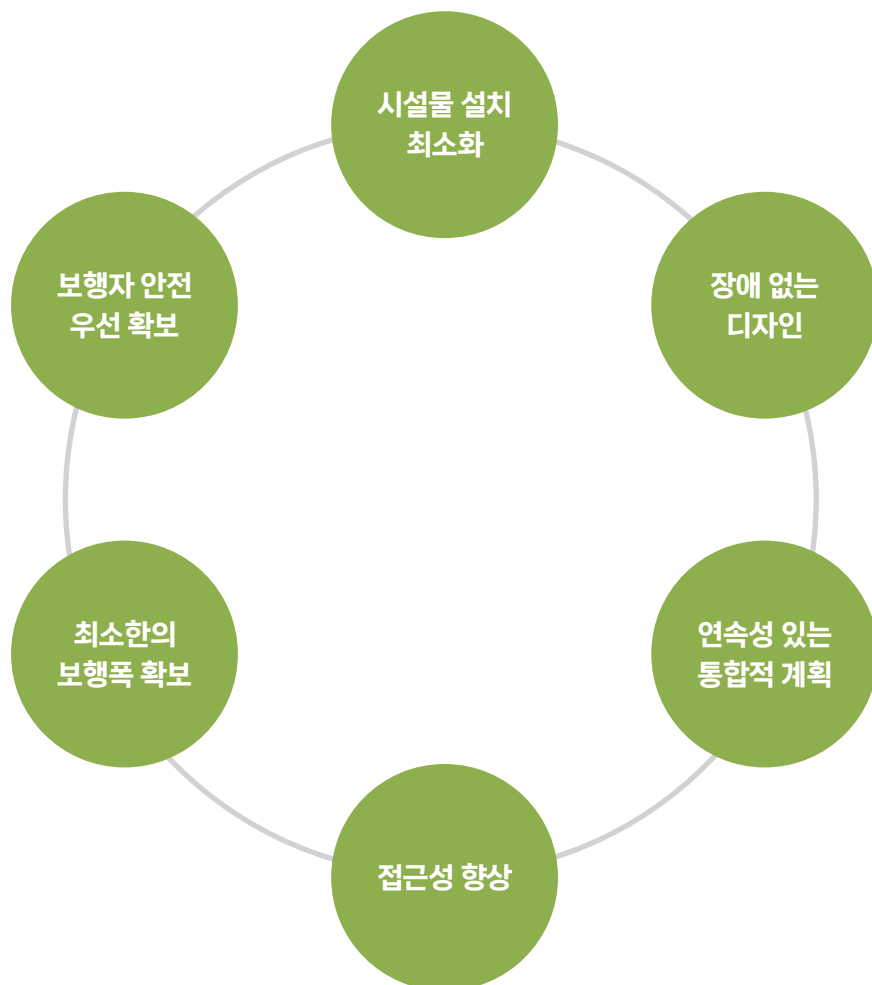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공통	UD, CPTED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매뉴얼(2016, 국토교통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국토교통부)	부산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도로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트램전용도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가이드북(2016, 도로교통공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2, 국토교통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1995, 행정안전부)	부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2021) 부산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2008) 부산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2) 부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2021) 부산 도심 보행길 조성 마스터 플랜(2020)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 가이드라인(2022) 15분 생활보행길 가이드라인(2023)
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조경기준(2000, 국토부) 생태놀이터 조성 가이드라인(2014)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2010, 문화재청) 해양경관 관리 가이드라인(2011, 국토해양부)	부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2022) 부산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2021) 15분 도시 부산 생활보행권 계획 및 가이드라인(2022)
기타공간	옥외주차장 공개공지 선착장 생태습지 전통시장	공공청사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안내(2018, 행안부)	전통시장 소방시설 설계 시공 가이드라인(2020) 부산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디자인 가이드라인(202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2023)

A1. 도로 가이드라인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제11조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분류하는 도로는 보도, 자전거도로, 차도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능적 분류를 넘어 통합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강화하며,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을 포함한다.
- 또한, 부산광역시에서 계획 중에 있는 트램 전용도로를 포함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보도,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트램전용도로 5가지로 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A1-1. 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반 도로의 보도를 대상으로 하며 보행자용 도로를 의미한다.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일반도로
보도

현황 및 문제점

- 자동차 중심도로 계획으로 보도폭이 최소화 되어 있다.
- 분전함, 안내사인물, 버스정류장 등 무분별하고 과도한 시설물 설치로 보행권 침해된 구간이 다수 존재한다.
- 노후화 등 노면 평탄화 부족으로 인한 지반 침하나 보행자, 보행악자 배려가 부족하여 안전하지 못한 보행환경이 다수 존재한다.
- 보행 유효폭 확보 미흡 및 동선 단절로 전면공지와 보도의 연속성 결여되어 이용객 편의성이 저하된다.
- 유사 기능의 가로시설물 다중 설치 및 불법 적재, 주차공간, 급격한 경사와 미끄러운 재료 사용으로 인한 안전한 보행공간이 침해된다.
- 패턴 및 색채 등 디자인과 마감부의 시공 완성도가 낮다.

기본방향

- 보행구역과 시설물 구역으로 반드시 구분하며, 보도의 구성은 차도>자전거도로>시설물구역>보행구역>차로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 통행에 방해가 되는 요인 최소화 및 평탄하고 시각적으로 안정된 도로 조성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한다.
- 보행자 및 보행 보조 시설물 등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 유효폭을 우선 확보하며, 주변과 조화성, 통행의 연속성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한다.
- 보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의 통합화 및 배치 방식 개선을 위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며, 벤치 분전함, 화단 가로수 등의 가로상의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 구역 내에 설치한다.
- 보도 패턴 및 색채 등의 단순화한 디자인으로 계획하며, 시공의 완성도를 높인다.



지형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도 조성

- 보도 폭은 최소 2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전면용지를 포함하여 2m 이상으로 할수 있으며, 단일 보도폭은 1.5m까지 축소할 수 있다.)
- 보행 약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 진행 방향과 연속되는 횡단경사는 50분의 1 이하로 설정한다. (단, 지형상황 및 주변 건축물 배수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조성한다.)
- 누구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보도의 종단경사는 18분의 1 이하로 조성한다.
- 보도 폭이 1.5m 미만이면 휠체어를 위해 50m마다 1.5mX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배치한다.
- 보행안전존, 장애물구간 사이의 경계석이 보행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생략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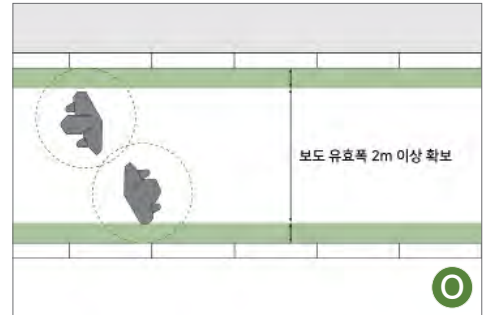
주변공간과 연계된 보행공간 연출

-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을 낮추거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종단경사를 12분의 1 이하로 조성할 시 30m마다 1.5m×1.5m 이상의 수평 참을 설치한다.

평탄하고 안정된 노면 제공

- 요철, 단차를 최소화하고 격자구멍 또는 넓은 틈새가 있는 트랜치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 교통약자의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는 구간은 덮개를 설치하되 덮개의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10mm 이하의 간격으로 조성한다.)
- 횡단보도 상 우수 트랜치 및 맨홀이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 보도블럭으로 보행로를 포장할 시 블록 간 틈새는 5mm 이내로 최소화한다.
- 기존 콘크리트 평탄성을 높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필수 ○ 권장



1.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보도
2. 보도 유효 폭 1.5m를 확보하지 못한 보도
3. 넓은 틈새의 트랜치가 설치된 보도

배치

보행 유효폭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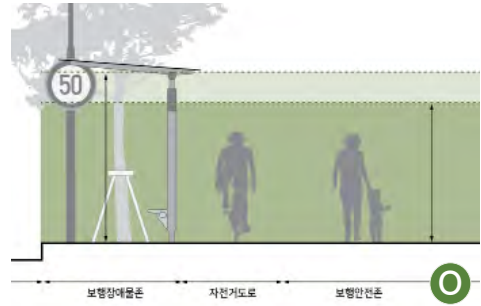
- 장애물존 조성 시 보행안전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장애물존 최소 0.6m) 설치한다.
- 가로는 보행장애물존 - 자전거도로 - 보행안전존 순으로 구성한다.
- 보도 폭이 2m 미만일 경우 자전거도로의 설치를 금지한다.
- 보도 폭이 4m 이상일 경우 버스 승하차 편의를 위해 장애물존의 폭을 1.5m 이상 확보한다. (단,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불가능하다면 최소1m의 공간은 확보한다.)
- 보도 폭이 2m 이상~4m 미만인 경우 가로시설물을 위한 장애물 구간을 별도로 조성한다.

가로시설물, 보행 장애물 점유면적 최소화

- 시설물 설치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한다.
- 보도 폭이 4m 미만일 경우 가로시설물은 차도 경계부에 최대한 밀착시켜 설치한다.
- 공공시각매체는 지주시설물, 건축물 입면 등에 통합 설치한다.
- 지하도 진출입구간 연결부에는 안내사인물, 표지판 설치를 금지한다. (단, 지주형으로 조성된 타시설물과 통합 설치 가능하다.)
- 관광안내소와 가로판매대는 보도 폭이 4m 이상 확보된 경우에만 설치한다.
- 보도 폭이 2m 미만일 경우, 분전반, 배전반, 교통신호제어기 등의 설비시설물은 공공건축물이나 공개·전면공지에 통합 조성한다.
- 보도 폭에 세부 시설물 설치기준은 아래 표를 준수한다.

보도 폭	2m 이하		2m ~ 4m	4m 초과
제한시설물	벤치 자전거보관대 관광안내소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가로판매대 지상노출승강기	육교 가로화분대 상징조형물 제설함 택시정류장 가로수	상징조형물 가로가판대 가로수보호덮개	제한시설물 없음

● 필수 ○ 권장



1. 보행장애물존 - 자전거도로 - 보행안전존 순으로 구성
2. 2m 이상 보도 내 설치된 자전거도로
3. 보행로 중앙에 설치된 전신주

교통약자를 배려한 시설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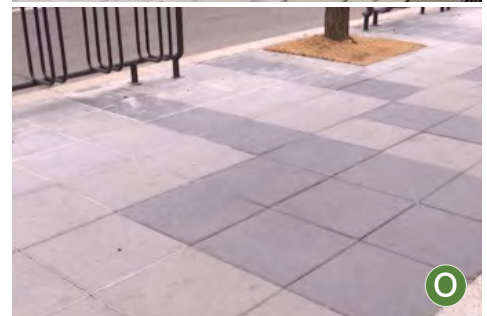
- 도로 폭이 50m 이상인 대로변의 횡단보도 앞 턱낮춤 구간에는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공공기관 및 주요 시설과 연접한 횡단보도에는 반드시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점자블록은 횡단보도 너비만큼 설치하고, 도로로부터 30cm 이격하고 경계석과 블라드 전면에서 30cm 간격으로 설치한다.
- 블라드 설치 시 1.5m 이상 간격을 확보하며, 지면과 결합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선형 점자블록은 블록의 양 경계에서 60cm 이상의 보행 유효폭을 확보한다.
- 보행구역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보행기준선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료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사용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하며, 평탄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한다.
- 내구성이 뛰어나고 교체가 용이한 블록형 포장재나 현장 타설형 재질을 사용한다.
-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은 금지하며, 보행안전구역 내 마감의 패턴, 질감을 통일하여야 한다.
- 블록형 마감재 사용 시 단위 규격이 크고 미려한 마감이 돋보이는 제품을 사용하며, 포장마감재 간 이음새(줄눈)를 좁혀 보행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보도 폭이 충분할 경우 투수블록 사용 면적 확장을 권장한다.
- 도로 폭이 충분한 보행가로에서 불투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가로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투수 면적을 높인다.

● 필수 ○ 권장



1. 블라드 간 간격을 1.5m 이상 확보
2. 선형 점자블록 양측으로 60cm 이상의 보도 확보
3. 보행안전구역 내 동일한 패턴 및 마감 적용
4. 단위 규격이 큰 보도블록 사용

패턴 및 색채

주변 공간을 고려한 공간 조성

- 단일 블록 내의 보도 패턴과 색채를 단순화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원색 계열의 포인트 색상을 최소화한다.
- 바닥 포장 시 시각적 혼돈을 주는 패턴 및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금지한다.
-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방향의 보도에는 색채와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다.
- 보행안전존, 장애물 구간, 자전거도로는 재질 및 색채 차별화로 공간을 구분한다.
- 문화재, 역사자원, 해양관광지 주변은 자원이 연상되거나 조화성이 강조된 포장재료와 패턴을 적용한다.
- 바닥조명을 도입할 경우 과도한 색채와 점멸을 금지한다.
-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한다.



식재

보행권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지양

- 장애물존 폭이 1m 미만일 경우 교목의 생육이 어려우므로 교목 식재를 금지한다.
- 보도 폭이 2m 미만일 경우 무분별한 가로수 식재 및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가로수는 장애물존에 식재하고 가로수 중심점 3m 이내에는 공공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보행가로와 횡단보도가 교차되는 구간 및 교통안전표지 사인의 5m 이내에는 가로수 식재를 지양한다.
- 보도 폭이 4m 이상일 경우 보도와 차도 경계부에 폭 0.5m 이상의 띠녹지 조성을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1. 고채도 색상을 과도하게 사용한 보도
2. 보도와 자전거도로 색채 차별화로 공간 구분
3. 폭 0.5m 이상의 띠녹지 조성

A1-2. 자전거도로

정의 및 구성체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를 말한다.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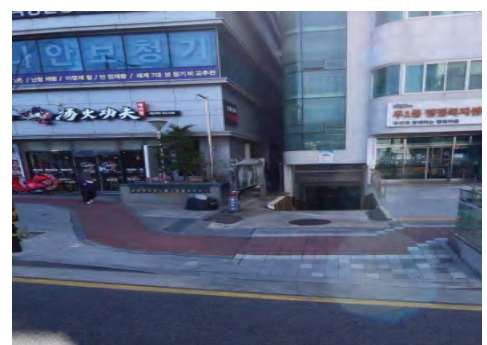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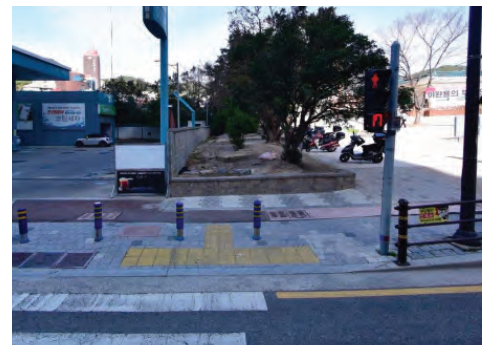
자전거
우선도로

현황 및 문제점

- 횡단보도, 계단 등 보행공간과 중첩되어 동선 단절 및 이용편의성이 저하된다.
- 유효폭이 부족하거나 무분별하게 설치된 가로시설물로 인해 이용 안전성이 저하된다.
- 과도한 급커브로 인해 자전거 미끄러짐 사고 발생 및 노면 평탄성 확보 및 유지관리 미흡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다수 존재한다.
- 전용 신호시설, 안전 표식 부재 구간 다수 존재한다.
- 보행로 중앙에 배치되어 동선이 상충되는 사고 위험 존재한다.
- 과도하게 생장한 교목이 중앙에 조성되어 통행이 불편하다.

기본방향

- 주변 보행로, 계단, 횡단보도 등의 교통 및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를 배치한다.
- 자전거 교행 및 연속적 통행권 확보를 위한 유효폭을 확보하고,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공간을 배치한다.
- 원활한 통행 유도를 위해 자전거도로 내 설치되는 시설물 관리로 장애요소를 최소화한다.
- 노면 평탄도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지속적 정비 유도한다.
- 자전거도로 선형의 굴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모두 안전한 통행을 위해 동선 및 안전표식,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한다.



지형

여건에 맞춤형 공간 조성

- 기존의 돌출 시설물을 제거하기 어려운 구간이나 자전거도로와 보도의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금지한다. (보도 최소폭 : 2m, 자전거도로 최소폭 : 1.2m)
- 자전거도로 폭은 1.5m를 확보하며,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보행가로에 준하는 평탄도를 유지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 1.2m로 설치가능하다.)
- 교차로에 자전거도로로 조성 시 시·종점부 및 보도와 교차지점에 낮춤턱을 시공한다.
-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도로와 구분을 위한 경계석 설치 시 단차가 없게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 포장면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1.5% 이상 2.0% 이하의 횡단경사를 설치한다.

배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한 자전거도로 구축

- 자전거도로상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평면 교차할 시 교차각을 90도로 조성한다.
- 교차점으로부터 자전거도로로 각 양측의 25m 이상 구간은 시야에 장애가 없도록 조성한다.
- 자전거 경사로 주변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 상충 방지를 위해 보도 중앙 배치를 지양한다.
- 자전거 이용자의 주행공간 확보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한 자전거 횡단도 도입을 권장한다.
- 자전거 횡단도 설치 시 폭은 2.4 ~ 3.0m로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기존 가로수로 인해 이용하기 어려운 자전거도로
2. 차도와 평면 교차 시 교차각 90도로 조성
3. 보도 중앙 배치 지양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간 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는 세로 부재가 적용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배치한다.
- 야간 이용이 빈번한 구간에는 안전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측면에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 자전거 외 오토바이 등의 운송수단 진입금지를 위한 안내사인물 또는 바닥 사인을 조성한다.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설물 점유면적 축소

- 원활한 주행을 위해 폭 1.5m 이상, 지면에서 2.5m 높이의 구간은 시설한계구역으로 설정한다.
- 자전거도로 표지는 지주형으로 설치한다.
- 지주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가로등, 전주 등 기타 공작물에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지성 높은 공간 제공

- 종단경사가 3% 이상이면 도로 교차부 앞 3m 이상의 지점에 과속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시·종점부 동선 안내 노면 표시는 자전거 주행방향에서 정면으로 인지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 안전표지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편리한 자전거도로 구축을 위해 편의시설물 조성

-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 건물과 결절점, 대중교통 주변 등 통행량이 많은 곳에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를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소, 대여소는 개방된 형태로 설치한다. (단, 건축물, 식재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CCTV를 설치한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 시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하며 진입부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공간이 부족할 시 벤치 등의 휴식시설물과 통합된 디자인을 선정한다.

● 필수 ○ 권장



1. 도로와 자전거도로 사이 차량용 방호울타리 배치
2. 자전거도로 측면에 조명 설치로 야간 안전성 증진
3. 자전거 주행방향과 맞게 설치된 안내 노면 표시
4. 지하철 입구 주변부 조성된 자전거 보관소

재료

통행 연속성 확보

-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자전거도로 노면 포장 시 자동차 종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차도와 교차되는 구간은 자전거도로의 주 재질 및 컬러를 연장하여 연속성을 높이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노면 처리를 권장한다.
- 노면 포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권장하며, 필요시 표층에 표면처리 포장을 할 수 있다.
- 투수성 탄성 포장재질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한다.
- 바닥마감재는 표면 마찰계수 40BPN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며, 노면 사인 표시는 45BPN 이상의 미끄럼 저항치를 갖도록 조성한다.



패턴 및 색채

공간분리를 위한 가시적인 색채 사용

- 자전거도로 시작점과 끝지점, 일반도로와 접속구간, 교차로는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한다.
-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하게 표기한다.
- 자전거도로의 중앙분리선은 노란색, 양 측면은 흰색으로 표시한다.
- 보행안전존, 장애물 구간, 자전거도로는 재질 및 색채 차별화로 공간을 구분한다.



● 필수 ○권장

1. 재질을 연장하여 자동차도로 내 자전거도로로 연속성 확보
2. 투수성 탄성 재질 적용
3. 일반도로와 접속구간은 짙은 붉은색으로 포장

식재

도로 내 완충녹지 공간 확보

- 자전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 지점이 잘 보이도록 식재 간격과 위치를 결정한다.
- 담장 및 울타리 등의 설치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4m 이상의 보도, 차도와 연결 시 1열 이상의 수목, 지피류 녹화 등의 녹지대로 공간을 분리한다.
- 자전거도로, 보도, 차도와의 분리를 위한 완충녹지 조성 시 폭은 0.5m 이상으로 조성한다.
- 수목의 가지가 성인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방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지하고가 2.5m 이상의 수종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자전거도로 방향으로 돌출된 식재로 안전사고 우려
2. 개방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자전거도로 조성

A1-3. 자동차도로

정의 및 구성체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의 차도들을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의미한다.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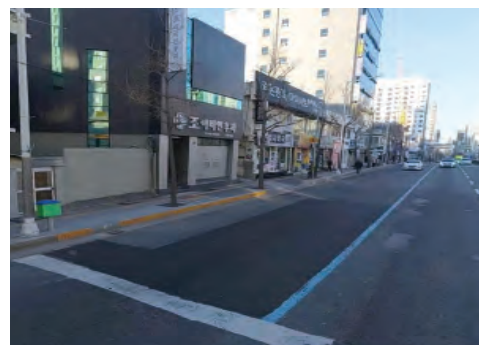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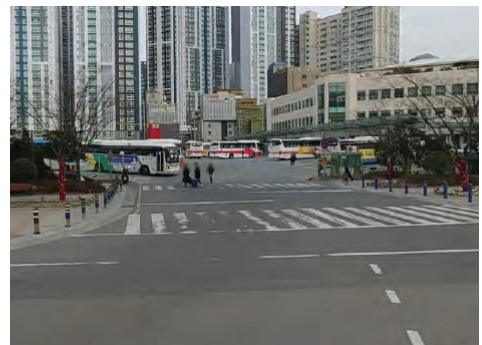
지하도로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여건 및 안전성 고려가 미흡한 구간이 다수 존재한다.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공공디자인 요소가 부재한 구간이 많다.
- 도로 노면표식, 주변환경 유지관리 미흡으로 방향 및 교통정보에 대한 시각적 인지성 저해되는 구간이 있다.
-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가각부에 과도하게 설치된 시설물로 교통 상황 및 이동 중인 보행자 인지가 어려운 구간이 다수 있다.
- 인공시설물이 대다수인 도로 환경으로 도시 미관 저해하고 있다.
- 24시간 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차구간, 일반 정보 안내구간의 노면 표기 차별화 부족으로 인한 혼돈이 야기되고 있다.
- 원활한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과 중첩되어 설치된 대형 광고물로 인해 정보 주목성 및 인지성이 결여된다.

기본방향

-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고 차량 감속을 유도한다.
- 방향, 교통정보에 대한 인지성 강화를 위해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도로 주행 및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가각부 시설물 배치를 최소화한다.
- 인공적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경관요소를 적용한다.
- 시내·시외버스, 승용차 등 주요 통행차량 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도로환경 조성 및 정보표기 체계를 마련한다.
- 무분별하게 설치된 대형 광고물을 비우기 위한 방안을 고안한다.



지형

명확한 구간 분류

-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의 주행 편의성을 위해 보차도 경계를 명확하게 조성한다.
- 보행약자의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는 과속방지시설,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 스쿨존 주변 도로의 선형 및 노면표지 조정으로 차량 속도 완화를 유도한다.
- 중앙분리대는 표면 배수의 집수와 오염물 처리를 위해 마운딩 및 자연배수로 조성한다.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배수를 통한 유지관리 지속적 향상을 위해 평탄한 노면 조성을 권장한다.



배치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 확보

- 차도와 교차점 양측 2.5m 거리에 시야를 막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단, 부득이할 경우 1.2m 이상 거리에 설치한다.)
-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중앙분리대, 보행장애물존 등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통합한다.
- 충분한 시야 확보를 위해 곡각부에는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나 수목 식재를 금지한다.
- 교차로 전후 약 200m 구간에는 가로등을 설치하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조명시설편, 국토교통부)」을 준수한다.
- 간선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 곡각부에는 펜스,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곡각부에 대형 광고물 설치를 지양하여 차량 관련 안내사인물이 우선 인지되도록 조성한다.
- 개방적 시야 확보를 위해 무단횡단 방지시설과 무단횡단 금지표지의 설치를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보차도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도로
2. 고원식 교차로 조성
3. 교차로 전후 200m 내 가로등 구축
4.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지양

보행자 안전이 우선시되는 도로환경 구축

- 버스 중앙차로, BRT 통행구간 주변 보도는 이용객 밀도 및 교통 약자 통행을 고려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 가로 사유지 및 공개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녹지, 주차공간, 보행공간을 확대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진입부에는 속도저감시설, 과속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인지하기 쉬운 도로안내시설물 조성

- 자동차도로 교통표지판 지주 중심으로부터 반경 5m 이내에는 공공시각매체 설치를 지양한다.
- 안전시설물 설치 시 차량 운전자가 빠르게 인지하도록 도로 진행 방향과 마주하도록 설치한다.
- 24시간 운영되는 버스전용차로, 일반 버스정차구간, 일반 차량 동선 등 안내구간별 정보표기 시설물 디자인을 달리하여 설치한다.
- 소규모 교통섬을 지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섬이나 교차점 광장에는 휴게 및 녹지기능을 강화한다.

재료

사고위험요소 최소화

- 자동차도로의 주재료는 견고성 및 유지관리 용이성 확보를 위해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 안전을 위한 노면 표시, 도로 경계부 표기 시 인지성이 높은 고휘도 반사재료를 사용한다.
- 사고 다발구간에는 동선 인지성 개선을 위해 방호울타리, 펜스에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 필수 ○권장



1. 도로 진입부 내 속도저감시설 설치
2. 타 표지판에 가려진 교통표지판
3. 펜스에 반사시트 부착

패턴 및 색채

심리적 안정성 있는 색채 사용

- 보행약자 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노면 요철포장, 픽토그램, 색채 등을 적용한다.
-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등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은 차도의 주재료와 구별되는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24시간 버스전용차로는 일반차로보다 강조되는 색채를 사용한다.
- 버스 전용차로 등을 일반차로와 구분하는 경우, 눈부심이 없고 시각적으로 안정감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 미끄럼방지 포장 시 위험구간을 안내하기 위해 암적색을 적용한다.

식재

도심 경관의 인공성 저감

- 폭 30m 이상의 도로 개설·확장·정비 시 중앙분리대 내에 화단 및 지하고가 높은 수목을 조성한다.
- 중앙분리대 내 녹지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겹이형 화분대, 녹화펜스 등을 활용하여 도로 위 녹시율을 확보한다.
- 자동차도로 측면부, 중앙분리대형 띠녹지 조성 시 폭은 최소 50c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섬이나 교차점 광장이 조성될 경우 녹지 및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 도로 절개지 사면은 녹화 등의 방법으로 인공성을 최소화한다.
- 횡단보도의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단보도 인접구역의 그늘식재를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1.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노란색 적용으로 운전자 인지도성 강화
2. 미끄럼 방지 포장에 적용된 경사도로
3. 중앙분리대 내 화단 및 지하고가 높은 수목 조성

A1-4. 어린이(노인)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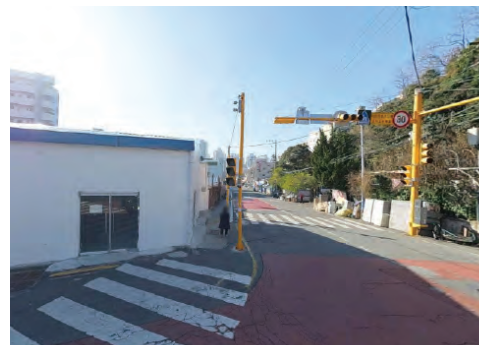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관련 지정대상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계획한 구역을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교육시설의 출입문과 연결한 구간에 주차장 설치, 불법주정차로 통학로 안전성을 저해한다.
- 횡단보도~보행로 연속성, 점자블록 확보 미흡으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대된다.
- 정보형 안내사인물, 교통표지판 난립으로 혼란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 및 시설물 확충이 미흡하다.
- 노후된 이미지의 사각지대, 골목길 존재로 주야간 범죄, 사고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곳이 많다.

기본방향

- 보호구역에 대한 인지성 강화 및 위험요인 최소화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 위험성을 저감한다.
- 교통약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보행환경을 디자인한다.
- 공간의 주요 통행객 특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개선한다.
- 정보형 사인물, 표지판 등 시각매체를 정돈 및 통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환경으로 디자인한다.
- 누구나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기법을 적용한다.
- 주야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호구역을 제공한다.
- 사각지대 위험성 완화하고 활력있는 통학환경을 제공한다.



지형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조성을 위해 본 가이드라인의 공공 공간 - 보도 내용을 반드시 준수한다.
- 교통·보행 약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안전존 보행 유효폭을 최소 1.5m 이상으로 확보한다.
- 자동차,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교차로에는 고원식 교차로로 조성한다.
- 고원식 횡단보도의 길이는 2.5m 이상으로 하고 연결되는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조성한다.



배치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펜스 조성 시 차량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펜스를 이루는 보의 형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날카롭거나 각이 없는 형태로 적용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 시 20 ~ 90m 간격으로 배치한다.
- 모든 방향으로의 시야각 확보를 위해 가로 교차로 및 가각부에 도로 반사경을 설치한다.
- 불법주정차 완화를 위해 불법주차 감시용 CCTV를 전신주 등 가로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도로 결절부, 교차로 구간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속 억제를 위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 펜스는 차량 이용자가 보행 약자를 인지하도록 보호구역 표지 시설을 결합하여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고원식 교차로 적용된 어린이 보호구역
2. 차량 충격을 막지 못하는 보행자용 펜스
3.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운전자의 공간 인지성 증진을 위한 시설물 설치

- 교통표지시설은 가로수에 가려지지 않게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 속도를 고려한 표지판 조성을 위해 「교통 안전 시설물 편람」의 규격을 준수한다.
- 야간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는 가로등·보안등 외에 LED 투광등을 추가 설치한다.
- 우천시 및 야간 시간대에도 어린이가 신호를 인지할 수 있도록 LED 바닥등을 설치한다.
- 운전자의 실시간 차량 속도 감속을 위해 주요시설 100m 지점에 가변속도 표출기를 설치한다.

어린이 행동 특성에 맞는 안전 시설물 구축

- 통행량이 적은 구간의 우범 방지를 위해 사각지대 조명, 비상벨, CCTV를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 대기 시 어린이 행동 제어를 위해 횡단보도 경계부, 신호등 지주에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한다.
- 신호등 음성신호안내 버튼은 어린이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 보호구역에 속하여 있는 건축물의 담장은 허물거나 높이를 1.5m 미만으로 설치해 개방감을 확보한다.

재료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재질 적용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노면에 요철 포장을 부분 적용한다. (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사용 면적을 최소화한다.)

● 필수 ○권장



1.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표지판
2. 야간 바닥조명 등 안전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
3. 가변속도 표출기 설치
4. 도로 교차부에 요철 포장 부분 적용

패턴 및 색채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을 설치한다.
- 과속방지턱 설치 시 반사성 도료를 적용하며, 색상은 주변과 색상 차이가 명확한 노란색을 사용한다.
- 옐로카펫은 행정안전부「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란색으로 도장하고 최소 폭 1m를 확보한다.
-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해 횡단보도 주변에 지그재그 형식의 노면 패턴을 부분 적용한다.
- 표지판 시설물 전체(지주포함)에 노란색을 이용하여 도장한다.

식재

시각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식재계획

- 장애물 존에 가로수를 식재할 시 시야 확보를 위해 0.8m 미만의 식재를 조성한다.
-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으로부터 최소 15m 이내 반경에 포함되는 구간에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차폐하는 교목 및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횡단보도 내 옐로 카펫 조성
2. 가로수에 가려진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A1-5. 트램전용도로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 위에 깔린 레일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가 통행하는 도로를 뜻하며, 자동차 도로와 병행하여 시설되는 트램 가로환경을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트램은 철도의 정시성과 버스의 접근성 등 다양한 교통수단의 장점을 보유한다.
- 전기나 수소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소음과 매연이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 이미지를 보유한다.
- 부산광역시는 남구 대연동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 이기대 어귀삼거리까지 1.9km 구간에 오륙도 트램을 추진 중이다.
- 자동차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되는 교통시설 특성상 혼잡한 도로환경 조성이 우려된다.

기본방향

- 자동차 도로와 조화로운 디자인을 구축한다.
- 친환경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고려하여 녹지의 통합 계획을 세운다.
- 편리한 대중교통수단 구축을 위해 휴게시설을 조성한다.



지형

주변 가로와의 연계성 확보

- 보행자의 안전한 접근을 위해 보행로와 트램전용도로 단차를 최소화한다.
- 주차시설, 편의시설 등 주변 가로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랜зит몰)를 함께 조성한다.
- 수목배치형 대중교통전용지구(트랜зит몰)의 주행로 횡단 종방향 길이는 최소 20m를 확보한다.



배치

시민의 편리한 통행 흐름 유도

- 일정 규모 이상의 교통섬이나 교차점 광장에는 녹지 및 휴게시설을 조성한다.
- 트램 주변 상업가로와 연계하여 휴식시설·자전거보관대 등의 가로 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
- 교통약자를 고려하여 주요 통행 동선에 분전함, 배전함 등의 설비용 고정시설물을 최소화한다.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야간에도 운전자의 방향 인지에 대응할 수 있는 조명을 연속적으로 조성한다.
 - 안내 사인은 환승 시 보행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트램 시·종점부, 주요 정차구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전용 픽토그램, 정거장명을 표시한다.
 - 명확한 동선 유도를 위해 노면전차 정거장 통행로 경계부에 표지병을 설치한다.
- 우천 시, 주변 가로와 연계를 위해 개방된 쉼터형으로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로와 트램전용도로 단차 최소화
2. 교통섬 내 녹지시설 조성

재료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재료 사용

- 주변 바닥 재질은 우천 시에도 투수성이 높은 포장재료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 교통량, 주변도로 형태 등에 따라 잔디, 아스팔트, 콘크리트로 단독·혼용할 것을 권장한다.



패턴 및 색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트램 구간 공공시설물에는 동일한 색채를 통합적으로 적용한다.
- 노면 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은 운전자 시인성을 고려한 색채를 통일 적용한다.
- 동선 인지성 증진을 위한 표지병 설치 시 색상은 백색, 황색 사용을 권장한다.



식재

시각의 개방성 확보를 위한 식재계획

- 수목배치형 대중교통전용지구(트랜짓몰)는 수목 일렬 배치로 노면전차 주행로와 보행로를 구분한다.
- 트램 구간에 식재 조성 시 부산을 대표하며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친환경 재료인 석재를 활용한 바닥
2.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적용

A2. 광장 가이드라인

정의 및 구성체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인 광장은 도시의 개방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 오락, 휴식공간 제공과 경관 및 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광장 중 옥외에 조성된 교통, 일반, 경관, 건축물부설 광장을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광장의 유형을 규정한다.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 도로의 교차지점에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하는 광장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과 원활히 연결되도록 철도역 앞에 설치하는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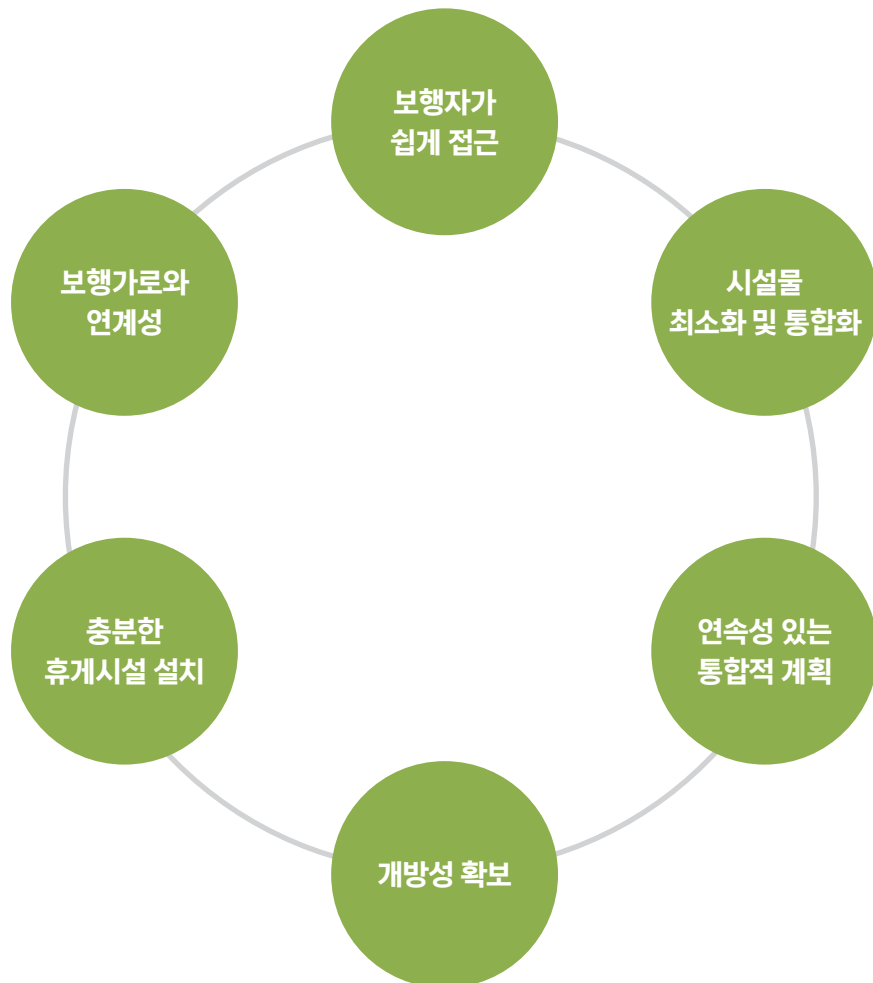
중심대광장 : 다수의 집회·행사·사고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

근린광장 : 주민의 사고,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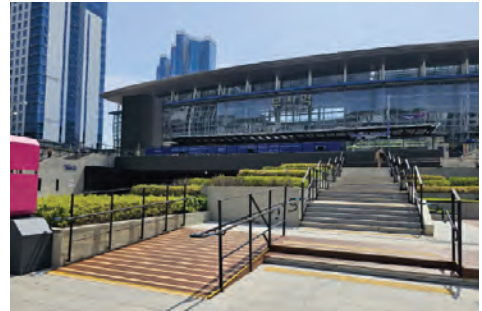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차도에 의한 단절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 광장의 면적대비 편의·휴식시설물이 부족하다.
- 단절된 경사로 및 계단, 진입부 단차 등으로 접근하기 어렵다.
- 과도한 형태의 장식 조형물로 시각적 개방성이 낮고 보행약자 접근이 어렵다.
-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볼라드 배치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
- 다양한 포장재료 등의 혼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킨다.
- 폭염 및 우천 등 기후에 따라 방문객 안전 및 편의성 격차가 심하다.

기본방향

-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편의시설물 배치 및 설치로 모든이의 광장 활용도를 증진한다.
- 불필요한 시설물을 통합 또는 정리로 접근하기 쉬운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 보행약자를 배려한 공간 구조계획 및 동선을 계획한다.
- 보행동선과 편의공간 분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을 조성한다.
- 연결된 보행가로와의 연계성을 극대화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인 조형물의 설치는 지양한다.
-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지형

광장 이용객의 보행 편의성 증진

- 광장 평탄화로 개방성을 확보하며, 보행가로 및 건축물의 지반층과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광장 내 단차가 불가피할 시 주요 동선에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보도 경계부에 낮춤턱을 조성한다.
- 진입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는 1/180이하로 조성한다. (단, 시설 관리자 인적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1/12로 완화 가능)
- 대중교통,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최단거리의 보행동선 계획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인지하기 쉬운 곳에 입구를 정한다.
- 보행공간은 순환형 구조로 계획하며, 타 공간 및 시설물과 연계 되도록 배치한다.
- 선큰광장 조성 시 완만한 경사로나 승강기를 설치한다.
- 주변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한다.

배치

개방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 시야 고려한 시설물 배치

- 볼라드는 광장 진입부에 1.5m 간격으로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진입 편의성 확보를 위해 광장은 4면이 개방되도록 조성한다.
- 소규모 광장은 향후 우범지대 예방을 위해 통행이 많은 장소에 설치한다.
- 개방적 조망공간을 위해 과도하게 장식적이고 수직적 형태의 상징 조형물을 제한한다.
- 조망구간에는 시야를 가로막는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휴게시설의 공간성 증진을 위해 휴게공간과 보행공간(동선계획)을 분리하여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단차가 있는 광장 조성 시 경사로 조성
2. 선큰광장 내 승강기 설치
3. 4면이 개방된 광장

공간 이용성 강화

- 고정형 시설물은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광장 경계부에 설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동식 시설물을 설치한다.
- 진입부에 휴게시설, 교목, 캐노피 등으로 그늘 공간을 조성한다.
-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장소, 수경 등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여 활력있는 광장으로 유도한다.
- 광장 내부는 관리용 차량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
- 광장 내 설치가 불가피한 돌출시설물은 휴식시설 및 경관요소로 활용한다.

개방적이고 밝은 공간으로 이용객의 안심 유도

- 주 출입부에서 광장 내부 연결동선에는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행등을 설치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 범죄예방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 발생 시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한다.
- 벤치, 퍼걸러, 화장실,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물을 주요 동선과 인접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광장 내 공공화장실은 야간에 고립되지 않는 위치에 계획하고,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공간도 밝게 유지한다.
- 도로변 광장은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한 조명을 충분히 확보한다.
- 광장 경계부 담장 설치 시 내·외부가 50% 이상 투시되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광장 활용성 증진을 위한 시설물 구축

- 주요 동선에 본 가이드라인의 공공시설물 - 보행안전시설물 - 점자블록 내용을 준수한 점자블록을 조성한다.
- 행사가 빈번한 광장은 이동식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간활용의 유연성과 가변성을 높인다.
-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눕는 행태가 불가능한 형태의 휴식시설물을 설치한다.

● 필수 ○권장



1. 광장 경계부에 설치된 고정형 벤치
2. 수목으로 그늘이 확보된 광장 진입부
3. 주 출입부 ~ 내부 연결동선 내 보행등 설치
4. 눕는 행태가 불가능한 벤치 구축

여름철 광장 활용도 증진

- 폭염에 대비하여 광장 경계부 옹벽, 건축물 외벽에 벽천 등 수경 시설을 배치하여 여름철 이용을 유도한다.
- 벽천, 분수 설치 시 미디어아트, 야간조명 등 활력있는 경관요소를 적용한다.
- 광장 내 열감 완화를 위해 진입부에 에어포그 시설을 조성한다.
- 광장 중앙부에 잔디밭을 설치하여 쾌적성을 증진한다.



재료

주변 환경과의 연계성 고려

- 관리 등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필요할 시 차량 하중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감면에 요철이 적은 재질을 사용한다.
- 바닥에 과장된 디자인을 금지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한다.
- 인접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통합적 경관을 조성한다.



폭염 위험도 완화를 위한 재질 선택

- 바닥면 열감 완화를 위해 자투리 공간에 잔디 등의 친환경 재질을 사용한다.
- 포장면의 여름철 복사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투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패턴 및 색채

연접 지역의 보행로, 경관 현황 고려

- 통합적 경관 연출을 위해 인접 보행로와 조화로운 바닥 패턴과 색채를 활용한다.
- 지역성을 강조하거나 자극적인 색채, 패턴 등의 과도한 적용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조명과 함께 조성된 분수대
2.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색상 사용 지양
3. 바닥에 친환경 재질 적용

식재

연접 지역의 보행로, 경관 현황 고려

- 해안가에 조성되는 광장에는 시야를 차폐하는 교목 식재 조성을 제한한다.
- 나무나 화초 등을 식재 할 경우, 식재면 높이를 광장의 바닥 높이 보다 낮게 조성한다. (단, 보행자 안전 및 식재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 잔디 및 식재포장 활용법을 계획하여 투수율과 녹시율이 높은 광장을 조성한다.
- 인공 지반에 식재 시, 생존 생육토심을 충분히 확보한다.
- 주요 경관과 공공시각매체를 가로막는 수목의 식재를 금지한다.



● 필수 ○ 권장

1. 광장 바닥 높이보다 높게 조성된 식재
2. 녹시율 증대를 위한 잔디 및 식재포장 활용

A2-1. 교차점광장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연출

- 구심성, 장소성의 부각을 위해 수경시설을 포함한 랜드마크 요소를 도입한다.
-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광장은 차량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 접근동선을 계획한다.
- 주변 건축물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상에 고정시설물의 배치를 지양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고려한다.
- 광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교통관계광장	조도(lx)		
	최저	표준	최고
매우복잡한 장소	30	40	60
복잡한 장소	15	20	30
일반장소	6	10	15



A2-2. 역전광장

부산광역시 첫인상, 관문공간 연출

- 광장의 주요 진출입부에 부산 상징 시목 또는 시화를 식재한다.
- 역사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 및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다국어어를 적용한 공공시각매체로 보행자의 안내를 도모하고, 휴게, 편의, 안내시스템을 통합하여 계획한다.

모두가 편리한 교통거점 조성

- 대중교통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며, 버스, 택시 승차대 및 주차시설 설치 시 역사와 연결되는 동선 내에 설치한다.
- 보행자 편의성을 위해 가로시설물은 최소화하고 바닥면을 활용한 공공정보매체를 조성한다.
- 주요 진출입부 주변에 자전거 및 PM(퍼스널 모빌리티) 이용자를 위한 보관 시설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광장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랜드마크 요소
2.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광장 조성
3. 진출입부 주변에 자전거 및 PM 보관 시설 설치

A2-3. 중심광장

주민 소통의 중심공간 조성

- 집회, 행사, 휴식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되도록 고정형 시설물은 광장 경계부에 배치한다.
- 야외무대, 식재대, 선큰(Sunken), 계단 광장 등 입체적인 공간 형태로 조성한다.
- 대규모 중심광장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물을 장애인 화장실 설치 기준을 준하여 설치한다.
- 중심적 역할 부여를 위해 광장 중심부에 분수 등의 주목성 높은 시설을 배치한다.
- 보행가로를 포함하여 인접 환경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행사의 규모에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유연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A2-4. 근린광장

생활공간에 맞춤형 공간 제공

- 주민 사고, 오락, 휴식을 유도하는 광장으로 근린주거지 구역별 하나 이상씩 조성 권장한다.
- 지역의 보행자 통행 빈도 및 밀도에 따라 적절한 규모를 산정한다.
- 주민을 위한 놀이요소 및 휴식시설물을 도입한다.
- 사생활 보호, 소음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는 상록수로 밀식 혹은 낙엽수로 차폐한다.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CCTV 감시 중'이라는 안내사인물을 함께 설치한다.
- 영구적인 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선큰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광장 구축
2. 중심부 역할 강화를 위한 분수 조성
3. 휴식시설물 및 CCTV 도입으로 편리한 근린광장

A2-5. 경관광장

주변 자원과 조화 유도

- 경관적 품격을 훼손하는 과도한 장식적 시설물 설치의 지양한다.
- 상징시설물 설치 시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수직적 구조를 남용한 형태는 지양한다.
- 인근에 역사문화, 자연자원이 있으면 해당 자원과 연계한 보행 동선 및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 혼란스러운 이미지 방지를 위해 동적인 움직임이 있는 점멸식 조명 사용을 지양한다.



A2-6. 건축물 부설광장

지역 여건에 맞춤형 생활밀착형 공간 제공

-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 단순 통과 동선, 보행공간, 휴식공간을 명확하게 구분한다.
- 건축물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진입부 경사로 및 경계석의 턱을 낮춘다.
- 공간 이용객의 심리적 안정감 제공을 위해 방향성이 있는 벤치 설치 시 식재, 건축물로부터 앉는 사람의 등쪽이 배경이 되도록 배치한다.
- 누구나 이용 가능함을 인지하도록 주요 출입구에 1개소 이상의 안내사인물을 설치한다.
- 이벤트가 빈번한 공간은 벤치, 그늘막 등의 휴식시설물을 이동식, 가변형으로 설치한다.
- 이벤트, 행사공간의 바닥은 잔디식재를 사용하여 보행공간, 접근로와 명확히 구분한다.
- 선큰광장 조성 시 보행약자를 배려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보행 동선
2. 보행공간 및 휴식공간 구분
3. 잔디식재를 활용하여 보행공간과 활동공간 분리

A3. 공원 가이드라인

정의 및 구성체계

-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공공간이다.
- 본 가이드라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생활권 공원과 기타 공원 용도로 이용되는 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공원으로 다음과 같이 유형을 규정한다.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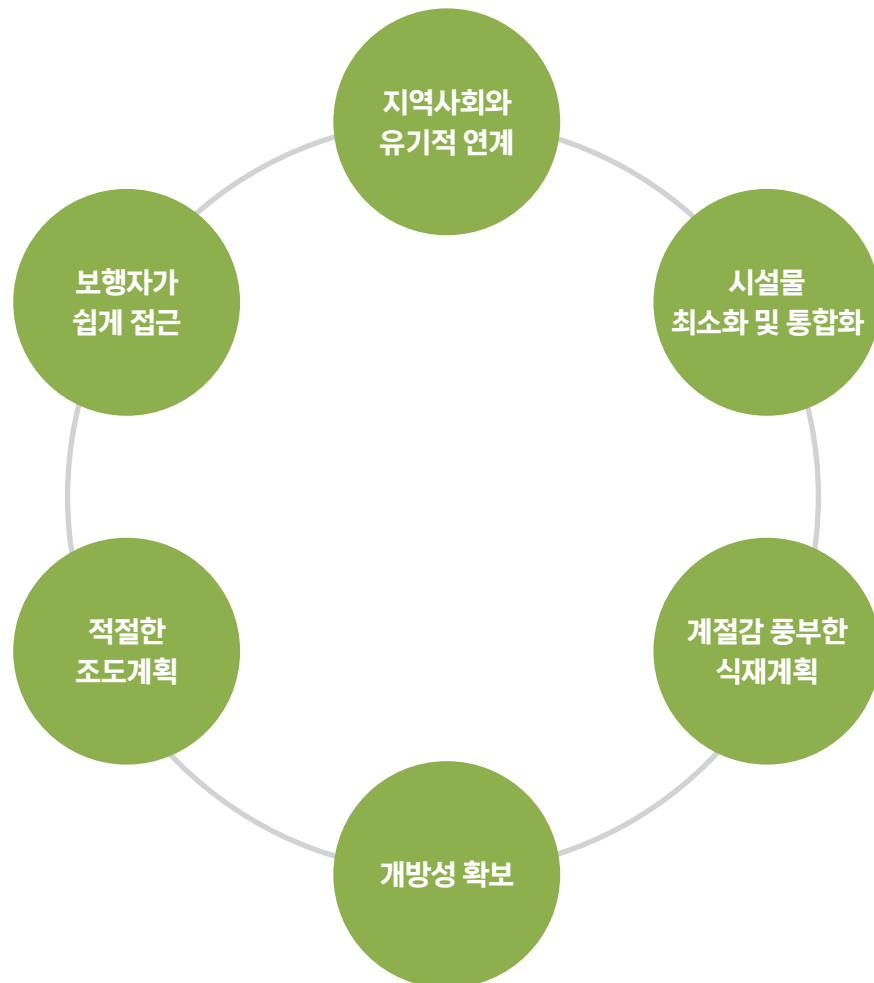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적용대상



현황 및 문제점

- 경계부 식재,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외부에서 차폐되어 있다.
- 주차장과 공원이 연접하고 있어 공간내부 파악이 불가하다.
- 경사로 없이 계단만 조성되어 있는 공원 출입구가 다수 존재한다.
- 경사가 높은 공원 진입부에 안전시설물이 없어 보행환경이 위험하다.
- 휠체어, 유모차 등이 통행하기 어렵고, 주변 여건과 조화롭지 않은 바닥재질이 사용되고 있다.
- 과도하게 튀는 원색 사용이 많으며, 해안과 어우러지지 않는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 다양한 계층의 이용 및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다.

기본방향

- 차폐 공간없이 개방되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보행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공원 시설을 조성한다.
- 충분한 안전시설물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원을 조성한다.
- 주변과 어우러지는 색채 및 재질을 활용한다.
- 시설물에는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한다.
- 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 및 유지관리, 이용 등의 모든 단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시설물 위주의 공원 조성은 지양한다.



지형

공간 평탄화 등으로 접근성 향상

- 주 접근로 및 통행 동선의 단차를 최소화하고 보도를 평탄화한다.
- 진입부와 공원 외곽 보행로 간 레벨 차이가 심한 경우 경계부에 18분의 1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한다.
- 주요 출입구는 인접한 보도와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보행자 동선 확보를 위해 용도별로 공간을 구획 및 분류한다.
- 보행공간과 식재구간의 경계를 가능한 제거하여 전체적인 공원 경관 연결성을 확보한다.



배치

효율적 공간 조성으로 편의성 증진

- 보행자, 차량 동선 분리를 위해 주차공간은 보행로와 겹치지 않는 위치에 조성한다.
- 주민들의 방문 빈도, 이용행태 분석으로 적절한 개수의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이용성을 높인다.
- 안내시설물은 위치 파악이 쉽고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모두가 안전한 공간 제공

- 출입구, 사각지대 이용이 적은 장소 등 범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CCTV, 비상벨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등기구 설치 시 컷오프형 방식을 사용한다.
- 벤치 등 휴게시설은 야간에도 시야가 확보되도록 가로등, 보행등과 함께 설치한다.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 주 출입부가 도로 측에 위치할 시 과속방지턱 등 자동차 속도감속 시설을 설치한다.
- 외부인의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장의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높이 1.8m 이상으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단차가 최소화 된 주 접근로
2. 가로등, 보행등이 함께 설치된 휴게시설
3. 컷오프형 조명 방식 적용

개방적인 공간 연출

-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폐하는 높은 담장 등의 폐쇄적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주변 건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그늘, 일조량을 확보한다.
- 공원 경계부의 담장은 투시형으로 높이 1.6m 미만으로 설치한다.
- 관리실은 접근성 높은 공간에 배치하고 투시형 구조로 디자인한다.
- 보도 경계부에는 담장, 펜스보다 생울타리,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여름철 이용성 증진

- 여름 및 우천 시를 고려하여 그늘막 및 쉼터 등의 편의시설물을 설치한다.
- 배수시설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 공원 동선 안내를 위한 표지판은 주요 교차점, 진입부에 설치한다.
- 보행자의 공간 인지성 강화를 위해 풀형 방향 안내 사인과 함께 바닥면에 방향 안내 사인을 표기한다.
- 공원 앞 쓰레기 적치 및 야간 소음방지를 위한 금지·매너 사인물을 설치한다.
- 공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기 위해 주요 진입부에 공원 종합 안내사인물을 배치한다.

재료

공용공간의 조화와 유지 관리성 증진

- 우수처리시설 계획과 함께 우수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한다.
- 휴게시설물은 파손 방지 및 내구성이 높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 자연과 조화를 위해 친환경적 소재로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시각적으로 차폐되는 높은 담장 설치
2. 공원 진입부에 설치된 동선 안내 표지판
3. 바닥형 안내사인 구축

패턴 및 색채

정돈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일관성 있는 색채 적용

- 퍼걸러, 벤치 등 편의시설물은 색채 계열을 통일하여 일관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 현란한 원색 사용을 제한하며, 배후경관 색채와 조화로운 색채를 시설물에 통합 적용한다.
- 영역성 강화를 위해 공원 진입 구간의 바닥 재질 및 색채를 차별화하여 변화를 준다.
- 지역 상징성 부각을 위한 과도한 패턴 사용을 지양한다.



식재

환경적, 사회적 여건 고려

- 공원의 담장을 대체하거나, 보행로와 영역 구분을 위한 수목은 적정 높이(500~750mm) 이하로 조성한다.
- 식재는 보행로 및 산책로의 시점과 종점에 고르게 분포하면서 연속성 있게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선연결을 확보한다.
-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 공간제거, 인접 가로시설물(CCTV, 가로등 등)의 기능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어르신의 인지건강 증진을 위해 향이 나는 식물, 계절 식재를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수변과 조화롭지 않은 원색 색상을 사용한 공원
2. 500~750mm로 조성된 수목

A3-1. 소공원

자연친화적 도심 녹지 조성

- 주변 주거지 내 다양한 방문객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로 연접부 단차를 제거한다.
- 도로와 연접한 공간은 녹지를 확보하여 공기정화나 방음 기능이 확보된 공간으로 조성한다.
- 담벽 조성 시 덩굴성 식물을 활용한 입면 녹화를 조성한다.
- 과도한 휴게시설보다 녹지 위주로 조성하여 도심 내 녹시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 다양한 식재를 조합하여 풍부한 경관을 연출한다.



A3-2. 어린이공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 차폐된 공간없이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는 장소에 조성한다.
-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신체와 접촉하는 모든 시설물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한다.
-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의 이용도 함께 고려하여 공원의 활용도를 높인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는 충격흡수가 가능한 탄성재질을 사용한다.
- 도로와 연접한 공원 진출입부에는 차량 속도 감속시설 및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한다.
- 사각지대, 안전사고 우려구간에는 어린이도 알아볼 수 있는 간결한 주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녹지 위주로 구성된 소공원
2. 어린이공원 바닥에 탄성재질 적용
3. 진입부 일대에 차량 속도 감속 시설이 없는 어린이공원

공원 방문객의 다양한 행태 고려

- 휠체어, 유모차 이용객을 위해 공원 내 보행로 유효폭은 2.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놀이시설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원 중앙부에 설치한다.
-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보호자, 주민 등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하여 휴식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
- 물놀이 시설, 친자연 놀이시설 등 다양한 테마형 놀이시설을 조합하여 설치한다.
- 이용객 연령에 맞춤형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유아, 어린이 등 발달단계에 따라 영역을 구획한다.
- 벤치 등의 휴식시설물은 공원 외곽에 설치하여 어린이 행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이들의 상상력을 유도하는 원색계열의 색채와 안정적 색채를 적절히 혼용한다.
- 적절한 조명계획을 통해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인다.



A3-3. 근린공원

인접공간과 연속적인 계획

- 풍부한 녹지대를 확보하여 도심 속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구성한다.
- 보행가로 및 인접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속적인 동선을 조성한다.
-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은 주변 건축물에서 일정거리 이격 배치한다.
- 접근로와 보행동선은 단차없이 평탄하게 계획한다.



이용객의 행태를 고려한 시설물 구성

- 휴식, 운동, 여가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휴게시설물은 방문객의 연령 및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주민 간 소통형성을 위해 많은 인원이 모일수 있는 정자, 원형 벤치 등의 시설물을 배치한다.

● 필수 ○권장

1. 테마형 어린이공원 구축
2.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객이 고려되지 않은 어린이공원 진입부
3. 풍부한 녹지대로 자연친화적 공간 연출

A3-4. 역사공원

역사문화적 자원의 고유성 보전

- 문화재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담장, 생울타리 등으로 공공구역과 보호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한다.
- 유적지, 문화재 주변에 완충녹지대를 조성하여 도심 내 인공경관을 차폐한다.
- 차분한 분위기 강화를 위해 자연 고유 색채 및 재질을 활용한다.
-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간 계획을 위해 과도하게 장식적인 편의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자연지형을 보전하고 인공적인 구조물은 최소한으로 계획한다.

역사문화자원 안내를 위한 시설 확충

- 종합안내사인 설치 시 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한다.
- 휴식시설물 조성 시 역사자원에 대한 교육, 학습을 유도하는 체험형 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
- 적절한 조명을 통해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을 높인다.

A3-5. 문화공원

주민 참여공간 조성

- 공간 이용률 증진을 위해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소통 가능한 공간을 조성한다.
-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문화·예술 이벤트에 맞게 변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은 가변형으로 설치한다.
- 문화·예술 이벤트, 프로그램을 상시 기획하여 문화 창조도시 이미지를 강화한다.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보호자와 일반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시설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완충녹지대 조성을 통해 도심 경관을 차폐한 역사공원
2. 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이 설치된 역사공원
3. 상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문화 창조도시 이미지 강화

A3-6. 수변공원

수 공간으로의 안전한 접근 유도 창출

- 수변 산책로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 동선 확인을 위해 수변 산책 코스별로 번호를 매긴 안내사인물을 설치한다.
-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재질 사용을 자제하고 투수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한다.

수변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인 공간 조성

- 수변 바닥에는 목재 데크 등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한다.
- 조명은 생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하고 은은하게 연출한다.
- 어린이들의 물놀이 안전을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개방성을 고려하여 조망 데크 및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공간의 수명과 청결 및 유지관리에 용이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인공폭포, 분수 등의 수경시설 설치로 수변공원의 활력을 더한다.
- 보도에 페인트를 사용할 시 수공간의 색감을 추출해서 사용한다.
- 하천변에서 서식하는 자생수종을 식재하여 일관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 필수 ○ 권장

1. 완만한 경사로 설치
2. 은은한 조명 구축으로 생태계 보전
3. 인공폭포 조성으로 활력있는 수변공원 연출

A3-7. 체육공원

소음으로 인한 문제 최소화

- 소음이 우려되는 운동시설은 주거지와 이격하고 방음 효과가 있는 수목을 식재한다.
- 여건상 시설물 이격이 불가능할 시,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마운딩, 수림대를 조성한다.

개방성, 편리성 증진

- 축구장, 야구장 등 대규모 개방시설 조성 시 차양막 등 외곽에 휴게시설물을 설치한다.
- 차양막은 그늘막, 지주대로 구성된 개방적 형태로 설치하여 범죄를 방지한다.
- 개방적 공간 연출을 위해 체육 시설물은 공원 외곽에 설치한다.
- 편의공간 조성 시 체육시설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 설계한다.

시니어를 위한 즐거운 공간 조성

- 고령인구의 체력 향상을 위해 운동시설물 설치구간에 인지건강 시설물을 함께 조성한다.
- 여유공간이 존재할 시 어르신들이 간단한 체조를 할 수 있는 공간 및 조깅 코스를 조성한다.
- 그늘이 있는 구간에 어린이, 어르신의 감각을 자극할 수 있는 지압길 등을 부분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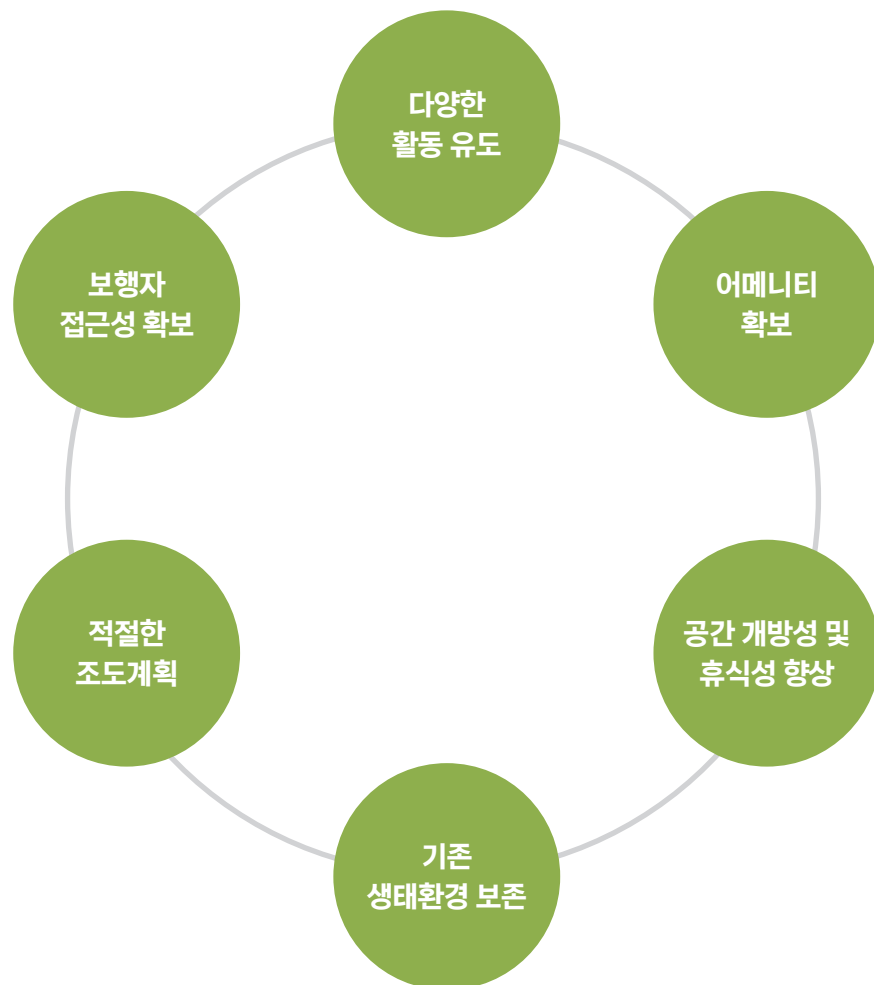
1. 고령인구의 체력 향상을 위해 설치된 인지건강 시설물
2. 차양막이 부재한 대규모 개방시설

A4. 기타공간 가이드라인

정의 및 구성체계

- 광장, 도로, 공원을 제외한 부산광역시에 필요한 공간을 기타공간으로 분류하였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옥외주차장과 건축물 등 공개공지를 포함하고 해양도시 부산에 걸맞는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선착장과 생태습지, 시민의 체감도가 많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5개 기타공간의 디자인 중점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A4-1. 옥외주차장

정의 및 구성체계 · 부산광역시 및 구·군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 옥외주차장에 해당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과 주요 공공건축물의 옥외주차장을 포함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주차구역과 보행구역의 구분이 미흡하다.
- 주차장 진입부가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위험하다.
- 2층으로 이루어진 주차장의 경우 하부공간의 조명계획이 부족하여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진출입로와 연결한 보행로에 블라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다.
- 시설 내 부족한 녹지로 삭막한 공간이 형성된다.
- 대부분 주차장 바닥이 불투수 재질로 조성되어있으며, 아스팔트 포장면이 전면으로 노출되어있어 시각적 불쾌감을 일으킨다.
- 여름철 복사열 방출 및 우천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다.
- CCTV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미흡하여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기본방향

- 차폐공간 없이 개방적인 공간으로 구축한다.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분리로 쾌적한 공간으로 구축한다.
- 정보형 사인물, 표지판 정돈 및 통합화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안내 시스템을 구축한다.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주차장 면적에 따른 조명계획으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한다.
- 녹지 확보, 자연친화적 재질 사용 등을 통해 쾌적한 주차장을 형성한다.
- 차량 주출입구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되지 않도록 한다.



지형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한 공간구조

- 주차공간과 차량 통로는 보행 안전을 고려하여 평탄하게 조성한다.
- 보행통로에 경사로를 조성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한다.
- 장애인주차구역은 주출입구 인접 구역에 조성하며, 폭은 3.5m 이상으로 계획한다.
- 시각적 차폐, 소음 및 먼지 저감을 위해 주차장 경계부에 마운딩을 조성한다.
- 주변 건물과 보행로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배치한다.

배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

- 진출입 편의성을 위해 안내시설, 요금정산 시설 등 각종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주차구역 표시를 명확하게 한다.
- 주차장의 출입구 및 차로에서 차량에 대한 상시 관찰이 가능하게 진출입로를 단일화한다.
- 차량 진출입로 주변으로 시야를 가리는 수목이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 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통제시스템과 함께 CCTV를 설치한다.
- 후방 확인용 거울과 음성, 음향 및 시각정보에 의해 자동차 출고를 알려주는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 보행가로 불법주차 방지를 위해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과 별도로 조성한다.
- 옥외 주차장의 조명은 시간대에 의한 이용상황과 에너지절감을 고려하여 센서형을 권장하며 과잉조명 계획을 지양한다.
- 야간 이용객의 행동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적정 조도를 확보한다.
- 표면 배수의 집중 및 이염, 오염 물질의 저감을 위한 주차공간 사이 지면 배수로를 설치한다.

● 필수 ○권장



1. 평탄하지 않고 경사진 주차장
2. 교통약자 주차구역 표시가 명확한 주차장
3. 후방 확인용 거울 미조성

재료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바닥은 투수성 포장을 적용한다.
- 불투수 포장재료 사용 시 녹지대 등을 도입하여 투수 면적을 확보한다.
-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다.

차량·보행자 영역성 강화

- 장애인주차 및 전기차 주차 등 노면표지를 표준 픽토그램 및 인지 컬러를 적용하여 명확한 시인성을 확보한다.
- 영역 인지성 강화를 위해 차량 통로와 주차공간 및 보행통로가 명확히 구분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페인트 도장으로 된 주차선 외 차도용 블록재를 사용하는 등으로 다양화한다.

식재

주차공간의 삭막함 완화

- 주차장 내부 교목은 지하고가 높은 수종, 관목은 키가 작은 수종을 배치한다.
- 주차장과 보도 경계부에는 생울타리, 식재,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 대규모 옥외주차장에는 수관폭이 넓은 수종을 이용하여 그늘 식재를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1. 투수성 포장지 적용된 주차장
2. 태양광 패널 적용
3. 키가 작은 수종 배치
4. 주차공간과 식재 사이 배수로 설치

A4-2. 공개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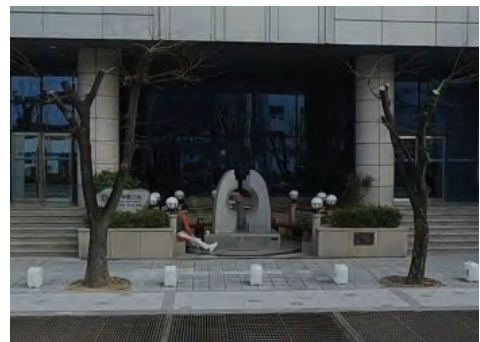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업무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 공간을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인접한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위치하여 차폐된 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 주보행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접해있어 이용성 및 인지성이 저하된다.
- 누구나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다.
- 건축물 출입구 문 전면에 조성되어 이용객이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 보행로와 동일한 바닥패턴을 사용하는 등 공간 인지성이 낮은 형태로 조성되어 있다.
- 휴식공간 내 상징 조형물 설치로 이용하기 불편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 자전거, 오토바이 불법 주차로 공간 개방성이 훼손되어 있다.
- 과도하게 협소한 공간에 공개공지가 조성되어 있다.
- 일률적인 공개공지 형태로 특색없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기본방향

-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공간을 위해 공개공지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 모두에게 열린공간으로 변화시킨다.
- 보행동선, 건축물 동선 등과 분리된 공간조성으로 쾌적한 시설을 형성한다.
- 휴식시설 역할 강화를 위해 이용객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 사각지대 없이 개방적인 시설 형성한다.
- 공간 활용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다.



지형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확보

-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접한 보행가도와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조성한다.
-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요 도로와 접한 공간에 조성한다.
- 상업용 건축물 소유주의 공개공지 사유지화를 유도하는 턱 높임을 지양한다.
- 상업지역의 공개공지는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의 상점 이용이 용이하도록 보도와 평행한 높이로 조성한다.
- 최소한의 일조량 확보 및 휴게시설을 제공하여 이용도를 높인다.

이용 편리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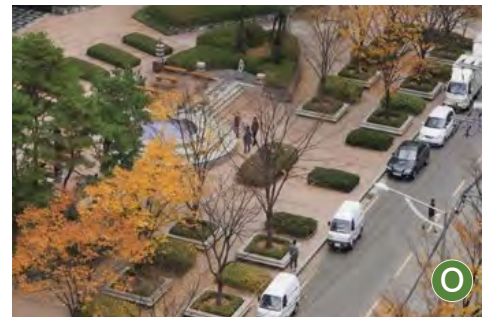
- 공개공지의 면적은 최소 45㎡ 이상, 최소폭은 5m 이상으로 조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폭은 3m 이상, 면적은 최소 60㎡ 이상으로 조성한다.
- 소규모로 분산된 공개공지는 주변 보행로, 전면공지와 통합적으로 개발한다.
- 필로티형 공간은 전체 공개공지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배치

개방적으로 열린공간 제공

- 담장이나 펜스를 설치하는 경우 그 형태와 크기가 위압적이지 않게 조성한다.
- 인접 건축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과 휴식 시설을 분리한다.
- 공개공지 출입구에 상징조형물 설치를 제한한다.
- 보안 출입구 등 일반인의 출입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공개공지 내부에 설치를 제한한다.
-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개 이상의 표지판과 바닥에 경계 라인을 표시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가도와 조화를 이루는 공개공지
2. 주요 도로와 접한 공간 내 조성
3. 전체 면적이 필로티형으로 구축
4. 보행을 방해하는 대형 상징조형물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조성

- 음영공간 또는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통행량이 적은 건물 측면이나 후면, 주차장, 사각지대 등에는 반사경을 설치한다.
- 야간 활용도가 높은 장소는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 야간 이용 활성화 및 우범 예방을 위해 적절한 위치에 조명등, 경관등을 설치한다.



재료

자연친화성 강화

- 측구는 철재 트랜치 마감처리보다 자갈, 식재 등의 자연 고유의 재료를 사용한다.
- 퍼걸러, 벤치 등의 휴식시설물은 목재, 석재 등의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용한다.



패턴 및 색채

주변공간과 연계성 확보

- 색채는 저채도, 중명도로 하고 인접 보도의 바닥과 유사한 패턴으로 연속성을 확보한다.
- 일관된 공간 분위기를 위해 휴식시설물은 저채도로 통일하여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자연친화적인 석재를 사용해 조성된 공개공지
2. 석재 측구 조성
3. 보도와 조화롭지 않은 색채 적용

식재

친환경적 경계부 연출

- 수목이 건물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의 거리를 1,500mm 이상 이격하여 식재한다.
- 건물의 창문 앞에는 개방성을 위해 키가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순차적으로 교목을 식재하되, 교목은 일정 높이 이상의 지하고를 유지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 경계부에 플랜트박스 설치를 지양하며, 수고가 낮은 상록수를 심는다.
- 겨울철 미관을 고려하여 상록수를 적정 비율로 식재한다.
- 가시나 독성이 있는 식물은 식재하지 않는다.



● 필수 ○ 권장

1. 건물과 접한 수목 조성으로 시야 확보 불가능
2. 경계부에 플랜트박스 구축

A4-3. 선착장

정의 및 구성체계 · 강이나 좁은 바다 물목에서 배가 닿고 떠나고 하는 일정한 곳을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해안과 조화롭지 않은 재질 및 색채를 활용한 선착장으로 자연 경관이 훼손된다.
- 주요 도로 및 보도와 연계성 부족하여 접근성이 저하된다.
- 선착장 건축물에 고채도 색상을 다수 사용하여 해안경관과 조화롭지 못하다.
- 전면 주차차량으로 인해 찾기 어려운 진입부가 형성되어 있다.
- 선착장 특색을 살린 진입부로 활력있는 이미지가 연출된다.
- 유람선을 탑승하는 공간과 터미널이 분리되어 이용객의 편의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 활력있는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선착장 디자인을 적용한다.
- 자연 고유의 재질 활용으로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선착장을 형성한다.
- 이용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주요 보도와 연계한다.
- 터미널 등 휴게시설과 통합 구축한다.



배치**주변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 선착장의 기반시설, 조형요소, 건축물 형태와 조화되는 공공 시설물을 배치한다.
- 주변 해양경관의 개방성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구조물과 수평적 이미지의 선착장을 조성한다.
- 해양경관의 특색을 담은 상징조형은 주변 경관을 차폐하지 않는 구조물로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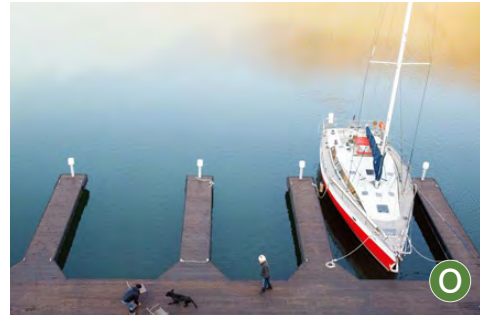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 이용객의 접근성을 위해 인접 가로와 선착장 진출입부 보도를 연결한다.
- 해안과 연접한 펜스에는 구멍판 등의 구조 시설물을 배치한다.
- 개방적 위치에 방문객을 위한 휴게시설, 조망데크를 조성한다.

패턴 및 색채**해양경관과 조화 유도**

- 품격있는 선착장 조성을 위해 외벽에 고광택 재료 사용은 금지한다.
- 조형물, 선착장 구조물 설치 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무채색, 저채도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해양경관과 조화로운 선착장 디자인
2. 휴게시설을 함께 조성

A4-4. 생태습지

정의 및 구성체계 · 식물과 미생물에게 다양한 서식환경을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며, 인간에게는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심미적 안정을 제공하는 공간이다.

현황 및 문제점

- 생태습지와 조화로운 건축물 디자인이 되어 있다.
- 나무데크를 활용한 최소한의 조망공간 조성으로 생태환경 보존되어 있다.
- 주변 녹지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나무데크로 조성하여 친환경적 이미지 극대화하고 있다.
- 습지에서 교량 하부공간이 조망되어 친환경적인 공간 분위기가 훼손되고 있다.
- 인위적인 철새 등 이미지를 표현하여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

기본방향

- 생태습지의 친환경적 이미지 극대화를 위해 생태공간을 절대 보존해야 한다.
-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한다.
-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활용한 시설물을 구축한다.



배치

개방적 체험공간 조성

- 주변 녹지, 수변과 연계한 생태학습 산책로를 목재 데크 형식으로 조성한다.
- 공원 내부에 생태 학습, 체험을 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한다.

본연의 생태환경 보존

- 데크는 주요 조망점에서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위치 및 높이로 조성한다.
- 데크 산책로, 학습공간 조성 시 환경을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격과 범위로 공간을 조성한다.
- 개방형 데크 조성 시 철새 보호를 위해 탐조회랑(자연재료를 사용한 차폐형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패턴 및 색채

친환경적 이미지 극대화

- 인위적인 디자인, 이미지를 지양한다.
- 가로등, 벤치 등의 시설물은 수변, 습지와 조화되는 저채도의 색채로 통일한다.

● 필수 ○ 권장



1. 목재 데크 형식으로 조성된 산책로
2. 저채도 색상으로 통일한 시설물
3. 인위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안내판

A4-5. 전통시장

정의 및 구성체계 ·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 ·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조성되고,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하여 주로 전통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협소한 통행로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가 불가하다.
- 주출입로 주변으로 불법 적치물, 주차, 가판대 등이 밀집하여 불편한 보행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황색 유도선을 벗어나 가판대가 돌출되어 보행자에게 위험요소로 작용된다.
- 내부 방향안내표지판 부족으로 방문하기 어려운 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 미흡한 조명으로 어두운 아케이드 내부가 조성되어 있다.
- 방문객이 이용 가능한 휴식시설이 부재하다.
- 소화기 등 소방시설 시인성이 낮아 화재 발생 시 사용이 불가하다.
- 상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원색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 노점 가판대로 인해 보행공간이 축소되어 있다.

기본방향

- 황색 유도선 준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 방문하고 싶은 시장환경을 위해 상인 및 방문객 모두 이용 가능한 휴식시설을 조성한다.
- 인지하기 쉬운 방향안내사인물을 설치한다.
- 밝은 분위기의 시장환경을 조성한다.
- 소방시설 시인성을 강화한다.
- 시장 품격을 증진하는 재료 및 색채를 사용한다.
- 노점으로 축소된 보행로에 일방통행 시스템을 도입한다.



배치

긴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시장 조성

- 긴급상황 시 소방차량의 통행을 위해 아케이드 지붕 높이는 4.5m 이상으로 설치한다.
- 인접 건물 공사, 이사 등 주민 생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케이드 지붕은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한다.
- 아케이드 측벽은 비, 햇빛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한다.
-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아케이드 측벽은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한다.
- 아케이드 기둥은 통행로 영역(노란색 유도선) 이내에 설치한다.
- 긴급상황 시 빠른 대피를 위해 바닥면 및 아케이드에 방향 안내 사인물을 설치한다.
- 소방안전시설물 및 범죄안전 시설물은 주 보행로에서 잘 보이게 설치한다.
- 폐점 후 심야시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CCTV, 비상벨 등 범죄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 시장 내부는 막다른 통로 형성을 지양하며, 여러 방향으로 진입과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쾌적한 통행로 조성

- 가판대 영역 폭은 2m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노점 가판대는 폭 1.2m 이하, 길이 1.2m 이하로 규격화하여 설치한다.
- 노점 가판대로 인해 보행로가 두 공간으로 구분될 경우, 일방통행 사인물을 설치한다.
- 주 출입로와 연결되는 공간을 활용하여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소방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전통시장
2. 별도로 조성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전통시장 특화디자인

- 장소성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별 특성을 반영하여 진입부에 특화 게이트를 설치한다.
- 폐점 이후에도 활력있는 공간을 위해 셔터에 일러스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시장 결절부에 상인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경관적 품격 향상을 위해 간판, 셔터, 가판대 등 시장 시설물에 고명도 및 고채도 적용을 지양한다.

재료

화재로부터 안전한 아케이드 계획

- 아케이드 지붕은 스티로폼이 들어간 EPS판넬 사용을 제한한다.
- 아케이드 지붕은 화재 저항이 강한 난연등급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전통시장 진입부에 설치된 특화 게이트
2. 정돈되지 못한 느낌을 주는 고명도, 고채도 간판

공공시설물

PART.2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및 목표	86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원칙	87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95
도로(부속)시설물 가이드라인	100
교통관련시설물 가이드라인	127
보행안전시설물 가이드라인	158
편의시설물 가이드라인	171
녹지·수경시설물 가이드라인	205
공급시설물 가이드라인	215
범죄 및 안전시설물 가이드라인	225

공공시설물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은 사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성, 편리성, 사용성 등을 우선으로 고려하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급변하는 기술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의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의 조성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을 설정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목표



기능 통합

유사한 시설물 통합 및 기능을 우선으로 하는 디자인

안전한 사용

신뢰성으로 안심하고 이용하며, 범죄나 사고, 재난 등을 예방

누구나 이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하는 장애없는 디자인

주변과 조화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내구성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부산다움

통일되고 일관성있는 부산을 표현하는 디자인

품격있고 신뢰성 있는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2023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 원칙 및
각 세부지침을 수립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원칙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7원칙

1

시설물 통합화 및
최소한의 수량으로 계획한다

2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3

장식적 형태는 지양하고
기능을 우선으로 디자인한다

4

보행 및 인지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5

친환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로 디자인한다

6

지역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며
공간 연속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7

도시경관과 장소의 맥락을 반영하여
미관을 향상 시킬수 있도록 계획한다

① 시설물 통합화 및 최소한의 수량

○

권장

- 가로등 + 휴지통, 신호등 + 안내사인 등 연계가능한 시설물간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노후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은 주변 시설물과 기능을 통합하거나 철거한다.
- 분전함, 배전함 등 공공공간을 차폐하고 있는 시설물은 시각매체 시설물과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교통관련 시설물은 일체형으로 통합하여 보행공간 확보 및 정보전달의 혼선을 방지한다.



×

지양

- 크기와 기능이 상이한 시설물은 통합하지 않는다.
- 지나치게 많은 기능과 정보를 담은 시설물은 지양한다.
- 주변 시야 차단을 유발하는 과도한 규모의 통합시설물은 지양한다.



②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



권장

- 사회약자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디자인한다.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색채디자인을 적용한다.
-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시 빠르게 이용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지양

- 지나치게 많은 기능과 용도가 불분명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사회약자의 이용에 저해되거나 방해가 되는 시설물은 금지한다.
- 조작이 어렵고 복잡하여 즉각적인 사용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은 지양한다.



③ 장식적 형태는 지양하고 기능을 우선

○

권장

- 현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시설물을 디자인한다.
- 시설물 고유의 기능을 우선으로 하며, 최소한의 색채를 사용한다.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시설물 기능성 및 사용성을 우선시 하여 디자인한다.
- 지역, 장소별 연속성을 가진 시설물은 통일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물, 햇빛 등으로 인한 변형·오염에 취약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지양

- 지자체의 상징물 및 과도한 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 3개 이상 색채 조합은 지양하며, 비슷한 시설물 중복 설치는 금지한다.
- 가로등, 안전펜스 등 도시 정체성 및 연속성을 가진 시설물은 장식적 요소 적용을 지양하며, 형태가 부각되지 않게 디자인한다.
- 비슷한 기능의 시설물은 중복 설치하지 않는다.



4 보행 및 인지에 방해되지 않은 위치에 설치



권장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크기 및 형태로 디자인한다.
- 시설물 설치 시 도로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누구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장애없는 디자인(Barrier-Free)을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 1.5m 이하의 좁은 보행공간일 경우 보행구역과 시설물 구역을 구분하여 계획한다.
- 정보 전달 및 안전시설물은 가로수 등에 가려지지 않도록 계획한다.



지양

- 화려한 색채 및 과도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시설물 디자인은 지양한다.
- 최소한의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여 보행장애를 유발하는 시설물 배치를 금지한다.
- 인지하기 어려운 과도한 크기 및 형태 디자인이나 도시구조물에 가려지는 배치를 지양한다.



⑤ 친환경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검증된 재료 사용

○

권장

-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오염이 적은 친환경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종 선정 및 인공구조물 등 시설물 녹화로 녹시율을 향상한다.
- 기후 변화 등을 대비하여 저탄소, 제로 에너지 등을 적극 활용한 시설물 사용을 권장한다.
- 자연재료 사용 시 재료 본연의 색 사용을 권장한다.
-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기능시설물을 적극 활용한다.
- 변형, 부식,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시설물의 성능, 유지·관리, 보수가 용이한 디자인 및 설치 방식을 적용한다.



×

지양

- 도시경관을 해치고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는 과도한 인공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목재 등 자연재료에 유색페인트 도장 및 그래픽은 금지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으며, 형태나 색상이 변형되는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시설물 계획을 지양한다.



⑥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며 공간 연속성 고려



권장

- 다양한 사용자를 고려하여 공간 이용성을 높이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계획한다.
- 기존 도시 인공구조물(옹벽, 교량 등)은 주변과 조화로운 자연친화적으로 계획한다.
- 시민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도시 유희공간의 활용계획 및 디자인을 제시한다.



지양

- 주변환경을 해치는 과도한 색채의 사용은 지양한다.
- 공공성을 강조하기위해 지역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 휴지통 등 위생시설물은 보행가로상 전면 노출은 지양한다.
- 공공공간 이용시 눈부심과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색상조명은 지양한다.



⑦ 도시경관과 장소의 맥락을 반영하여 미관 향상

○

권장

- 시각적으로 개방감 있는 시설물 디자인 및 내구성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부산만의 장소(피란역사, 산복도로 등)적 맥락을 고려하며, 관광·문화특구 및 특화거리는 통일된 디자인 및 컬러를 적용한다.
- 주변 현황과 조화로운 마감재 및 색채를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 시설물은 무채색 사용을 권장하며, 강조색은 5~10% 이내 사용을 권장한다.
- 환경을 해치지 않는 색채 사용과 자연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조명을 계획한다.



×

지양

- 주변 시야를 차단하는 과도한 형태의 디자인은 지양한다.
- 위압감과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시설물의 배치와 디자인은 지양한다.
- 지역 및 장소별 통일되지 않은 시설물 디자인 및 시설물 혼용은 지양한다.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적용대상

- 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련된 사항에 초점을 둔다.
- 공공시설물 적용대상은 도로(부속), 교통, 보행안전, 편의, 녹지·수경, 공급, 범죄 및 안전시설물에서 파생된 소분류 항목 52개로 구성된다.

중분류	코드	소분류	심의대상	페이지번호
도로(부속)시설물	B1-1	교량	심의대상	p.101
	B1-2	고가차도	심의대상	p.105
	B1-3	보도육교	심의대상	p.108
	B1-4	입체교차로	심의대상	p.112
	B1-5	지하차도	심의대상	p.115
	B1-6	도시철도 출입구	심의대상	p.118
	B1-7	회전교차로	심의대상	p.121
	B1-8	교차로	-	p.124
교통관련 시설물	B2-1	버스쉼터	심의대상	p.128
	B2-2	자전거 보관대	심의대상	p.131
	B2-3	가로등	심의대상	p.135
	B2-4	펜스	심의대상	p.138
	B2-5	전신주	심의대상	p.141
	B2-6	통합지주	심의대상	p.143
	B2-7	중앙분리대	심의대상	p.146
	B2-8	옹벽	심의대상	p.149
	B2-9	방음벽	심의대상	p.152
	B2-10	전기차충전소	-	p.155
보행안전시설물	B3-1	볼라드	심의대상	p.159
	B3-2	방호울타리	심의대상	p.162
	B3-3	엘로 카펫	-	p.165
	B3-4	점자블록	심의대상	p.168
편의시설물	B4-1	벤치	심의대상	p.172
	B4-2	가로 판매대	심의대상	p.176
	B4-3	퍼걸러	심의대상	p.178
	B4-4	휴지통	심의대상	p.182
	B4-5	공중화장실	심의대상	p.185
	B4-6	관광안내소	심의대상	p.189
	B4-7	공원등	심의대상	p.192
	B4-8	음수대	심의대상	p.195
	B4-9	무인키오스크	심의대상	p.198
	B4-10	스마트그늘막	-	p.200
	B4-11	흡연부스	-	p.203

녹지·수경시설물	B5-1	가로수 보호덮개	심의대상	p.206
	B5-2	가로 화분대	심의대상	p.209
	B5-3	분수대	심의대상	p.212
공급시설물	B6-1	맨홀	심의대상	p.216
	B6-2	방재시설	심의대상	p.219
	B6-3	분전함/배전함	심의대상	p.221
범죄 및 안전시설물	B7-1	CCTV	심의대상	p.226
	B7-2	보안등	심의대상	p.229
	B7-3	비상벨	-	p.232
	B7-4	틈새공간 안전장치	-	p.234

관련 법규사항 및 가이드라인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도로 (부속) 시설물	교량	도로경관 설계안내서(2012, 국토교통부)	부산 야간경관계획(2021)
	고가차도		
	보도육교	입체교차로 설계 지침(2015, 국토교통부)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2015,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출입구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2015,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교차로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2020, 국토교통부)	
		경관도로 정비사업 업무편람(2011,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지침(2002, 국토교통부)	
교통관련 시설물	버스쉼터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2021, 환경부)	부산 스마트폴 구축·운영지침(2021)
	자전거 보관대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2022)
	가로등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안전시설편, 낙하방지시설편, 조명시설편(2021, 국토교통부)	
	펜스		
	전신주		
	통합지주		
	중앙분리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지침(2020, 환경부)	
	옹벽		
	방음벽		
	전기차충전소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볼라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횡단보도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
	방호울타리	규칙(2021, 국토교통부)	(2022)
	엘로 카펫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점자블록	(2021, 국토교통부)	(2023)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2021, 국토 교통부)	
		엘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 (2016, 행정안전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2022, 행정안전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및 유도 매뉴얼(2020, 보건복지부)	
편의 시설물	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부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가로 판매대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0)
	퍼걸러	(2022, 보건복지부)	횡단보도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
	자전거보관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안내	(2022)
	휴지통	및 유도 매뉴얼(2020, 보건복지부)	부산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중화장실	관광안내소 매뉴얼(2008, 문화체육	(2022)
	관광안내소	관광부)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공원등	문화유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음수대	(2010, 문화재청)	
	무인키오스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조명시설편(2021, 국토교통부)	
	스마트그늘막	빛공해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 관리 권고기준(2021, 환경부)	
	흡연부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지침 (202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2023,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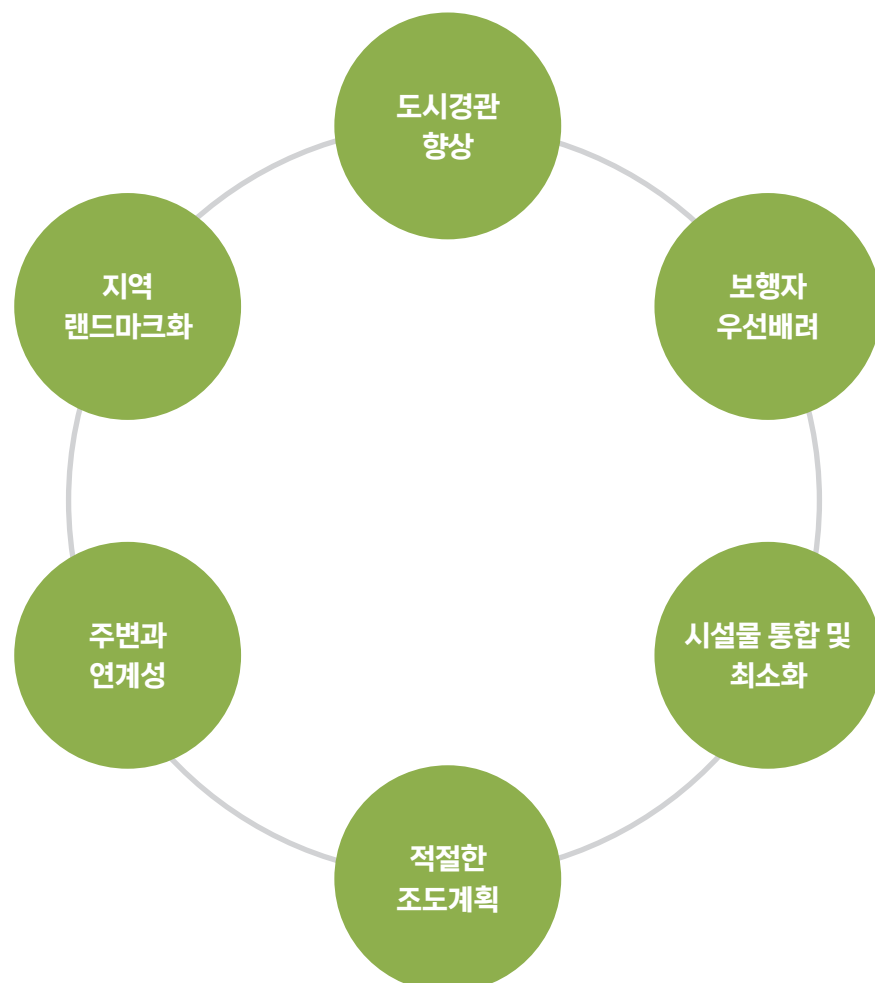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녹지·수경시설물	가로수보호덮개	도시숲·생활숲 가로수 조성·관리 기준(2023, 산림청)	부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2022)
	가로 화분대 분수대	가로수 조성·관리 매뉴얼(2022, 산림청,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2021, 환경부)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2019)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2023)
공급시설물	맨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 지침(2021, 국토교통부)	
	방재시설 분전함/배전함	하수도 설계 기준(2021, 환경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2021, 소방청)	
범죄 및 안전시설물	CCTV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산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2021)
	보안등 비상벨 틈새공간안전장치	조명시설편(2021, 국토교통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2021, 환경부)	

B1. 도로(부속)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부속)시설은 도로구조물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 기타 도로 관리상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의미하며, 도로(부속)시설은 도로와 일체되어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도시 경관에도 주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인 교량, 고가 차도, 보도 육교,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도시철도 출입구, 회전교차로, 교차로를 대상으로 하며, 부산시 보행 경관과 가로경관에 조화롭고 도로 질서를 확립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B1-1. 교량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 철도, 수로 등의 운송로 상에 장애가 되는 하천, 계곡, 강, 호수, 해안, 해협 등을 건너거나, 또 다른 도로, 철도, 가옥, 농경지, 시가지 등을 통과할 목적으로 건설되는 구조물 총칭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인접한 교량과 통일되지 않은 형태 및 색채디자인으로 인해 산만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
-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하부공간으로 어두운 보행 환경이다.
- 지역을 상징하는 과도한 조형 디자인 및 야간조명이 많다.
- 구조 및 외형 측면에만 집중되어 디자인 되어있어 오염 및 파손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 주변자연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색채 사용으로 지역 특성이 모호하다.
- 자연경관, 인접 교량 간 조화롭지 않은 과도하고 화려한 야간조명으로 현란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
- 지나치게 연출적이고 화려한 조명계획으로 심미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는 교량 조성으로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 광역 차원의 교량 야간 경관계획으로 수변도시다운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구조물은 외형적 특징을 강조하는 조형 중심의 디자인 지양하며, 장식적 요소 최소화 및 간결하고 안전한 형태를 적용한다.
-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친화적이며 밝은 분위기의 교량 하부 공간을 조성한다.



설치

야간 조명계획을 통해 특색있고 안전한 시설물로 조성

- 교량 조명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 조사각이 차량을 향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정돈된 야간경관을 위해 과도한 경관조명은 제한하며, 기타 조명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야간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교량 하부공간은 범죄 예방 및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조명을 계획한다.

안전성을 우선한 공간 계획

- 계단 및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할 경우 보행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교량 양변에는 수직 부재의 난간이 있는 펜스를 설치한다.
-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구간은 차광판이 부착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예방한다.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장식요소 설치 최소화

- 가로등, 펜스 등 교량 내 설치하는 도로부속시설물은 인접한 가로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의 디자인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설치한다.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사고 위험구간에는 콘크리트 구조의 방호벽을 설치한다.

형태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 주변과 조화롭고 간결한 형태 및 개방적인 구조로 디자인한다.
-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는 과도한 형태를 지양한다.
- 교각, 거더, 난간 등에는 광고물 및 장식 부착을 금지한다.

● 필수 ○권장



1. 교량 하부공간에 조성된 체육공원
2. 조사각이 차량을 향하는 조명
3. 차도와 보도 사이 방호울타리 설치
4. 과도한 형태 적용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장식요소 설치 최소화

- 조망이 우수한 구간은 개방적 구조로 계획하여 조망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교량 명판은 설치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부피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역사적 상징성 및 전통성 등으로 불가피할 시 심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형태는 지양한다.)



사용하기 편리한 보도 조성

- 보도의 시·종점부는 휠체어, 자전거, 유모차 등 교통약자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를 최소화한다.
- 교량과 연결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성한다.



다양한 각도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교량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를 따라 여러 개의 교량이 조성될 경우 디자인적 특징을 강조하기 보다 도시 차원에서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원경, 중경, 근경 등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자연친화적 도시이미지 형성을 위해 하부공간은 교량의 규모 및 하부 공간의 현황을 고려하여 식재 조성 및 공원으로 조성한다.



재료

안전한 환경을 위한 바닥마감 선택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량의 보행로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적용한다.
- 운전자의 시야 방해 최소화를 위해 재료 표면은 반사도가 높은 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할 경우 반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표면을 처리한다.



● 필수 ○ 권장

1.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형태로 건설된 다리
2. 인접한 보도와 연결되지 않은 교량 보행로
3.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한 공원 조성
4. 운전자 시야 방해를 야기하는 고광택 교량 표면

주변 환경과 연계성 있는 보행로 조성

- 보차 겸용교량은 연결되는 도로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포장재료 및 색채, 패턴을 통일한다.
- 연속성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의 시작점은 연접한 가로 공간의 바닥 마감을 고려하여 유사한 재료를 활용한다.
- 상부구조의 형식에 따라 결정하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형성

- 시각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턴 및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디자인을 지양한다.
-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위해 고채도의 유색 도장 및 과도한 문양의 거꾸집 패턴,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벽화를 지양한다.
- 교량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은 교량의 디자인을 강조하기 보다는 연결되는 도로공간의 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 및 색채 및 재질로 계획하여 도시 차원의 연속성을 형성한다.
- 관습적인 녹색 또는 파란색 계열의 방수제를 지양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한 부드럽고 자극이 적은 색채를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차량 속도저감 유도를 위해 교량과 도로가 연접하는 가각부 바닥은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색채를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주변 보도와 동일한 재질을 적용한 교량 보행로
2. 고채도 색상 및 과도한 패턴 적용
3. 관습적인 파란색 계열 방수제 사용

B1-2. 고가차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와 도로의 평면교차를 피하기 위해 지면보다 높게 지대를 가설하고 그 위에 교량 형식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고가차도 및 하부부분에 고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도시를 장악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인한 위압감으로 도시미관을 훼손한다.
- 고가차도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기준이 미비하여 혼재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 하부 공간의 미흡한 조명계획으로 인해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일부 고가차도 하부 공간을 편의공간으로 조성하였으나, 접근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조성하여 주민의 이용성이 저하된다.
- 하부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 하부에 빈 공간이 방치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된다.

기본방향

- 기능에 집중한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를 연출한다.
- 통일성 있는 시설물 설치로 연속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간결한 디자인을 계획한다.
- 인공적인 분위기 저감을 위한 자연적인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다.
- 주민 이용성을 고려하여 고가차도 하부공간 내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방치되거나 우범화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하부 공간은 자연광의 유입, 밝은 색채 사용 등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활력있는 하부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계획한다.



설치

정돈되며 활력있는 고가차도 및 하부공간 조성

- 고가차도 및 하부공간에 과도한 벽화, 슈퍼그래픽, 조형물 설치를 금지한다.
-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도로부속시설물 부착 시 높이, 위치,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 겨울철 낙엽이 졌을 때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하여 고가차도 벽면녹화를 적용하지 않는다.
- 고가차도 하부공간 내 원활한 통행을 위해 보행브릿지 및 데크를 조성한다.
- 활력있는 도로환경을 위해 고가차도 하부공간 내 휴게시설 및 산책로, 화단, 자전거보관대, 보행섬 등을 조성한다.

어두운 하부공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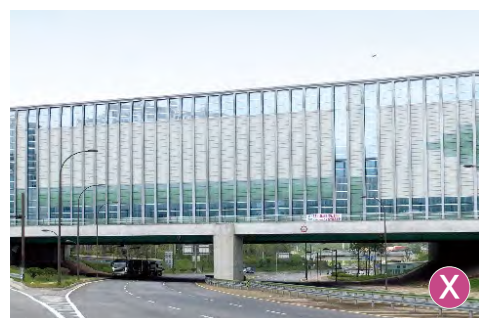
- 범죄예방을 위해 하부공간은 사각지대나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CCTV 및 조명을 설치한다.
- CCTV 설치 시 'CCTV 작동 중' 안내표지판을 함께 설치한다.
- 과도한 움직임이 있는 조명 사용은 금지하고 도시기반시설물 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형태

간결한 시설물 조성으로 부피감 최소화

- 구조적인 측면과 다양한 각도와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고가차도와 연결되는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인공성 저감을 위해 방음벽 등 고가차도 내 대형시설물의 부피 및 수량을 최소화한다.
- 방호벽 설계 시, 시설물의 구조 및 하중,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한다.

● 필수 ○권장



1. 과도한 조형물을 적용한 고가차도 하부공간
2.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하부공간 내 조도 확보
3. 고가차도 하부공간 관리 부족으로 우범지역 낙인
4. 위압적인 크기로 조성된 방음벽

재료

대형시설물의 인공성 저감

- 인공적인 이미지가 강한 도색이 아닌 노출 콘크리트 및 자연소재 그대로의 재료를 적용한다.
- 연속적인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고가차도 내 가로등, 방음벽 등 부속 시설물은 일관적인 소재 및 색상을 사용한다.
- 도로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기정화 필터를 배치하고 자연광 유입을 유도한다.
- 고가차도의 폐쇄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비하여 투명방음벽과 흡음판을 병행하여 부착한다.

색채

인공적 이미지 최소화

- 원색 계열, 고채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하부공간의 시설 입구에는 시인성이 좋은 색채를 사용하여 주민 출입을 유도한다.
- 도색이 필요한 경우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어둡지 않은 색채를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 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노출 콘크리트 그대로의 재료 사용
2. 투명방음벽과 흡음판을 병행하여 부착
3. 고채도 색상 다수 적용

B1-3. 보도육교

정의 및 구성체계 · 횡단 보도교의 하나로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을 위한 다리 모양의 구조물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고채도 색채로 구성되어 있다.
- 보도육교 하부공간의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안전한 차량 통행에 위협을 준다.
- 일부 보도육교가 계단으로만 구성되어 교통약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한다.
- 과도하게 가파른 계단으로 인해 이용이 불편하다.
- 보도 육교 측면에 원색의 불법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 품격을 저하하고 있다.
- 기둥과 보도가 결합되는 부분의 심미성이 고려되지 않아 쾌적한 가로환경을 훼손한다.
- 제각각의 크기와 컬러로 된 지자체 홍보물이 설치되어 혼재된 도로 경관을 형성한다.

기본방향

- 정돈된 디자인 적용으로 도시 품격을 향상한다.
- 보행자의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보도육교 진입부를 형성한다.
- 엘리베이터 및 보행약자도 이용가능한 경사로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육교 하부 공간을 관리한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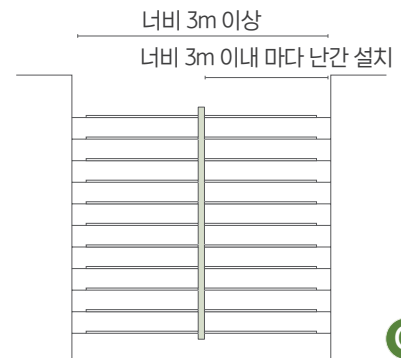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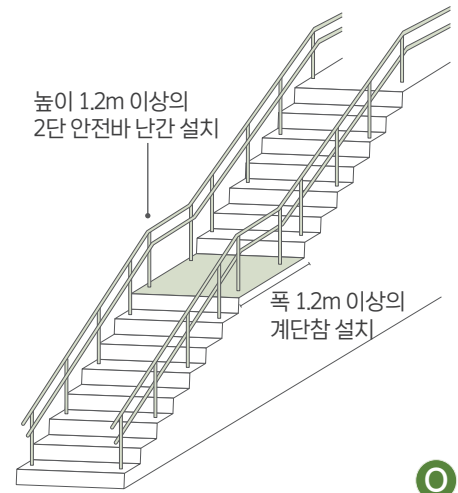
도시 품격 증진을 위해 정돈한 외관 형성

- 교각, 거더, 펜스 등에는 광고물 및 과도한 형태의 장식물(지방자치단체 광고판 등) 설치를 금지한다.
- 보도육교 내 보행등 설치 시 거더에 부착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바닥형 및 펜스형으로 설계한다.
- 도로에서 조망되는 시야각을 고려하여 보행등은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도계획을 하며, 연출조명은 금지한다.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

- 발걸림 사고 등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각의 지면 접합부를 미려하게 마감한다.
- 보행 안전성을 고려하여 높이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폭 1.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한다.
- 높이 1m를 초과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높이 1.2m 이상의 2단 안전바 난간을 설치하여 고령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우천 시를 대비하여 엘리베이터 출입구 상부에는 자연채광이 되는 소재의 무채색 컬러의 캐노피를 설치한다.
- 육교 아래에 보행자 머리 보호를 위한 장치 및 시설물을 설치한다.
- 어린이 및 보행약자의 발 빠짐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과 바닥면 사이 100~200mm 단차이를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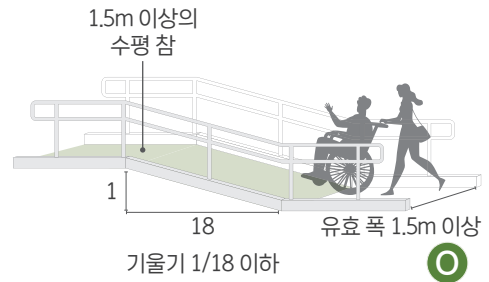


● 필수 ○ 권장

1. 거더에 부착한 조명
2. 설치 기준을 준용한 계단
3.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교통약자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물 조성

- 보도육교 리모델링 시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계획한다.
- 휠체어, 유모차 등을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전면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할 시 경사로를 필수적으로 구축하며 기울기는 1/18 이하, 유효 폭은 1.5m 이상 확보한다.
- 경사로 길이 30m 이내마다 1.5m 이상의 수평 참을 계획한다.
- 시각장애인을 배려하여 진입동선 및 구조물 외각에 점자블록을 조성한다.



형태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

- 조형성이 강조된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인접한 보행육교에는 통일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다.
- 관광지, 특화지역에는 주변 자원의 정체성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은 훼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다양한 이동수단이 활용 가능한 접근시설 구축

- 접근시설(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은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휠체어, 퍼스널모빌리티, 유모차,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기능으로 디자인한다.
- 자전거 및 보행 보조 시설물 이용을 고려하여 계단 측면부에 경사로를 통합한다.

● 필수 ○권장

1.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 계획
2.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3. 특화지역에는 자원 정체성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재료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한 마감재 사용

- 계단은 미끄럽지 않은 재료로 평탄하게 마감하고 계단코에는 미끄럼방지를 위한 논슬립을 설치한다.
- 계단 시작과 끝지점에는 색이 다른 논슬립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한다.
- 엘리베이터 입구 디딤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주변과의 조화성과 운전자의 빛 반사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육교 표면에 유광 재질 사용을 금지한다.
- 안전한 시설물 조성을 위해 엘리베이터는 간결한 형태의 무색 투명유리를 주 재료로 사용한다.
- 난간은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투시성이 높은 형태의 부재를 사용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를 위해 과도한 색채 지양

- 고채도의 도색,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이나 벽화 등을 금지한다.
 -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어둡지 않은 색상을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계단 시작과 끝지점에는 색이 다른 논슬립 설치
2. 무색 투명유리를 주 재료로 사용한 엘리베이터
3. 계단 내 과도한 슈퍼그래픽 적용으로 시각적 혼란 야기
4.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사용

B1-4. 입체교차로

정의 및 구성체계 동일한 평면도로에서 교차하는 것이 아닌 높이를 달리해서 교차하는 도로이다.

현황 및 문제점

- 거더 부분에 고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이질감이 느껴진다.
- 고가차도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 기준이 미비하여 혼재된 이미지 연출한다.
- 하부 공간에는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조성한다.
- 신호등, 방향안내표지판 등 거더부에 다양한 시설물이 부착되어 운전자의 정보 인식성이 저하된다.
- 콘크리트 원재료 색상으로 인해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가로등 등 설치되는 시설물에 관한 기준이 미흡하여 일관되지 않은 이미지가 연출된다.

기본방향

- 대형시설물의 부피감 최소화를 위해 간결한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인공적인 분위기 저감을 위한 자연적인 색채를 활용한다.
- 통일성 있는 시설물 설치로 연속적인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다양한 시설물 통합 디자인으로 운전자 정보 인지성을 강화한다.
-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료를 적극 활용한다.



설치

운전자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시설물 디자인 적용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나 주간선 도로가 다른 도로와 교차할 경우 입체교차로로 설치한다.
-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한 야간조명을 제외하고 유채색의 동적인 야간조명 연출을 금지한다.
- 가로등 등의 도로부속시설물은 인접 가로에 설치된 시설물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선정하여 설치한다.
-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부착 시 시설물 간의 높이, 위치, 간격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형태

통합적인 도시 이미지 형성

- 설치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통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개방적 시야 확보를 위해 구조물 위치나 부피, 수량 등을 최소화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방호벽의 단면 설계 시, 시설물의 구조 및 하중, 설치방법 등을 검토하여 디자인한다.
- 정돈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교각, 거더, 난간 등에는 광고물 및 장식 부착을 금지한다.
- 원경, 중경, 근경 등 다양한 거리에서 조망되는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구조물에는 안전 점검을 고려하여 벽면녹화를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운전자 시야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명만 설치
2.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간결한 디자인 적용
3. 구조물 안전 점검이 불가능한 벽면녹화

재료

일관적인 도로환경 구축

- 차로 구간에 설치되는 가로등 등의 도로부속시설물은 부드러운 이미지의 무광 소재를 통일되게 사용한다.
- 대형 시설물의 인공적 이미지 저감을 위해 노출 콘크리트 및 자연 소재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한다.
- 사용하는 재료는 미관, 안전,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배후경관과 조화 유도

- 거더에 색채를 적용할 때는 주변경관의 색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원색 또는 고채도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채도 3 이하, 명도 6 이상의 어둡지 않은 색상을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노출 콘크리트 자체의 색상 사용
2. 고채도 색상을 다수 사용한 기둥

B1-5. 지하차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광장, 기타 공공시설용지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 공공보도의 지하도 상가 및 그에 따른 지하도 출입시설 등의 지하공간 도로시설물이다.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지하차도 진입부 벽면 관리가 미흡하여 도시 이미지를 저하한다.
- 고명도 및 고채도 색상을 사용하여 진입부 벽면으로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한다.
- 타일, 그래픽 등 과도한 형태의 지하차도 벽면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
- 다양한 안내표지판이 혼재되어 운전자의 정보 인지성이 약화된다.
- 내부 안전시설물이 부족하여 화재, 교통사고, 침수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

기본방향

- 지하차도 입면에 정돈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한다.
- 주변과 조화성 강화를 위해 간결한 입면을 적용한다.
- 운전자의 시각정보 시설물의 인지성 강화를 위해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지하차도 내부 안전시설물 구축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설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하차도 조성

-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통행량이 많은 도심, 부도심, 철도역, 여객 자동차 정류장 주변에 조성한다.
- 상하수도 시설·공동구 기타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지하차도 설치를 금지한다.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지하차도 조성

- 방호울타리, 조명 등은 구조 및 하중, 설치방법을 검토하여 지하차도 양변의 방호벽 위에 설치한다.
- 지상부와 지하차도 경계부에는 개방적인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조명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방향과 각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 제어 시스템 등 차량 통행 및 차단하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한다.
- 비상 상황 시 대피가능한 비상 대피로를 조성한다.
- 보행이 가능한 지하차도의 경우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 CCTV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밝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하차도와 지상차도를 동시에 비출 수 있는 양등형 가로등을 설치한다.
-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적용을 위해 지하차도 내부 조명기구는 LED로 교체하거나 확대 설치한다.

형태

간결하고 이용자가 편리한 디자인 적용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하여 진·출입부 형태는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출입구 박스 입면에 장식적 구조물, 조형물 부착을 지양한다.
- 지하차도 내 보도는 보행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가 없는 구조로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지상부와 지하차도 경계부에 방호울타리 설치
2.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구축
3. 진출입부에 간결한 디자인 적용

재료

지하차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재료 적용

- 지하차도 콘크리트 사용 부분 표면은 도색을 적용하지 않고 재료 자체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한다.
- 콘크리트 재료 자체의 이미지 사용이 불가능할 시 자연소재, 반광택 및 무광택 소재를 적용한다.
-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정돈된 도로경관 연출

- 지하차도 입면은 두 가지 이상의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하차도 내부 마감시 명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하여 밝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주변과 어우러지는 시설물 조성을 위해 원색 등 과도한 색채 적용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콘크리트 재료 자체의 이미지 사용
2. 두 가지 이상의 고채도 색상 적용

B1-6. 도시철도 출입구

정의 및 구성체계 · 지상에서 도시철도 역사로 연결되는 출입구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 캐노피 및 안내 사인의 디자인이 통일성이 없다.
- 대다수의 도시철도 출입구에 우천 시 비를 막아주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불투명한 도시철도 출입구 캐노피로 인해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 좁은 보도에 크기가 큰 도시철도 출입구를 설치하여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 통행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도시철도 역 출입구 캐노피에 장식적 요소 부착으로 주변 여건과 부조화를 이룬다.
- 출입구 경사도가 보행객이 이용하기 힘든 각도로 조성되어 있다.
- 보행동선 내 도시철도 안내 사인물이 설치되어 있어 원활한 보행에 방해요소로 작용된다.

기본방향

-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캐노피를 설치한다.
- 캐노피 설치 시 통합적이고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가 조성되는 위치를 고려하여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규모의 도시철도 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변과 조화로운 재질을 적용한 부속 시설물을 배치한다.
- 원활한 도시철도 진출입을 위해 보행동선 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설치

이용객 편의성을 강화하는 시설물 설치

-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위해 도시철도 내외부 출입구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대 등 타 편의시설물과 통합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증진한다.
- 자전거보관대, 휴게시설은 출입구 후면부에 배치하여 개방적 공간을 연출한다.



형태

보도 점유를 최소화하는 형태 적용

- 지하철 이용객 및 보행객 이동량, 위치를 고려하여 출입구의 규모 및 형태를 결정한다.
- 출입구가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소 2m 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하되, 부지가 협소할 시 휠체어 사용자가通行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 확보하여 설치한다.
- 출입구에 지역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 적용을 금지한다.



구조적으로 안정성 있는 캐노피 구축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캐노피가 보도 쪽으로 돌출되는 형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캐노피는 우수와 적설에 대비하여 슬로프 형태로 디자인한다.
- 파손 및 훼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캐노피 디자인을 적용한다.
- 캐노피 설치 시 풍하중을 검토하여 디자인을 설계한다.
- 우천 시 캐노피 상부에 설치된 우수흡통으로 집수되며, 후면부 구조기둥 내부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배수되는 구조로 디자인한다.
- 진입부에 환기구를 설치하여 오물, 유해가스,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 캐노피에 조명 설치 시 눈부심이 적은 조명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자전거보관대가 통합 설치된 출입구
2. 역사 이미지를 간결하게 표현한 출입구
3. 슬로프 형태의 캐노피 디자인 적용

재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 사용

- 시각적 혼란 완화를 위해 반사성 재료 및 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을 계획한다.)
-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주재료는 스틸 등 차량 충돌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위해 고채도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해 캐노피 설치 시 벽면은 무색투명한 재료를 사용한다.
- 안내시설물, 표지판 설치 시 출입구와 동일한 색상을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캐노피에 반광택의 재료 적용
2. 외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캐노피 벽면

B1-7. 회전교차로

정의 및 구성체계

- 평면교차로의 일종이며, 교차로 중앙에 원통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을 의미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설치가 불필요한 곳에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 차량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안내사인물이 설치되어 있다.
- 원형 교통섬에 운전자 시야를 차폐하는 수목 식재가 조성되어 있다.

기본방향

- 원활한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 내 설치한다.
- 차량 운전자의 개방적인 시야 확보를 위해 과도한 식재 및 상징 조형물 설치의 지양한다.
- 운전자의 정보 인지성 강화를 위해 통일되고 시인성이 우수한 안내 시설물을 설치한다.



설치

원활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위치 내 설치

- 인접한 신호 교차로와 도로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 원칙적으로 접근로가 3개 이상인 교차로에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는 규모 및 차로 수에 상관없이 회전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그 외 회전교차로 설계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준용한다.

회전교차로 방향 인식이 원활하도록 주변 시설물 계획

- 회전교차로와 인접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한다.
-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방향 표지판을 설치한다.
- 동선이 복잡한 회전교차로의 경우 컬러주행유도선을 적용한다.

형태

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로 설계

- 차량 감속을 유도하는 진입 구조로 설계한다.
- 우천 시 중앙 교통섬에서 도로 방향으로 물이 흐르므로 중앙 교통섬 인근에 지하배수시설을 설치한다.
- 초소형 중앙 교통섬 내 조형물 및 수목 배치를 지양한다.
- 초소형 회전교차로에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도록 중앙 교통섬 외곽에 경사형 연석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양보선으로부터 6m 이상 이격하여 횡단보도 배치
2. 명확한 방향 표지판 설치
3. 대형 자동차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경사형 연석 설치

색채**교차로 시인성 강화 외에 고채도 색상 적용 지양**

- 차량 침범 방지를 위해 외곽을 돌출형 포장, 유색 포장으로 시공하여 회전교차로와 시각적으로 구분한다.
- 회전교차로 내부 시설물 및 포장에 반사도가 높은 유광택 및 고광택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과도한 색채를 사용하는 조명 계획을 지양하고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기능 위주의 조명을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회전교차로 인지성 강화를 위한 고채도 색상 적용

B1-8. 교차로

정의 및 구성체계 ·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함)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의 표준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점자블록, 볼라드 등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위험하다.
- 보도 낮춤턱이 과도한 각도로 구성되어 있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
- 교차로 주변 교통섬의 과도하게 높은 식재로 인해 운전자 시야가 차폐된다.

기본방향

- 교통약자 및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안전시설물 표준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 점자블록 등 주요 시설물 통합 계획으로 연속성있는 도로 환경을 형성한다.
- 차량 운전자 시야를 고려한 교통섬 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신호기 등 점용면적이 넓은 교통시설물을 교통섬에 설치하여 정돈된 가로환경을 구축한다.



설치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 도로 양측으로부터 25m 거리의 구간은 시야를 막는 장애물 설치를 금지한다.
- 원활한 통행을 위해 교차로 내 횡단보도의 경계부 경사면 기울기는 1/18 이하로 조성한다. (불가능할 경우 1/12 로 조성한다.)
- 횡단보도와 연결되는 지점의 연석 높이는 120~200mm 정도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변 가로보다 높게 설정한 조명을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보행신호 대기공간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설치 시 본 가이드라인의 보행안전시설물-점자블록을 준용한다.)
- 횡단보도 연결부에는 안전을 위한 볼라드를 설치한다.

쾌적한 도로환경 구축

- 교차로 내 신호등, 가로등, 교통안내표지 등 다양한 시설물은 통합하여 설치한다.
- 회전차로, 변속차로, 교통섬 등 도류화시설(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배전함, 교통 신호제어기와 같이 공간점유면적이 넓은 시설은 인접 공공공지에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주변 가로보다 횡단보도 밝기 높게 설정
2. 보행신호 대기공간 내 점자블록 설치
3. 다양한 도로부속시설물이 결합된 통합폴 구축

형태

충돌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구조 적용

- 사고 예방을 위해 평면 교차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네 갈래 이하로 설계한다.
- 교차로 선을 직선으로, 교차각은 직각에 가깝게 설계한다.
- 교차로 내의 시야 확보를 위해 가시삼각형(Sight Triangle)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운전자의 개방적 시야 확보를 위해 교차로 곡선부에는 교목 식재를 지양한다.
- 도로의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주변 교통섬에는 운전자의 시야각을 고려하여 낮은 관목이나 잔디를 배치한다.
- 교차로 내의 자전거도로는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게 설치한다.

색채

정돈된 친환경적 통행 환경 제공

- 도각 구역의 경계 인지를 위해 교차로에 위치한 보도, 횡단보도, 도로, 자전거도로의 컬러를 차별화한다.
- 교차로 내 시설물은 재질 및 색상을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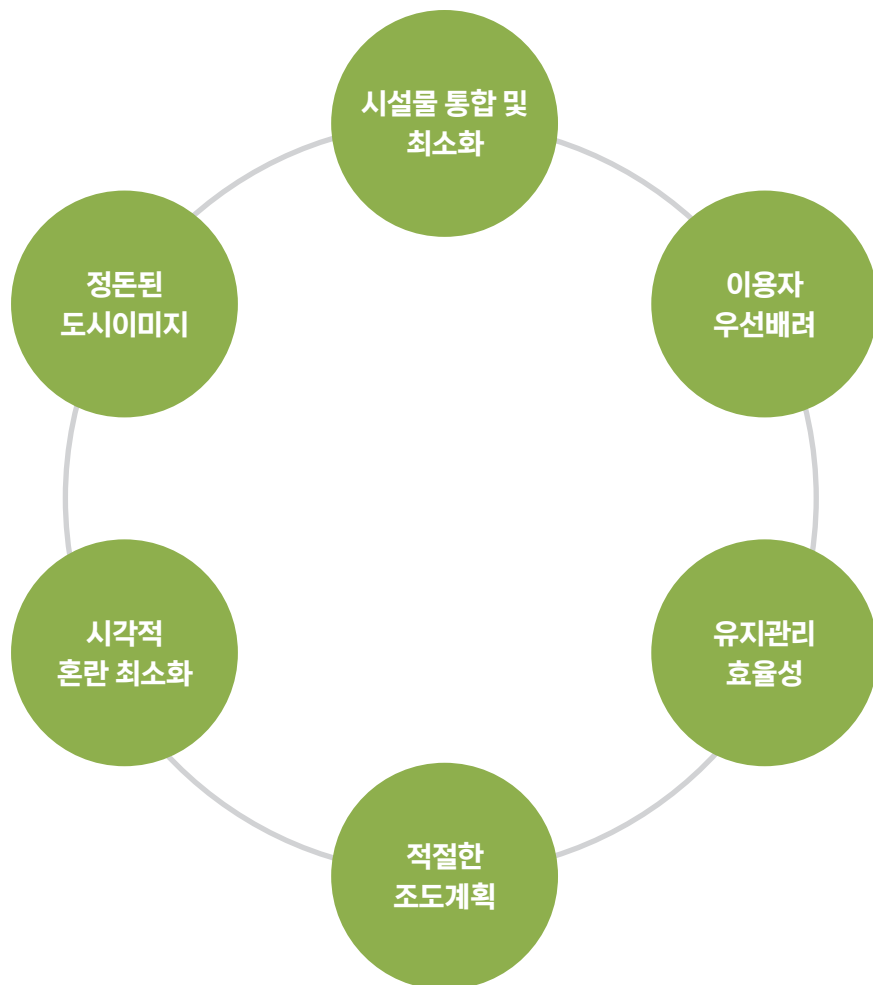
1. 교통섬에 낮은 관목 설치
2. 교차로와 가장 인접하게 설치된 자전거도로

B2. 교통관련 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차량 이용자의 사고 예방 및 도로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관련 시설물은 버스쉘터, 자전거 보관대, 가로등, 펜스, 전신주, 통합지주, 중앙분리대, 옹벽, 방음벽, 전기차충전소를 대상으로 한다.
- 교통관련 시설물이 공공공간 내 설치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디자인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돈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

가이드라인 중점방향



B2-1. 버스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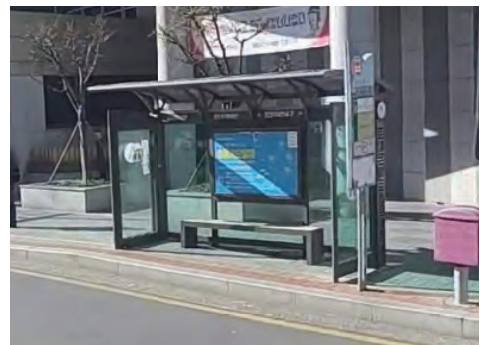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대중교통인 버스 승·하차와 버스 대기 이용객이 활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좁은 보도폭을 고려하지 않은 시설물 디자인으로 보행공간을 침범하고 있다.
- 승차에 방해가 되는 협소한 장소 및 구조로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하다.
- 형태, 재료, 색상이 다른 시설물이 다수 설치되었다.
- 시설물 내외부 광고물 등 부착물이 과도하게 많이 설치되어 시각적 혼란 및 정보 전달의 혼선을 야기시킨다.
- 형태, 재료, 색상이 일관성이 없고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 버스 진입동선 및 교통약자를 고려한 설치 형태 및 위치선정으로 편의성을 확보한다.
- 승하차 및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부피를 최소화한다.
- 투명 또는 반투명 재료를 사용한 차폐되지 않는 디자인으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 조명계획으로 야간 및 우천 시 인지성을 향상시킨다.
- 표준화된 버스쉼터 디자인 적용으로 부산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 부착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시각적 혼란을 방지한다.



설치

보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배치

- 이용자가 멀리서도 쉽게 인지하도록 개방적 공간에 설치한다.
- 보도 폭이 1.5m 이하인 경우 버스표지판, 노선안내판만 설치한다.
- 보도 폭이 2m 이내의 지역은 역방향으로 버스쉼터를 설치한다.
- 설치 구역 내에 교통시설물 이외의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 버스정보시스템(BIS)은 버스표지판, 노선안내판만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정류장에 설치한다.
- 폭은 2.5m 이상으로 하고 보도 폭이 축소되지 않도록 보도의 외측으로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선형 점자블록과 이격하여 설치한다.

야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야간의 치안, 파손행위 등 범죄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CCTV와 비상벨을 배치한다.
- 비상벨은 교통약자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바닥면에서 1m의 높이에 설치한다.

계절과 관련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쉼터 구축

- 벤치는 계절을 고려하여 열전도율이 낮은 제품 혹은 냉·온열 벤치를 설치한다.
- 한파 대피소,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청정 정류장 등 계절을 고려한 시설물을 함께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좁은 보도 내 버스표지판, 노선안내판만 설치
2. 모든 정류장 내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3. 보도 외측으로 버스쉼터 설치

형태

승하차의 기능과 보행자의 편의를 함께 고려

- 외형적인 특징만을 강조하는 조형성 중심의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형태를 계획한다.
- 보도 폭이 3m 미만으로 좁은 경우 전면에 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된 T자형으로 디자인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모서리는 곡선으로 처리한다.
- 노출된 기둥 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과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한다.
- 비, 눈 등의 기상현상을 고려하여 5도 이상의 경사가 있는 차량 시설을 함께 디자인한다.
- 장시간 대기 승객을 위해 버스쉼터 내부에 벽면 부착형 또는 독립형 벤치를 설치한다.



재료

유지관리 효율성 증진

- 시설물 골격은 견고성을 위해 내구성이 높은 스테인레스 스틸 구조체를 사용한다.
- 벽체는 개방성이 있는 투명 강화유리를 주재료로 적용한다.
 - 빛 반사가 적은 무광택 소재를 적용하여 시각적 혼란을 방지한다.
 - 상부 유리 캐노피 계획 시 햇빛 방향을 고려하여 루버 또는 유리 표면 처리 등으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

-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 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권장

1. 좁은 보도에 T자형 버스쉼터 디자인 적용
2. 5도 이상의 경사가 있는 지붕 설치
3. 벽체에 투명 강화유리 적용

B2-2. 자전거 보관대

정의 및 구성체계 · 자전거를 일정 시간 동안 특정장소에 거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캐노피의 과도한 디자인으로 공간 낭비가 심하며 보행 방해하는 구간이 다수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고유색상 및 홍보성 문자 사용으로 정돈되지 않은 경관을 형성한다.
- 보행로에 설치되어 보행자에게 장애물로 작용한다.
-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좁은 간격의 보관대가 있다.
- 내구성만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인공적 도시 이미지를 연출한다.
-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과도한 형태 디자인으로 주변환경과 이질감을 형성한다.
- 장식적인 형태와 문자로 시각적 공해를 일으킨다.



기본방향

- 주변 여건에 맞는 시설물 규격으로 보행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와 재료 사용으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연출한다.
-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형태의 디자인 시설물을 적용한다.
-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미관을 해치지 않는 간결한 디자인을 한다.
-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방적 공간에 배치한다.
- 타 시설물과 통합 디자인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설치

안전한 보행가로를 훼손하지 않는 공간 내 배치

- 보행자 통행 및 자전거 보관대 이용자 진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범죄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해 수목 및 시설물이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차폐하지 않고 자연적 감시가 쉬운 위치에 배치한다.
- 시설물 점유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 보도 폭이 1.5m 이하일 경우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금지한다.
- 보도 상부에 설치 시 차도측에 밀착하여 방호울타리나 볼라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 상에 연속적으로 설치할 때는 공공시설물로서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범죄 예방 및 야간 이용 증진을 위해 충분한 조명을 배치한다.

시설물 부피감 최소화로 쾌적한 가로공간 조성

- 정돈된 이미지의 가로공간을 위해 자전거 거치대만 설치하여 부피감을 최소화한다.
- 도로에 인접한 골목 또는 육교, 교량 등 구조물 하부 공개공지나 공원, 완충녹지 등에 설치한다.
- 다수 개체를 반복 설치 시 보행권 보장을 위해 사선 배치한다.

형태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형태

- 핸들의 폭, 사용자 진출입 등을 고려하여 보관대 간 간격을 65m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원활한 시설물 확장을 위해 모듈형 자전거 보관대를 사용한다.
- 모듈형 자전거 보관대의 체결되는 부분은 요철이 보이지 않도록 설계한다.
- 이용자의 인지성 강화를 위해 거치대 상부에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 필수 ○권장



1.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내 설치
2. 차도측으로 밀착 설치
3. 자전거 거치대만 설치
4. 거치대 상부에 픽토그램 적용

주변과의 조화성 확보를 위한 간결한 형태 적용

- 구조체를 최소화하여 다양한 재료 사용을 줄이며 개방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 지역을 상징하는 전통 문양, 동·식물 등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디자인을 지양한다.
- 관할 지역의 홍보 문구나 심벌마크 등 표기 금지한다.
- 자전거 거치대는 원형 및 사각형 링을 기본으로 설계한다.
- 정돈된 분위기 형성을 위해 볼라드, 펜스 등 다른 구조물 및 공간 요소와 통합된 디자인을 개발한다.

우천 시를 고려한 캐노피 디자인

- 캐노피 설치 시, 안장에 앉은 높이에서 천장면이 닿지 않도록 2.2m 이상으로 설계한다.
- 캐노피 설치 지양하나,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천 시를 고려하여 5도 이내의 경사각을 적용하고, 시공이 용이한 구조를 계획한다.

재료

유지관리가 쉬운 재료 적용

- 자전거 접촉 시 손상 완화를 위해 내구성 있는 재료와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 캐노피는 스틸을 적용한 구조체와 투명 소재를 사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무채색 계열의 무광도료로 도장한다.

● 필수 ○ 권장



1. 구조체 최소화로 개방적인 공간 확보
2. 사각형 링 형태를 적용한 자전거 거치대
3. 스틸 및 투명소재를 사용한 캐노피

색채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

- 단일 색채 또는 두 가지 색채 이내로 도색 마감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위해 고채도·고명도 색 사용을 지양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단일 색채로 도색 마감

B2-3. 가로등

정의 및 구성체계 · 보행도로 및 차량도로 내에서 통행과 교통에 대한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며, 야간 보안을 위한 용도로 가로공간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사인, 스피커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의 시설물이나 불법부착물이 복합적으로 부착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
- 지면과 결합 부위에서 구조적 안전성과 심미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마감처리가 미려하지 않다.
- 과도한 형태 및 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부착되어 있다.

기본방향

- 무광재질 사용으로 주야간 눈부심을 방지한다.
- 동일 도로내에 가로등 교체시 기존 가로등을 고려하여 교체하며, 양측부 동시 진행한다.
- 정돈된 가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장식적 기능의 형태는 금지한다.
- 안전한 보행을 위해 지면 결합부위는 돌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과도한 색채 및 그래픽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한다.



설치

정돈된 가로 연출을 위해 간결하게 시설물 요소 배치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을 준수하여 설치 높이, 각도, 간격을 조정한다.
- 가로등 기둥 하나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에는 현수기 설치를 금지한다.
- 지면과의 체결 부분 결합 마감을 간결하게 하고 앵커볼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 개별 시설물의 이미지보다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가로등 지주대와 조명대는 원통형을 기본으로 간결하며 직선적 이미지로 디자인한다.
- 소형적인 디자인은 지양하며 기능 중심의 형태를 권장한다.
- 배너걸이, 국기꽂이는 지양하며 설치 시 지주와 일체화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장소에는 직접조명 방식을 지양하고, 간접조명 방식으로 디자인한다.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

- 가로등과 도로표지, 교통신호기 등의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모듈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신호등 등의 주변 시설물과 통합되도록 한다.

● 필수 ○권장



1. 현수기로 인해 교통안내표지 인지도성 저하
2. 직선적 이미지의 가로등
3. 돌출형 국기꽂이 설치

재료

가로경관 정돈을 위한 재료 사용

- 지주대 표면에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도료를 사용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광택 재료 사용 시 무광으로 도장한다.
- 지주대 고정장치가 외부로 노출될 경우 가로등 형태와 조화되는 마감재를 사용한다.
-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의 선택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색채

주변과의 조화 확보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도의 색상 사용을 지양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돌출되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 색상을 적용한다.
- 연속적으로 정돈된 가로이미지 형성을 위해 장식적인 기능의 슈퍼그래픽 적용을 지양한다.
- 차도와 보행로에 적용되는 조도의 기준을 고려하여 조명설계를 계획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 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고광택 재료 사용
2.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고채도 색상 적용
3. 저채도 및 저명도 색상 적용

B2-4. 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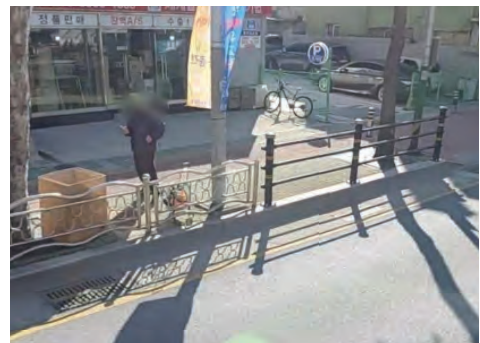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차량이 길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고채도 색채 사용 및 복잡한 패턴의 장식 남용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못하다.
- 고광택 재료 사용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 동일공간 일관성이 결여된 다른 형태, 재질, 높이의 시설물 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친다.
- 필요하지 않은 공간 내 펜스를 설치하여 혼재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기본방향

- 복잡한 패턴 및 장식 사용을 금지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 녹방지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시 무광택으로 처리한다.
- 동일한 공간에 추가 공사 시 동일한 디자인의 시설물 또는 최대한 유사한 형태, 재질, 높이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기능을 우선시 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을 한다.



설치**안전 확보를 위한 기능 확보**

- 보호펜스는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다. (단, 도로폭이 충분한 경우 생울타리 등으로 대체한다.)
-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시가지 이면도로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 보도 유효 폭이 좁은 경우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 다른 시설물과 통합한다.

**형태****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 디자인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차량 이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기능 중심의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모서리 및 마감 부분을 라운드 형태로 처리한다.
- 어린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는 세로 부재로 디자인하며 부재 간 간격은 15cm 이하로 한다.
- 보행자에게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1.1m~1.2m 높이로 디자인한다.
- 지방자치단체 상징 이미지를 펜스 형태에 적용하지 않는다.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

-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형태와 다양한 길이로 연장 설치가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하여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한다.
- 보수, 교체, 유지관리, 연장 설치 시 편의를 위해 모듈화 구조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펜스 기능을 하는 생울타리 설치
2.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 적용
3. 지방자치단체 상징 이미지 적용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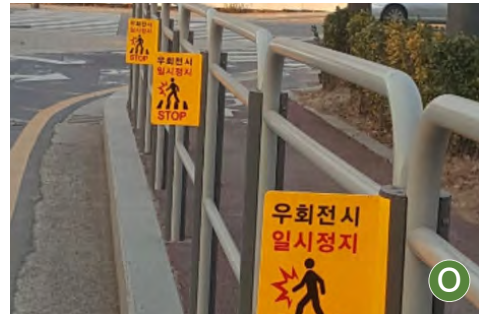
가로경관 정돈을 위한 재료 사용

- 주변의 시설물을 고려하여 가로공간의 조화와 연속성이 형성될 수 있는 색채를 계획한다.
- 차량운전자의 눈부심을 고려하여 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광택 재료 사용 시 무광으로 도장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부의 울타리에는 차량충돌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강한 스테인레스 스틸 재료를 사용한다.
- 주야간 명시성 확보를 위해 반사판이나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색채

안전 관련 정보에 대한 인지성 강화

- 다양한 색채 사용을 지양하고 기능에 맞는 색채를 사용한다.
- 문자나 로고, 업체 정보 등의 표기는 금지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적용
2. 주야간 명시성 확보를 위한 반사시트 부착

B2-5. 전신주

정의 및 구성체계 · 전선이나 통신선을 연결하기 위해 세운 기둥으로 차도 및 보도 주변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불법 광고물이 다수 부착되어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를 형성한다.
- 콘크리트 재질이 노출되어 삭막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 정돈되지 않은 전선 및 통신선으로 혼재된 가로경관을 조성한다.

기본방향

- 쾌적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전선 및 통신선을 최소화한다.
-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색채를 적용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가 가능한 재료를 선택한다.
- 가능한 지중매설을 권장하며, 지상설치를 지양한다.



설치

도시 쾌적성 증진

- 도로 위에 설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해 전신주를 지중화하며 지주에 연결되는 전선의 수를 최소화한다.
- 시각적 혼란 방지를 위해 보행자, 차량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 경사지 설치를 금지하며 불가피할 시 경사도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개별 전선은 정리를 통해 직접적인 노출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앵커볼트 등의 기초구조가 지면에 노출되거나 부피감이 있는 하부 커버는 설치를 지양한다.
- 주변 경관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전신주 커버는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재료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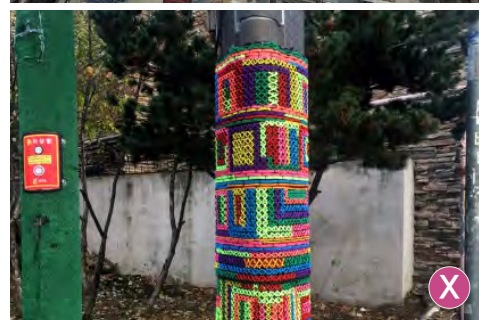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를 기둥의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오염을 최소화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사용 시 표면을 부드럽게 마감한다.
- 파손 방지를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이질감을 최소화한 색채 사용

- 주변 색채를 고려하여 시각공해가 적은 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 기능성 색채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명시성이 높은 색채는 사용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직접적인 전선 노출이 최소화된 전신주
2. 주변 시설물과 어울리는 무채색 전신주
3. 과도하게 많은 전선이 연결된 지주
4. 고채도 색상 및 패턴을 사용한 전신주 커버

B2-6. 통합지주

정의 및 구성체계

- 신호등, 가로등, CCTV,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물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주형태로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다양한 안내표지가 신호등 상단에 부착되어 신호등 인식성을 저하시킨다.
- 불법 광고물이 다수 부착되어 정돈되지 않은 산만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콘크리트 재질이 노출되어 삭막한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기본방향

- 활력있는 도시 이미지를 위해 콘크리트 재질 사용을 지양한다.
- 신호등, 안내표지 등 정보 기능의 인식성을 강화한다.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면과 결합부 노출을 최소화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연출한다.
- 통합적인 디자인으로 가로경관을 개선한다.



설치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기준 적용

- 통합 지주에 부착되는 시설물은 가로등,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보행신호등, 보안등 6종을 기본으로 설치한다.
- 시설물 설치 시 경찰청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을 반영하여 설치한다.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시 도로명기준법에 따른 도로명판을 통합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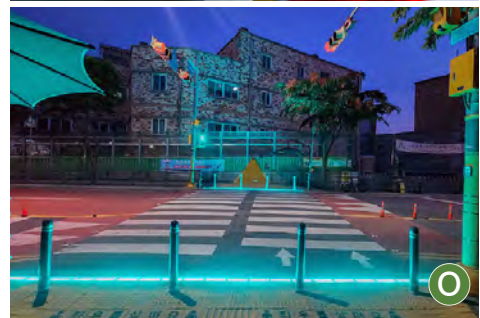
주변 보행환경에 맞춤화

- 도로 형태에 따라 디자인 타입 및 부착 시설물 갯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 차량신호기는 도로 노면으로 부터 수직으로 4.5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한다.
- 보행약자를 위한 음향 신호기 및 횡단시간 표시기를 설치한다.
- 보행자 신호기는 보도 노면으로부터 신호등 하단까지 2~3m로 보행자 진행방향의 우측에 설치한다.
- 보행자 신호등은 바닥형을 함께 설치하여 시각약자에게 상단 뿐만 아니라 바닥에서도 인지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유지관리 용이성 증대

- 부착물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단점 보완을 위해 간판결합 부착대로 설계한다.
- 배면에 개폐가 가능한 점검구를 확보하여 유지관리 편의성을 확보한다.
- 신호등 조명은 부피가 최대한 작고 고효율인 LED로 적용한다.

● 필수 ○권장



1. 여섯 종이 모두 설치된 통합지주
2. 음향 신호기 설치
3. 바닥형 보행신호등 통합 배치

형태

기능에 불필요한 형태 최소화

- 「부산광역시 스마트폴 구축·운영지침」상의 표준모델을 사용한다.
- 불필요한 형태적 디테일은 최소화하며 설치물의 풍하중 검토 후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지면의 앵커 볼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체결되는 부분의 결합 디테일은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빗물에 의한 누수 방지를 위해 밀폐형 개폐구조를 적용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를 지주의 높이 최소 2m까지 적용한다.
- 신호등 함체는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처리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 유도

-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색 또는 고채색의 색상은 지양하고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지면과의 결합 부분을 간결하게 디자인
2. 무채색 계열을 적용한 통합지주

B2-7. 중앙분리대

정의 및 구성체계 · 차량의 주행차로를 분리하고 안전성 증진을 위해 도로의 중앙을 분리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무단횡단 방지의 목적 위주 시설물 설치로 강도부족으로 인해 차량 충돌 등의 문제 해결 기능이 부족하다.
-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표시가 부족하다.
- 중앙분리대 시작과 끝을 인지 할 수 있는 교통안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 차도분리 및 무단횡단 방지 기능이 부족한 디자인이 다수이다.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 충돌 시 차량 이탈을 방지하는 기능을 우선으로 확보한다.
- 야간 시인성 향상을 위해 장애물 표적표지 및 펜스반사 띠를 적용한다.
- 중앙분리대 시·종점을 인지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무단횡단 문제가 심각한 구간에는 간이중앙분리대 설치하여 무단 횡단방지 및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
- 재료 표면은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고채도 색채나 지방자치 단체의 과도한 패턴 사용을 금지한다.



설치

안전을 위한 기능 중심

- 경사면에 설치할 시 기둥은 반드시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 중앙분리대와 차량의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시선 유도봉과 충격 흡수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안전과 주변 경관 고려

- 차량 통행이 잦거나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잦은 곳에 설치한다.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는 중앙분리대 대신 녹지대 및 화단을 조성한다.
- 시야를 차폐하거나 운전자 시야보다 높은 분리대 설치 및 식재는 지양한다.
-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간의 틈새가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한다.
- 통행량이 많거나 주변이 어두워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에는 조명등을 함께 설치한다.

형태

기능을 최우선으로 적용

- 시설물 자체의 규격을 최소화하고 경량화된 구조로 디자인하며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폭을 조정한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차량방호 안전시설」을 준수하여 디자인한다.
- 시설 훼손 시 부분적 유지·보수가 용이한 모듈 구조를 적용한다.
-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과도하게 조형적인 장식을 부착을 지양한다.
- 지자체 상징물, 특산물, 캐릭터 등을 형상화한 디자인은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충격흡수시설 설치
2. 왕복 6차선 이상의 도로 내 녹지형 중앙분리대 구축
3. 과도하게 조형적인 디자인 적용

재료

주야간 인지성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고광택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할 시 무광으로 도장한다.
- 표면 전체 색상이 균일하게 인지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주야간 인지성 및 운전자 시야 확보

- 운전자 인지성 강화를 위해 반사판이나 포인트 색상을 사용하여 주목성을 높인다.
- 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예방을 고려하여 일정 간격마다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주변 도로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중·저채도, 중·저명도 색채를 배경으로 사용한다.
- 다양한 색채의 사용을 지양하고, 경고 및 인지의 기능을 고려한 색채를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고광택 재료 적용
2. 포인트 색상 및 반사시트를 활용하여 운전자 주목성 강화
3. 어린이보호구역 인지성을 강화하는 색채 사용

B2-8. 옹벽

정의 및 구성체계 · 토사 등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인공적인 구조물의 기능만을 고려한 재료, 형태 및 색채로 삭막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노후 옹벽의 방치로 인해 도시경관을 저해한다.
- 옹벽 전체에 원색 컬러의 도장으로 인해 시간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심각하다.
- 야간 조명 미설치로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

기본방향

- 인공적 구조물의 부피감을 최소화하는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노후된 옹벽 개선 시 색채개선 및 자연 소재 사용, 식재 계획 등을 적용하며, 과도한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 야간보행 안전을 위해 조명 및 CCTV를 설치한다.
- 가능한 자연조경석을 활용하며, 계단형태로 조성한다.



설치

주변 여건을 고려한 디자인 적용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조경구조물)」의 기준을 준수한다.
- 옹벽이 길게 연속되는 경우 신축 이음 및 수축 이음을 설치한다.
- 절개지, 지반의 고저 차가 있는 곳에는 옹벽 설치를 금지한다.
-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 후 조성한다.
- 옹벽의 기능과 무관한 구조물, 상업광고물 설치를 지양한다.
- 가로에 연접한 학교, 공동주택 옹벽은 대지 경계선 안쪽으로 일정 거리를 이격하고 녹지대 혹은 화단을 조성한다.
- 높이 3m 이상의 옹벽은 전면에 폭 1m 이상의 화단 및 차폐 식재를 조성한다.
-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수직 방향 음각에 설치한다.

야간 시간대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 야간 보행을 고려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CCTV를 함께 설치한다.
- 조명시설 설치 시 과도한 색채 및 점멸조명 사용은 지양한다.

형태

지역적 장식 요소를 최소화한 디자인

- 구조물의 부피감 최소화를 위해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3m 이상의 옹벽은 환경친화적 비탈면 공법을 적용한다.
- 5m 이상의 옹벽 중 경사형으로 설치가 가능한 경우 5m마다 폭 1m 내외의 단을 설치하고 하부는 녹화한다.
- 터널로 인한 옹벽은 터널 입·출구와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옹벽 높이는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 옹벽에 장식용 벽화 조성 시 최대 20m를 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필수 ○권장



1.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 적용
2. 유출수의 흔적이 그대로 남는 옹벽
3. 간결한 조명시설 설치
4. 환경친화적 비탈면 공법 적용

재질

인공적 이미지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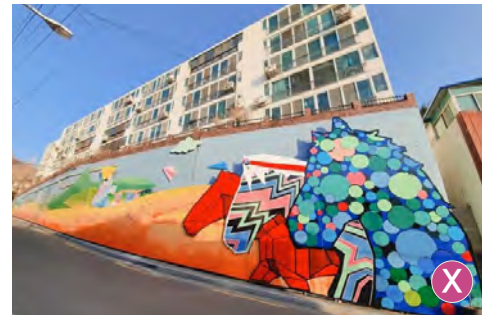
- 입면 면적이 300㎡를 초과하면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 외벽은 목재, 녹화 등 친환경적 재질을 부분적으로 적용하여 웅벽 위압감을 완화한다.
- 주택가 이면도로, 상습 불법 광고물이 부착된 구간은 드라이비트(석재뿔칠)로 마감한다.
- 학교 및 운동장 주변은 그래픽 표현이 용이한 파 타일(모자이크 타일) 또는 그림 타일 마감을 적용한다.



색채

자연친화적인 색채 적용

- 도색보다 노출 콘크리트 및 자연 소재 본연의 질감을 적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도색이 필요한 경우 주변과의 조화성 강화를 위해 중채도, 중명도 색채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를 혼합하여 적용
2. 주변과 이질감이 느껴지는 고채도 색상 사용

B2-9. 방음벽

정의 및 구성체계 ·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벽으로서 주로 소음의 차단이 목적이므로 소음이 발생하는 위치에서 그 소음을 듣는 사람이 있는 장소 사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불투명하고 거대한 판상형 구조로 주변경관을 차단하여 시각적으로 폐쇄감을 형성한다.
- 부분적 장식 개념 목재 등을 사용하여 방음벽과 조화롭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 파손부위 교체가 용이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있다.
- 획일적인 기성품 사용으로 주변환경에 조화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 소음 방지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시각적 폐쇄감이 없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과도한 장식이나 이미지 사용을 최소화한다.
- 파손부위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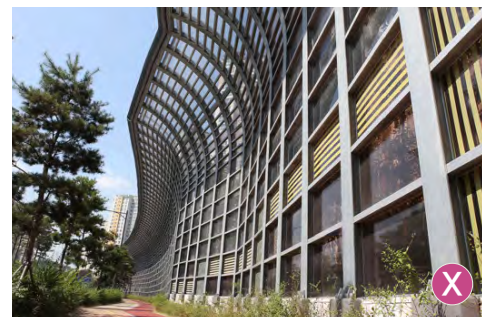


설치**시각적 안정감을 위한 개방감 확보**

- 시가지, 주거지 도로변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폐쇄적 디자인의 방음벽 설치를 지양한다.
- 학교, 공동주택 주변에는 도로 경계선 안쪽으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한다.
- 보행가로는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나, 불가피할 시 녹화를 사용하여 방음림을 조성한다.
- 설치여건에 따라 가로등, 안내표지판 등을 결합 가능한 시설물을 통합하여 설치 계획한다.

**형태****소음방지 기능에 최적화**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 수직벽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 불필요한 장식, 상징물을 남용하지 않은 간결한 형태와 구조로 디자인한다.
- 기능 훼손 시 부분적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모듈 형식의 구조를 적용한다.
- 연속적으로 설치되는 구간의 시각적 일관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배치한다.
- 도로 지형에 따라 상부를 차도 방향으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곡면 형태를 적용한다.
- 곡선으로 굽은 도로에는 상부에 경사 또는 곡면 적용을 지양한다.
- 방음벽의 높이는 기초 옹벽을 포함하여 6m 이하로 계획한다.
- 경사도로에는 지형의 경사도와 동일한 경사각의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 필수 ○ 권장

1. 시가지 내 폐쇄적 디자인 적용
2. 간결한 디자인 계획
3. 굽은 도로에 방음벽 상부 곡면 적용

도시경관의 활력 증진

-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획일적인 형식의 기성품은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녹화는 식물 성장, 사계절 이미지를 고려하여 디자인 적용 면적이나 위치를 결정한다.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요소 적용

- 투명 소재로 디자인할 경우 새 모양 스티커 부착은 금지한다.
-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그래픽은 디자인적 적용한 패턴을 이용하거나, 단색에 투명도를 일부 적용한다.

재료

주·야간 모든 시간대에 시야 확보가 쉬운 소재 사용

- 야간에도 시야 확보가 쉽도록 투시형 소재를 사용한다.
- 조망, 일조, 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의 방음벽을 사용하고 기타 재료의 표면은 무광택으로 도장한다.
- 햇빛에 의한 반사가 적고, 동결·융해 등으로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 다양한 재료의 불필요한 혼용은 지양한다.
- 친수코팅, 광촉매 코팅 등으로 투명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색채

자연친화성을 고려한 색채 적용

- 식재 적용을 위한 격자 구조물 적용 시 외벽 마감재 색상과 유사한 색상을 적용한다.
- 도색보다는 노출콘크리트 및 자연 소재 그대로의 소재를 적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권장



1. 사계절 이미지를 고려하여 상록수 배치
2. 시야 확보가 어려운 소재 사용

B2-10. 전기차충전소

정의 및 구성체계 ·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충전기를 높은 단 위에 설치하여 신체적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 전기충전기와 주차공간 사이가 협소하여 휠체어 이용객은 사용이 불가하다.
- 캐노피가 부재하여 우천 시 이용객 편의성이 저하되고, 안전시설물 부재로 감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방향

-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조성한다.
- 장애물 최소화로 사용하기 편리하게 계획한다.
- 편의시설물을 통합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형성한다.



설치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시설 배치

- 일반 차량과 전기 차량 이용자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보도 유효 폭을 확보하고 보행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 이용자의 충전시설 인지가 쉽고, 주차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 전기차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안전사고 발생 우려 최소화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안전 인증제도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 전 검사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충전기를 설치한다.
- 침수, 강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등의 사고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 충전기 훼손 방지를 위해 인적 드문 곳 혹은 관리가 곤란한 지역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사각지대는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원이 감시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한다.
- 야간에 충전코드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일반 차량과 전기 차량 동선 분리
2. 야간 시간대 적절한 밝기 확보

형태

이용자 행태를 고려한 시설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는 형태를 디자인한다.
- 동일 구간에서는 주변 시설물과 통합디자인 개념을 적용한다.
- 역사문화자원 주변부 등 장소적 특성에 따라 상징적 형태를 적용할 수 있다.
- 빗물 등을 막을 수 있는 캐노피, 보호 커버 디자인은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되며, 개방감이 확보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멀리서도 인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 신체적 약자를 고려하여 충전단자는 하단부에 설치한다.

재료

주변으로의 개방성 및 안전 확보

- 캐노피는 시각적 개방감이 높고 외부 충격에도 파손이 적도록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수 및 방전 재료를 사용한다.
- 기둥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기능성 재료를 적용한다.
- 도시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주변의 환경적 여건 고려

- 주차면의 노면표지는 내연기관차 주차면과 구분하여 적용한다.
- 기둥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계열의 색채를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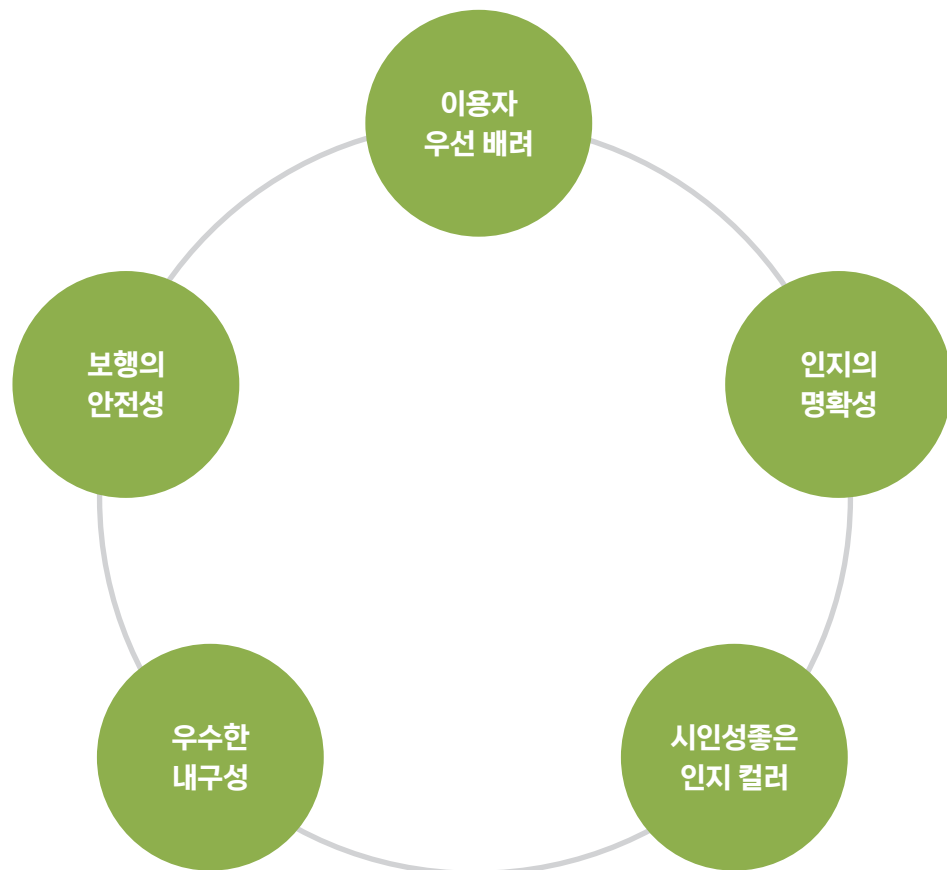
1. 주변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충전소 디자인
2. 강화유리를 사용한 캐노피
3.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색채 사용

B3. 보행안전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 걷고싶은 도시 부산을 위한 보행약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으로 하며, 효율적 공간 관리를 통한 공공공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볼라드, 방호울타리, 옐로 카펫, 점자블록의 디자인 중점방향과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B3-1. 볼라드

정의 및 구성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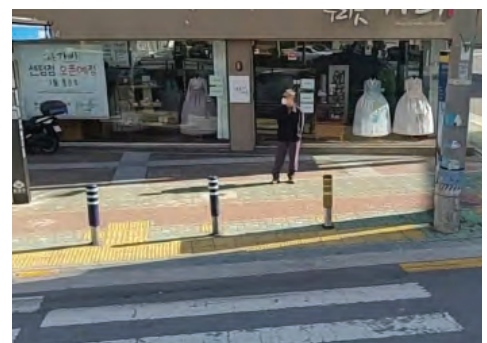
-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도와 보도의 경계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증진법」에 따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으로 정의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치게 장식적이고 다양한 형태와 재질의 디자인이 다수이다.
- 원색 및 고광택 재료 사용으로 주변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
-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보행약자에게 불편함을 야기한다.
- 기능과 무관한 과도한 수량, 부적절한 높낮이, 다양한 재료의 혼재 등으로 보행약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권에 제약요소로 작용된다.

기본방향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하고 지면부를 미려하게 마감하여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한다.
-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통일된 형태를 적용한다.
- 설치기준 준수를 통한 보행 방해요소를 최소화한다.
- 보도와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설치

보행·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 보장

-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볼라드 전방 0.3m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 과도한 수량의 설치를 지양하며, 설치 시에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 차량 충돌 시 충격 완화를 위해 지면에 매입되는 구조로 설치한다.
- 경사면에 설치 시 시설물의 기능을 고려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 보도 턱낮춤구간에는 낮은 볼라드 설치를 금지한다.

형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기타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시행규칙」 별표2와 <부산광역시 횡단보도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한다.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높이는 800~1,000mm, 지름은 100~200mm로 디자인한다.
- 보도와 시각적 연속성을 이루도록 한다.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모서리 부분의 마감은 둥글게 처리한다.
- 파손, 훼손 시 부분적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야간에도 인지 가능하도록 조명기능 및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가로수 화분대 등과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원기둥 형태로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점자블록 위에 볼라드 설치
2. 모서리 부분 마감을 둥글게 처리
3. 조명을 함께 조성하여 야간 인지도 강화

재료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사용 시, 유지 관리를 위해 반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표면을 처리한다.
- 보행자 부딪힘을 고려하여 마감재는 약간의 탄성을 가진 재료를 사용한다.
- 반사시트에 주의, 위험 등 기능적 색채 사용 시 20~30mm 폭으로 1~2줄을 적용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 주변과 조화성을 위해 고채도 및 고명도 색채 사용을 제한한다.
- 반사체는 가급적 흰색을 적용한다.
- 시설물 주조색은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운전자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는 고광택 재료 적용
2. 두 줄로 된 반사시트 적용

B3-2. 방호울타리

정의 및 구성체계 ·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을 정상 진행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자 안전확보가 필수인 구간(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다.
- 중앙분리대를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아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 충격 흡수가 불가능하다.
- 방호울타리 설치 목적에 맞도록 차량과 보행자 구분 위치에 설치되지 않았다.
- 동일 구간 내 다른 형태의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은 색채와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 일부 도로구간에서는 방호울타리 설치 대신 녹지대를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기본방향

- 보행자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 필수로 설치한다.
- 연속성 있는 도로 구축을 위해 동일 구간 내 설치 시 형태 및 컬러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조성한다.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위한 기능을 우선하는 디자인을 한다.



설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기능 확보

- 도로 장애물로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의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한다.
- 잦은 안개 발생, 결빙 빈도가 높아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설치한다.
- 경사면에 설치 시 시설물의 기둥은 수직을 이루도록 설치한다.
- 설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최소 100m 이상을 권장하나 불가능할 경우 60m 이상으로 계획한다.
- 기존 조성된 방호울타리 일대에 추가할 시에는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 차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의 보도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방지한다.
- 보행공간에 설치 시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하부 녹지구역 확보로 지피류를 식재하여 녹지율을 높인다.

형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능 확보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에 따라 설치한다.
- 방호울타리 높이는 1.2m를 기준으로 설계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에는 차량 충격 흡수가 가능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가변성 있는 형태보다 고정된 형태로 설치한다.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최대한 단순한 선적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시설은 패턴, 지자체 로고, 장식물 설치를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곡선형 도로와 보도 사이에 설치
2.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와 함께 녹지구역 확보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재료

주야간 언제나 명확한 인지성 및 시야 확보

- 야간 명시성 확보를 위해 반사판 혹은 반사시트를 부착한다.
- 고풍택 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광택 재료 사용 시 무광 도장한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강도 확보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침범을 막을 수 있는 강도(SB4 등급 이상)의 구조로 설비한다.
- 내구성이 뛰어나며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해안가에 설치할 경우 녹막, 부식될 경우를 고려하여 녹방지가 가능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기능을 최우선으로 고려

- 시선 유도 효과를 고려하여 흰색, 회색과 같은 무채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각을 침해하지 않도록 원색, 고채도 색채 사용은 지양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반사시트를 부착한 방호울타리
2. 운전자 시각을 침해하지 않는 무채색 적용

B3-3. 옐로 카펫

정의 및 구성체계

-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공간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시설물 일부 훼손으로 본연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 옐로 카펫이 타 시설물에 가려져 운전자가 인지성이 떨어진다.
- 주변 벽면에 고명도 색상을 혼재하여 사용하여 인지성이 저하된다.
- 벽면 사용이 불가하여 옐로 카펫을 미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수이다.
- 곡선 도로에서 옐로 카펫 디자인이 꺾여있어 기능이 저하된다.
- 먼지, 매연 등으로 시설물 선명도 약화되어 있다.
- 벽면 시설물이 없고 부분적으로 바닥포장만 조성되어 있어 근경 및 중경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기본방향

- 지속적 유지관리를 위해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 사용한다.
- 명확한 어린이 인지를 위해 벽면 설치 불가 시 가벽을 활용한다.
- 개방적 환경에 설치하여 운전자 인지성 증진시킨다.
- 옐로 카펫과 주변 환경 간 색상 대비 부여로 주·야간 시인성을 확보한다.
- 주변 시설물과 옐로 카펫 연계로 어린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설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옐로 카펫 설치

- 행정안전부 「옐로 카펫 제작 및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기존 벽면을 옐로 카펫 벽체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가벽을 설치한다. (단, 개방된 공간에 가벽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한다.)
- 가벽은 기존 벽면과 가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형태

운전자 인지성 증진

-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어린이를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한다.
- 바닥체 및 벽체 폭은 횡단보도 폭의 70% 이상으로 설정하며, 최대 횡단보도 폭 길이를 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벽체의 높이는 1.7m 이상으로 제작한다.



주변 여건과 연계하여 시인성 제고

- 삼각형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 환경 및 시인성 효과를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디자인한다.
- 야간 통행량이 많은 장소와 주변이 어두워 시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는 조명등을 함께 설계한다.
- 파손 시 신속한 복원 및 관리를 위해 벽체에 관리자 정보 표기 사인물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기존 벽체를 활용할 수 없어 가벽 설치
1. 횡단보도 폭의 70% 이상으로 설치
2.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와 조명등 통합 설치

재료

모든 보행자의 시인성 증진

-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표면이 균일한 재질을 사용한다.
- 바닥체 및 벽체 표면재질의 최소 반사성능은 건조시 재귀반사 성능 값 150mcd/m²·lx, 우천시 70mcd/m²·lx 이상으로 하되 어린이 안전을 위해 상향 조정한다.
- 바닥은 최소 미끄럼 저항기준 40BPN 이상인 재료를 사용한다.

충분한 내구성 확보

- 벽면 및 바닥면에 견고하게 부착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 도료를 표면재질로 사용 시 충분한 내마모성을 갖춘 재료를 사용한다.
- 수은, 납, 카드뮴,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표면 재질을 사용한다.
- 현장 여건상 가벽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내구성이 있는 철재, 목재,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다.

색채

선명하게 인지되는 색채 사용

- 색상은 한국산업표준의 「건조한 노면표시 기준」의 영구적 황색(황색 노면표시 Y1 등급, 붙임 1 참조)을 사용한다.
- 황색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주변의 색상과 보색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최대로 확보되는 타 색상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표면이 균일한 재질 적용
2.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파손된 옐로 카펫

B3-3. 점자블록

정의 및 구성체계 ·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직선보행, 방향 전환, 목적지 발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겪게 되는 시행착오를 줄이며, 정확한 보행위치와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단절된 점자블록으로 정확한 방향 안내가 불가하다.
- 점자블록과 보도블록 사이 틈으로 발이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 점자블록의 이탈, 훼손 및 색채 혼탁에 따른 공간의 인지성이 저하된다.
- 고광택 점자블록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야기된다.
- 볼라드, 횡단보도, 턱 낮춤 등 주의 필요 구간의 잘못된 설치방식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 부적절한 재료 사용으로 내구성 저하 및 우천 시 미끄럼이 발생하여 사고 우려가 있다.

기본방향

- 점자블록과 시설물 간 연계성 강화로 보행약자의 방향 안내 효과를 증대한다.
- 색채 대비를 통한 시인성을 강화한다.
-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보행자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설치 기준을 준용한 점자블록 설치로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설치

연속적인 방향 안내 유도

- 선형블록은 돌출선이 유도공간의 방향과 평행되도록 설치한다.
- 점형블록은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상 공간 및 시설물 전방 300mm에 설치한다.
- 인지성 강화를 위해 분기점이나 굴절 지점은 점형블록을 선형블록의 2배 면적으로 설치한다.
-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이 연결되는 부분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한다.
- 기존 점자블록에 연이어 설치할 경우 동일한 규격, 같은 재질의 제품으로 설치한다.
- 횡단보도 앞 점형블록 설치 시 2줄로 설치한다.
- 바닥에 매립 시공을 하며, 돌출하단면을 부착하여 설치한다.



형태

인위적으로 가공한 점자블록 사용금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규정에 준한다.
- 모든 점자블록은 기술표준원(KATS)의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 300X300mm 사각판에 점형블록은 36개의 반구형, 원뿔절단형, 또는 혼합배열형 돌출점으로, 선형블록은 4개의 돌출선으로 구성 되도록 한다.
- 점자블록은 현장에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 선형블록은 이격거리를 맞추지 못할 경우 가공이 가능하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돌출부와 하부가 일체형인 제품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간격을 두지 않고 붙여서 설치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
2. 횡단보도 앞 점형블록 두 줄로 설치
3. 돌출부와 하부가 개별로 이루어진 점자블록 사용

재료

시인성 및 지속성 강화

- 실외 점자블록의 경우 고무소재, 합성수지 등 내구성, 내열성, 내마모성이 떨어지는 제품 사용을 제한한다.
- 비나 눈 등의 물기에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며, 철재 사용은 제한한다.
- 보행약자의 통행이 잦은 구간은 미끄럼 저항기준 408bpm을 준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 재질은 콘크리트, 석재 등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한다.

색채

운전자 인지성 증진

- 색상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나, 바닥재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기능요소 외에 표면 페인트 도장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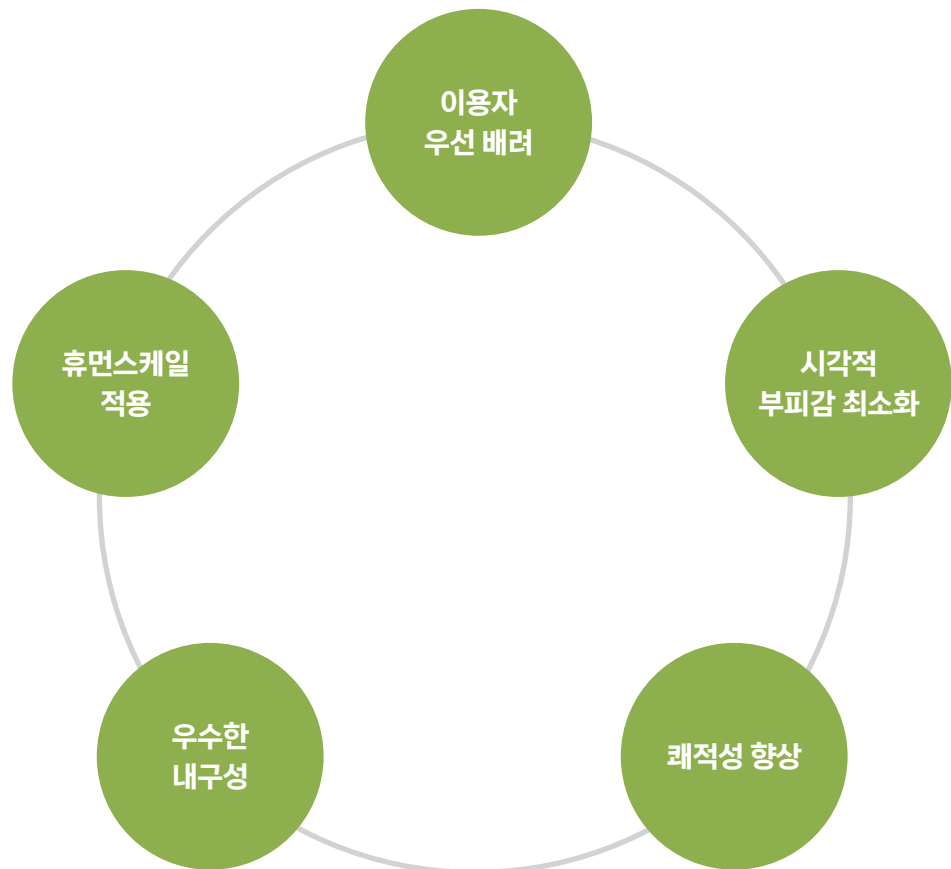
1. 우천 시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철재재료 사용
2. 주변 여건에 따라 노란색이 아닌 다른 색상 적용

B4. 편의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공공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각종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영구적 또는 임시로 일정 도로를 점유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물의 설치 유형에 따른 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 도시공간에서의 여유와 문화향유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시민이 직접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벤치, 퍼걸러는 휴먼스케일에 적합하도록 하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벤치, 가로 판매대, 퍼걸러, 휴지통, 공중화장실, 관광안내소, 공원등, 음수대, 무인키오스크, 스마트그늘막, 흡연부스 총 11개의 공공시설물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B4-1. 벤치

정의 및 구성체계 ·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의자로서 가로 공간이나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보도 중앙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통행 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 모서리가 직각으로 제작된 벤치 시설물로 인해 어린이, 보행약자 안전성이 저해된다.
- 노후되어 색상이 변질되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벤치가 방치된 구간이 다수이다.
- 우천 시, 여름철 폭염, 해변가 해풍 등 환경적 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디자인 벤치 설치로 편리성이 저해된다.
- 과도하게 장식이나 하부고정 구조 노출로 도시 미관이 저해된다.
-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과 조화성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이다.
- 일부 이용자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벤치 일대 공간이 범죄 우려지역으로 연출된다.

기본방향

- 타 시설물과 통합 등의 방안으로 보도 점유 면적을 최소화한다.
- 안전성 및 편리성 증진을 위해 신체 접촉부를 고려한 휴먼스케일로 디자인한다.
- 변색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기후, 주변환경을 고려한 디자인, 재료, 배치 방안을 마련한다.
- 도시미관과 조화되는 형태와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설치**보행자에 방해 최소화**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보행에 방해를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벤치 설치를 지양한다.
- 건물 입구부, 광장, 오픈스페이스, 보행전용가로 등 보행 유효 폭이 확보된 곳에만 설치한다.
- 이용 중 폐쇄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착석 방향을 고려해 개방적인 구조로 배치한다.
- 폭 2.5m 이하의 산책로에 설치 시 1.5~2m 정도의 포켓공간을 만들어 배치하거나 경계석에서 최소 0.6m 이상 띄워서 설치한다.
- 보도가 4m 미만인 경우 원형 벤치, 수목 벤치 설치를 금지한다.

주변 환경 및 지형적 특성 고려

-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공해가 심한 곳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경사가 있는 곳은 평탄화 작업을 하거나 벤치 하단부 높이를 조정하여 벤치의 좌대가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 내 설치

- 우천 및 폭염 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식재 및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범죄발생 예방 및 우범지역으로의 변화 방지를 위해 조명과 인접한 구간에 배치한다.
- 공원에 보행약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50~100m 이내마다 설치한다.
- 등반이형 벤치는 주변 건축물 및 옹벽 등의 벽면에 밀착하여 배치한다.

● 필수 ○ 권장



1. 주요 보행동선 외곽으로 배치
2. 식재로 인해 이용성 저하
3. 식재와 함께 벤치를 설치하여 그늘공간이 확보된 휴식시설
4. 조명과 인접한 구간 내 배치

형태

시설 사용자 고려

- 보행약자, 노약자, 어린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0.4~0.45m 높이로 설치한다.
- 신체 접촉이 잦은 부분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위해 모서리를 둥근 형태로 디자인한다.
- 고정형으로 설계하되 설치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 타인과 벤치 사용공간 구분을 위한 핸드레일을 설치한다.
- 야간 인지성 강화를 위해 조명과 벤치를 통합한 형태를 적용한다.

도시의 품격을 증진하는 간결한 디자인 계획

- 하부 고정 구조가 외부로 노출되어 설치 공간의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매립한다.
- 시각적 효과를 우선시 한 장식적 디자인이나 구조를 금지한다.
- 주변 시설물과 기능 및 디자인을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보도 점유면적 최소화를 위해 플랜트박스 등의 시설물과 통합된 구조를 활용한다.
- 녹지대 경계석, 펜스 등 시설물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부식되거나 노후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부분적 교체가 용이한 모듈식 구조 및 접합방식을 사용한다.
- 좌석 부분은 우천 시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가로변 공개공지에 설치된 벤치는 부피감을 최소화하고 등받이가 없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지면과 좌석 사이 공간은 오픈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문자, 로고, 관리 주체를 상징하는 그래픽요소는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시설물 후면에 간략히 표기한다.



● 필수 ○ 권장

1. 좌석 부분을 등글게 마감한 벤치
2. 사용공간 분리를 위한 핸드레일 설치
3. 플랜트박스과 결합한 형태 적용
4. 배수가 용이한 디자인으로 계획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과 조화로운 형태 적용

- 해안가 경관 조망이 요구되는 곳은 등반이형 형태를 적용한다.
- 테마공간, 특화거리 등 스토리가 있는 공간 조성 시에는 개성있고 예술성이 있는 다양한 벤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야 한다.)



재료

주변지역의 환경적 여건 반영

- 해안가에서 부식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내수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한다.
- 자연소재 본연의 색채와 반광택, 무광택 재료를 혼용하여 인공적 이미지를 최소화 한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좌석 부분은 계절에 따라 차갑거나 뜨겁지 않도록 열전도율이 높은 금속, 석재 사용을 지양한다.
- 신체 접촉면을 고려한 목재, 우레탄 등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한다.



색채

주변과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주변 시설물과 조화로운 색상을 적용하며, 원색 및 고채도 색상 사용을 금지한다.
-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하며 인공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페인트 도장 마감은 지양한다.
- 수변, 해안가에 설치할 경우 회색 계열 및 흰색 색상을 주요색으로 활용한다.



● 필수 ○ 권장

1. 테마거리 내 특색있는 벤치 설치 가능
2. 해안가에 내구성이 우수한 벤치 배치
3. 열전도율을 고려한 재료 적용
4. 수변 벤치에 흰색 색상을 주요색으로 적용

B4-2. 가로 판매대

정의 및 구성체계 ·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간이 판매시설이며, 이동 및 설치가 비교적 자유로운 소규모 상점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외관에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가 부족하다.
- 판매물품을 무분별하게 적재하여 안전한 보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
- 임의로 부착된 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
- 사용하지 않는 가로판매대가 방치되어 노후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가로가판대의 출입구가 도로변을 향해있고, 불법시설물의 적재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

기본방향

- 정돈된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 한다.
- 보행환경을 방해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다.
- 유지관리가 편리한 형태 및 재질 사용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형성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한 설치로 안전한 시설물 이용성을 확보한다.
- 일관성 있는 표준 시설물 디자인을 개발한다.



설치

시설물의 이용성 강화

- 공간 점유율 최소화를 위해 판매대는 장애물 존에 설치하며, 장애물 존 바깥선에 정렬하여 배치한다.
- 유지관리적 측면 및 이용성을 고려하여 차폐요소없이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 판매대 바닥면과 보도의 높이가 같도록 설치하며, 경사지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형태

유지관리가 편리한 외관

- 이동이 가능한 독립형 부스 형태로 계획하고, 판매품들이 보행로에 적치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관리번호 및 가로판매대 픽토그램 등 외부 안내사인물은 일관된 체계로 구성하여 부착한다.
- 환풍기, 실외기 등 외부로 노출되는 부속시설물은 판매대와 동일한 구조체로 인지될 수 있도록 본체와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재료

내구성이 좋은 재질 사용

- 내구성이 강한 스틸소재를 사용하며,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택 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 가로판매대 셔터는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 장애물존에 정렬하여 설치
2. 본체와 동일한 색채가 적용된 환풍기

B4-3. 퍼걸러

정의 및 구성체계 ·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시설물로 공원, 광장 등의 공공장소에 머무르는 이용자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휴식을 위한 시설물이나, 그늘 형성이 부족한 디자인이 다수이다.
- 하부 공간에 휴식 시설물을 과도하게 배치하여 통행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 폐쇄적 구조 및 조명 확보 미흡으로 주간에도 어두운 공간이 연출된다.
- 지붕에 색이 변환되는 재질을 사용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 획일적인 형태와 구조로 도시 미관 특색이 부족하다.
- 주변 시설물과 색채 및 재료의 조화성이 부족하다.

기본방향

- 충분한 그늘 형성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모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주변과 시설물 하부 면적을 고려하여 최적의 배치 방식 적용하여 통행 유효폭을 확보한다.
- 개방적 구조 및 조명시설 확충으로 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변색이 우려되는 재료 최소화 및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 적용한다.
- 주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색채, 재료를 고려하여 정돈되고 특색있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한다.



설치**편리한 휴식공간 연출**

- 급경사지, 음지, 강풍지역, 비위생지역, 공해지역 등에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 퍼걸러 내부에는 휴지통 등 위생시설 설치를 금지하며 휴식공간 외부에 설치가 필요할 시 약 1m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 수변 일대에 퍼걸러 설치 시 해안 범람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설치구간이나 공원에 설치한다.

여유있는 진출입공간 확보

- 평상, 벤치 등의 휴식시설물 설치 시 이용자의 진출입 공간 확보 하고 두 시설은 통일감있는 재료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진출입부 개방성 확보 및 이동 편의를 위해 가로등, 벤치와 같은 주변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심리적 안전감 제공

- 범죄 예방,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각지대 및 구석진 곳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설치 장소가 경사면일 경우 지면 보수 및 지주의 높이를 조정하여 시각적으로 수평을 유지한다.
- 밝은 분위기의 휴식공간 연출을 위해 야간 조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휴지통이 퍼걸러와 인접하게 배치
2. 해안공원 내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3. 조명을 함께 설치한 퍼걸러

형태

개방적 공간 연출을 위해 과도한 디자인 적용 지양

- 지면에 닿는 면적 최소화를 위해 기둥은 최대한 슬림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최소한의 구조와 간결한 형태로 설계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 휠체어 진출입 및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천장 높이는 2.2~2.5m로 설계한다.
- 구조재는 풍압, 지진 등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지붕은 눈, 비를 고려하여 5도 이내의 경사각을 적용한다.

주변 환경과 조화성 확보

-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 특화가로형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한다.
- 특화가로의 경우 테마와 연계된 조형적 요소를 적용하되 반드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 산림에 설치될 경우 녹지와와의 조화를 위해 식생 녹화가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재료

자연 고유의 소재 적극 사용

- 목재 및 석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할 경우 본연의 소재 및 반광택, 무광택 소재를 적용한다.
- 목재 사용 시 유색 페인트 도장을 지양하고, 방부 처리를 한다.
- 천장부에 식생녹화 적용 시 자연 그늘이 형성되는 식재를 적용한다.

● 필수 ○권장



1. 최소한의 구조로 개방적인 디자인
2. 5도 이내의 지붕 설치
3. 특화가로형으로 구분하여 디자인한 퍼걸러
4. 목재 사용 시 반광택 소재 적용

이용객 편의성을 고려한 재료 적용

- 이용자와 접촉이 많은 표면에는 오염에 강하고 청소가 용이한 소재로 마감한다.
- 충분한 그늘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상부 지붕에는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는 유리 적용을 지양한다.
- 요철 및 볼트(너트) 등 부속 철물의 노출을 지양하고 노출되는 경우 방청 재재를 사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 시 광택을 줄일 수 있도록 표면을 가공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고채도, 고명도 색상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3가지 색상 이내로 적용한다.
-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하며 인공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는 페인트 도장 마감은 지양한다.
- 수변, 해안가에 설치할 경우 회색 계열 및 흰색 색상을 주요색으로 활용한다.



● 필수 ○ 권장

1. 지붕에 자외선이 차단되지 않는 유리 재질 적용
2. 흰색을 주요색으로 사용한 해안가 퍼블릭

B4-4. 휴지통

정의 및 구성체계 · 외부 공간에 설치되어 쓰레기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고광택 금속 재료를 사용하여 주변 미관을 저해한다.
-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높이로 조성하여 이용에 불편하다
- 분리수거 휴지통에 국가표준픽토그램이 적용되어 있지 않다.
- 불법 광고부착물로 인해 정돈되지 않은 인상을 준다.

기본방향

- 쾌적한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
-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한다.
- 분리수거 정보 인지성 강화를 위해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및 재질을 적용한다.



설치**쾌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장소 내 설치**

- 버스쉼터, 휴게시설, 금연구역에는 재떨이가 포함된 휴지통 설치를 금지한다.
- 벤치, 정류장, 퍼걸러, 그늘막, 휴게시설 등 다른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되,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주지 않도록 최소 800m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가로등, 펜스 등 타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형태****시설물의 청결성 유지**

- 수거가 편리하도록 내부 통을 쉽게 분리 가능하게 디자인 한다.
- 부패 방지를 위해 통풍 및 건조가 용이하게 디자인한다.
- 시설물 통합 시 사용자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벤치와는 통합하지 않는다.
- 외부에 설치할 경우 우천 시를 고려하여 투입구 상부가 노출된 형태 설치하는 지양한다.
- 불가피하게 투입구가 위쪽을 향한 형태로 디자인 할 시 위생을 위해 덮개를 설치한다.
- 쓰레기 적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덮개는 곡면으로 처리한다.
-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가 가능한 휴지통을 설치한다.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형태**

- 투입구의 위치와 높이는 한국인 평균 허리높이 약 1m를 기준으로 제작한다.
- 분리수거 휴지통 설치 시 분리수거 종류를 쉽게 인지하기 위해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버스쉼터 인근 휴지통에 재떨이 설치
2. 내부 통을 쉽게 분리 가능한 형태
3. 투입구 상부가 노출된 휴지통

재료

조화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재질 사용

- 고광택 재료를 금지하며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시공한다.
- 외부 재료는 내화성이 우수하고 오염에 강하며,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특수 도료로 마감한다.



색채

통일성 있는 색채 적용

-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시설물 디자인을 위해 무채색 계열을 사용한다.
- 뚜껑이 포함된 경우 외부 표면과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광택을 줄이는 마감 적용
2.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색상 사용

B4-5. 공중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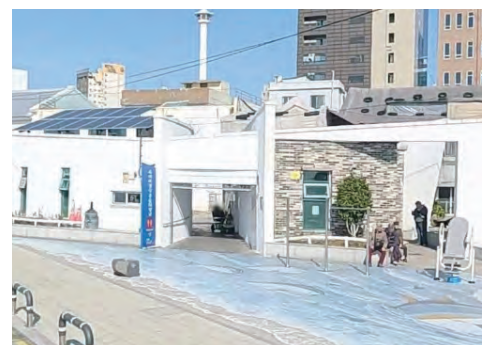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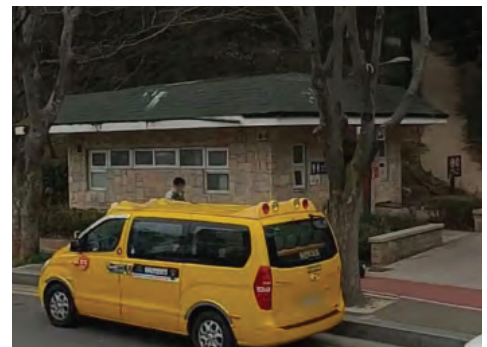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또는 개인이 공공장소에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이용자가 공중화장실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판이 부재하다.
- 시각적으로 차폐된 곳에 설치되어 범죄 및 사고로 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 단차가 있는 출입구 형태 등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설치된 위치에 따라 다른 재질을 사용하여 통일성이 부족하다.
-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조명 계획이 미흡하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지 못하며, 유지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

기본방향

- 자연 감시가 가능한 개방적 공중화장실을 조성한다.
- 픽토그램 등 안내요소를 적극 사용하여 인지성을 증진한다.
- 주변 가로환경과 조화성 확보를 위해 간결한 외관으로 디자인한다.
- 보행약자, 장애인 등 모두가 사용하기 쉬운 편의시설물로 디자인한다.
-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가 쉬운 공간으로 조성한다.
- 야간 이용객을 고려한 조명 계획을 한다.
- 통합적 시민 편의 서비스 공간을 제공하는 복합 공간 기능을 유도한다. (예 : 관광안내소+공중화장실+물품보관소)



설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개방성 및 인지성 확보

- 안전성 확보 및 자연적 감시를 위해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 이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외벽 상부에 화장실 픽토그램 사인과 조명을 설치한다.
- 도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대로변 설치를 금지한다.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 장애인용 변기 및 세면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출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 세면대 인근에 선반 및 옷걸이, 물비누, 일회용 휴지 및 휴지통 등의 시설물을 배치한다.
- 영유아 동반객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내부 칸 일부에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한다.
- 동파방지를 위해 난방 및 환풍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단, 전기시설이 미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중화장실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한다.
-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며, 'CCTV 감시중'이라는 안내 사인을 함께 부착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 비상벨은 대·소변기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바닥면으로부터 600~900mm사이, 높이 200mm 내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 필수 ○권장



1. 개방적인 공간 내 설치
2. 외관에 픽토그램 적용
3. 진입로 및 출입구 주변에 조명 배치

형태

누구나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출입구 조성

- 남녀 화장실을 구분하고 동선과 시선이 교차하지 않도록 출입구를 설계한다.
-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폭을 최소 1m 이상 확보한다.
- 출입구는 보도와 화장실 바닥에 단차가 없도록 하며, 위치상 불가능할 경우 경사로를 설치한다.
-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에 남녀화장실 구별을 위한 점자 표지판을 부착한다.
- 출입구 0.3m 전면에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공간을 감지하도록 한다.
- 출입구 상부에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캐노피를 설치한다.

쾌적한 내부공간 형성

- 공중화장실 내부 칸은 안여닫이로 조성한다.
- 출입문의 아랫부분은 환기 등을 위해 바닥에서 0.2m 이하의 빈 공간을 형성한다.

편의성을 고려한 내부공간

- 내부 환기를 위하여 강제 배기팬을 설치하되 외부로 노출되는 시설물은 측면을 향하도록 설계한다.
- 공중화장실 출입구 주변에 세면대 및 거울을 배치하며, 짐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한다.
- 위생을 고려하여 자연광 유입이 풍부하며,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실외기 및 배기구의 높이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는 높이로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경사가 없어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2. 캐노피 부재로 이용자 편의성 저하
3. 안여닫이 문으로 되어있는 공중화장실 내부 칸
4. 통풍이 원활한 구조로 설계

재료

안전성이 확보된 공간 조성

- 미끄럼 방지를 위해 바닥은 배수가 원활한 자기질 타일, 미끄럼이 적은 엠보싱 타일을 적용한다.
- 내구성이 강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조립식 구조로 설계할 수 있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을 주재료로 설계한다.
- 벽체와 천정에는 내습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외관 형성을 위해 고채도·고명도, 과도한 슈퍼그래픽 사용은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바닥 재질 적용
2.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 색상 사용

B4-6. 관광안내소

정의 및 구성체계 ·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 홍보 제공으로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다국어 및 픽토그램을 활용한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이 불편하다.
- 관광안내소 픽토그램 및 간판 위치 통일성이 부족하여 정돈되지 않은 도시이미지를 형성한다.
-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고채도·고명도 색상 사용이 많다.
- 홍보사진 및 그래픽 이미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공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기본방향

-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인지하기 쉬운 외관을 디자인한다.
- 간결한 형태를 사용하여 정돈된 도시이미지 형성한다.
- 공간 인지성 강화를 위해 픽토그램 및 간판 위치를 통일한다.
- 외국인·관광객·외지 방문객 모두 알기 쉽게 표기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한다.



설치

편리한 공간 형성

- 관광안내소 픽토그램, 간판 등 외부 안내사인물은 일관된 체계로 부착한다.
- 보행자 주요 이동동선 및 눈에 잘 띄는 공간에 설치한다.
- 키오스크는 일반 사용자와 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 정돈된 가로 환경을 위해 주변 공공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관광안내소 내·외부에는 방문객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공중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 인터넷 검색과 인쇄가 가능한 정보검색 공간을 조성한다.

형태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디자인

-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과 음성 서비스 공간을 통합 조성한다.
- 방문객이 인지하기 쉽도록 광역 차원으로 외관 디자인을 통일한다.
- 과도하게 장식적인 형태 및 부착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야간 인지도 증진을 위해 외부 안내사인에는 조명을 설치한다.
- 방문객의 편안한 방문을 위해 개방감 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내부로 진입하지 않더라도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와 연결된 공간을 설계한다.

효율적인 유지관리

-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훼손 시 부분 교체가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훼손 및 파손 될 경우 즉각적인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필수 ○ 권장



1.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
2. 광역 차원으로 통일된 디자인 적용
3. 외부 안내사인에 조명 설치

재료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외관

- 외관에는 유리 등 개방감이 느껴지는 재료를 사용하며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 및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 인공적인 도색 마감은 지양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광으로 마감할 수 있는 도료를 사용한다.



색채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사용

- 원색 및 고채도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무채색을 사용한다.
- 기타 색채에 관한 사항은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 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필수 ○ 권장

1. 유리 벽면을 적용하여 개방감 확보
2.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색상 사용

B4-7. 공원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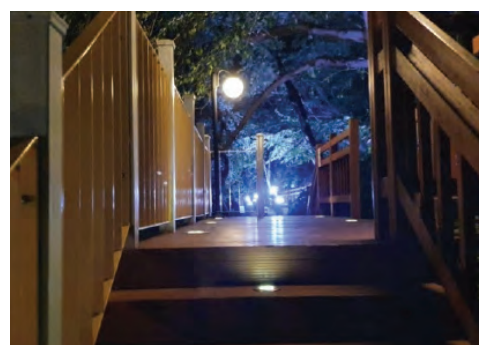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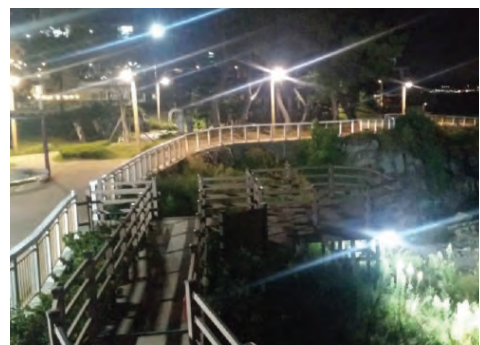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원 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동·식물, 지역 상징물 형상화 등 지나친 장식물로 인해 정돈되지 않은 보행환경이다.
- 지주대에 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를 사용하여 보행자 및 차량 이용자의 시각적 혼란을 유발한다.
- 고채도 및 원색 사용으로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
- 지주대와 지면 결합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보행 안전성이 저하된다.
- 과도하게 밝거나 어두운 조명시설이 혼재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를 위한 별도의 부착물로 시각적 공해 요소로 작용되며, 혼잡한 가로경관이 조성된다.

기본방향

- 간결한 디자인으로 정돈된 보행 환경을 형성한다.
- 도시품격 증진을 위해 주변과 조화로운 색채 및 재료를 사용한다.
-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간결한 구조를 사용한다.
- 빛 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설치**주변 요소를 고려한 배치방식 적용**

- 연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밝기 변화 및 광원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나뭇가지 등의 조경요소에 의해 조명시설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한다.

형태**정돈된 가로환경 구축**

- 과도한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여 간결한 형태로 조성한다.
-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해 공원등 하부는 곡선형태로 디자인한다.
- 유도사인, 화분걸이, 벤치 등 타 시설물과 통합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헤드램프는 두께를 최소화한 원통형을 기본으로 디자인한다.
- 지형적 환경에 맞게 설치하기 위해 모듈화 구조로 디자인한다.
- 지자체, 관할 지역 슬로건이나 심벌마크 등 표기를 지양한다.

조명시설로 인한 빛공해 최소화

- 빛공해 예방을 위해 수직각 90도 이상인 빛을 최소화한다.
- 빛이 차량 운전자의 시각 저하를 야기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기존 램프를 LED램프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누설광, 빛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 설치 시 노면 방향으로 비춘다.

● 필수 ○ 권장



1. 조명시설이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
2. 노면 방향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공원등
3. 타 시설물과 통합하여 조성

재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사용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사용 시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며 표면을 반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처리한다.
-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시설물을 위해 목재, 석재 등 친환경 재료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색채

도시에 어우러지는 색채 사용

- 주거지, 시가지 내 조명시설은 지나치게 높은 휘도나 원색 조명을 금지한다.
-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저채도 및 저명도 색상을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목재를 사용한 친환경적 디자인
2. 저채도 및 저명도 색채를 사용한 공원등

B4-8. 음수대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원, 광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식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어린이, 노약자, 휠체어 이용객 등 다양한 사람이 이용하기 어려운 높이로 조성된 경우가 많다.
- 스테인리스 스틸 등 마감이 날카롭게 처리되어 사용에 위험하다.
-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성이 저하된다.
- 이용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전 형태가 많다.
- 지속적 관리 미흡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되어 있다.
- 수질 정보, 관리 날짜 등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판이 없다.

기본방향

- 다양한 높이로 조성되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쉽고 편리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수도꼭지 형태로 디자인한다.
-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안내사인물과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디자인 및 주요 정보를 기입한 안내판을 부착한다.



설치

시설물 이용성 증진

- 깨끗한 공간 조성을 위해 직접적인 하수구 노출을 금지한다.
-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음수대를 위해 위생 및 공해 문제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공원 및 오픈스페이스 등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형태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장식요소 최소화

- 장식적 요소의 남용을 지양하며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보행 유효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부피감 및 설치 면적으로 디자인한다.

누구나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 적용

-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모서리가 둥근 형태로 디자인한다.
- 사용하기 편한 음수대를 위해 크기 및 구조 결정 시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를 참고한다.
- 방향 제한이 없고 다방면에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물받이의 원활한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한다.
-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하단 높이는 650mm 이상, 깊이는 450mm 이상으로 하부에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필수 ○권장



1. 하수구가 직접적으로 노출
2. 과도한 장식적 요소 적용
3. 배수를 고려하여 경사각을 적용한 음수대

다양한 이용자의 편의성 고려

-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객을 고려한 높이가 다른 음수대를 함께 조성한다.
- 어린이, 노약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수전의 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700~800mm 이내로 설계한다.
- 물 절약 및 휠체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센서 등 자동 잠금장치가 설치된 디자인을 권장한다.



재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료 선정

- 음수대 설치바닥 및 주변부는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한다.
- 표면 훼손 및 동파 방지를 위해 물이 직접 닿는 수전 등은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강한 금속을 사용한다.
- 물받이는 물에 의한 표면 훼손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및 석재 소재를 사용한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음수대
2. 바닥에 미끄럼 방지 재질 적용

B4-9. 무인키오스크

정의 및 구성체계 · 무인키오스크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시스템으로 가로공간이나 건축물 내의 공공장소에 설치한 무인단말기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인, 어린이, 보행 약자 등이 사용하거나 조작하기에 어렵다.
-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 보도 유효폭을 침범하는 위치에 설치되어 이용이 불편하다.
- 디자인 표준화 부족으로 시·군·구별 일관성이 없다.

기본방향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지속적 사용을 위해 유지 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장소에 설치 및 배치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형태 및 지역 내에서 표준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설물로 디자인한다.
- 부산광역시만의 특색을 돋보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한다.



설치

모든 이용자의 쉬운 사용 유도

- 관광정보형 키오스크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LED, LCV 정보 전달 음성 시설물을 통합 설치한다.
- 조작부는 일반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한다.

보행에 방해 최소화

- 인접한 조명 시설 등 가로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관광정보형 키오스크는 관광객의 주요 동선,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쉽게 찾도록 한다.

형태

간결하고 특색있는 디자인 적용

- 불필요한 요소를 배제하고 최대한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부산광역시 내 관광자원 관련 키오스크 공통 디자인 적용으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다.

재료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질 사용

- 외부로 인한 훼손에 대비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스틸과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을 사용한다.
- 외부오염을 고려하여 소재 자체의 색, 무채색을 활용한다.

● 필수 ○ 권장



1. 휠체어 사용자도 조작할 수 있는 키오스크
2. 가로시설물과 통합된 키오스크

B4-10. 스마트그늘막

정의 및 구성체계 · 기후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휴게 및 편의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차양 휴게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휴식용 벤치가 통합 설치되었으나 좁은 면적으로 실질적 활용도가 낮은 공간이 많다.
- 주요 보행동선 내에 설치되어 보행에 불편하다.
- 지방자치단체 로고 및 슬로건을 시설물에 과도하게 반영하여 혼재된 인상을 준다.
- 색채의 통일이 부족하여 정돈되지 않은 도시이미지를 준다.

기본방향

- 충분한 그늘 형성으로 모두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시설물 하부 면적을 고려한 배치로 보행 유효폭을 확보한다.
- 개방적 구조 및 조명시설 확충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 변색이 우려되는 재료 사용 최소화로 지속가능한 시설물로 디자인 한다.
- 주변 건축물, 시설물 색채 및 재료를 고려하여 일관된 도시 이미지를 연출한다.



설치

모든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

- 시설물 이용성 증진을 위해 유동인구 및 이용자가 많은 공간에 설치한다.
- 스마트그늘막이 확장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 확보에 지장없는 공간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점자블록에서 0.6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지주에 설치한다.
- 시각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음향신호기와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그늘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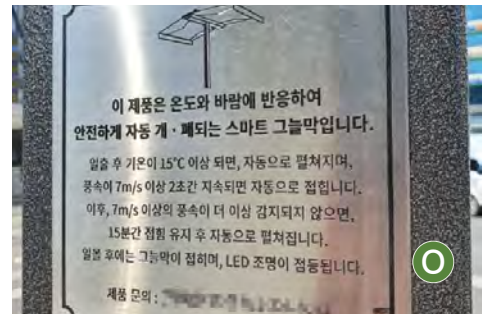
- 대형교차로 및 사거리 등 도로 폭이 최소 4,000mm 이상인 주요 간선도로변 횡단보도에 설치하며, 보도 폭이 최소 3,500mm 이상인 공간에 설치한다.
- 남향으로 빌딩이 있어 빌딩 그늘이 생길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친환경적이며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그늘막

- 도로 점용 최소화를 위해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자동 확장 및 축소가 가능하도록 풍속, 기온 등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감지센서, 자동 컨트롤러를 포함하여 디자인한다.
- 태양광 패널, 태양광 축전지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설계한다.

● 필수 ○ 권장



1.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
2. 지주에 설치된 시설물 안내표지

이용객 안전성 고려한 구조

-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위해 조명을 통합 디자인한다.
- 조립부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한다.
- 차양 개폐 시 낙엽 등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도를 조절하여 디자인한다.

재료

이용자를 고려한 재질 선택

- 자외선 차단, 방수를 위해 그늘막에는 아크릴 원단을 사용한다.
- 이용자의 신체가 닿는 부위는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오염 시 티가 나지 않는 색채 적용

-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저채도 및 저명도 색상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조명과 통합된 디자인
2. 주변과 조화되는 저명도 색채 사용

B4-11. 흡연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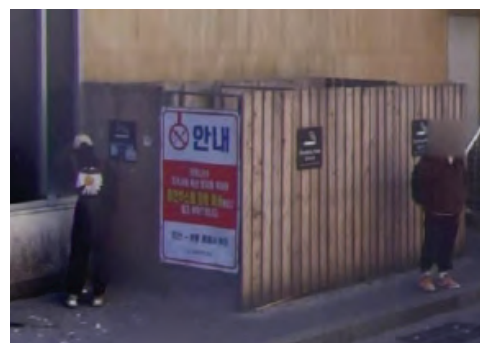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흡연자에게 흡연공간을 제공하는 부스형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유지관리 및 이용성이 저하된 부스형 흡연공간이 다수 있다.
- 주변과 조화롭지 않은 원색을 사용한 흡연부스로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 진입부 단차로 접근성이 저하된다.
- 주변이 차폐된 공간에 조성되어 범죄발생이 우려된다.
- 부산역,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 주요시설 내부에서 흡연부스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시설물이 부족하다.

기본방향

- 사용자의 이용성을 고려한 개방형 흡연공간을 조성한다.
-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한 진입부 단차를 제거한다.
- 픽토그램,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주요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한다.
- 범죄 예방을 위해 개방감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및 재질을 사용한다.



설치

간접흡연 피해방지 효과 강화

- 버스쉘터, 도시철도 출입구, 횡단보도, 어린이 놀이터, 청소년시설, 공연시설, 통풍시설, 공중화장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 어린이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내부에는 재떨이 및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안내문을 설치하며, 이외의 시설 설치나 물품 제공은 금지한다.



형태

흡연구간 명시를 위한 디자인

- 최소 50% 이상의 벽면이 개방된 부스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 간접흡연 최소화를 위해 바닥 도색, 재질 구분을 통해 흡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화한다.



재료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질 사용

-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식성, 내구성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도장 시 내마모성이 우수한 무광도장으로 표면을 마감한다.

색채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시설물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저명도 및 저채도 사용을 지향하며, 2가지 색상 이하로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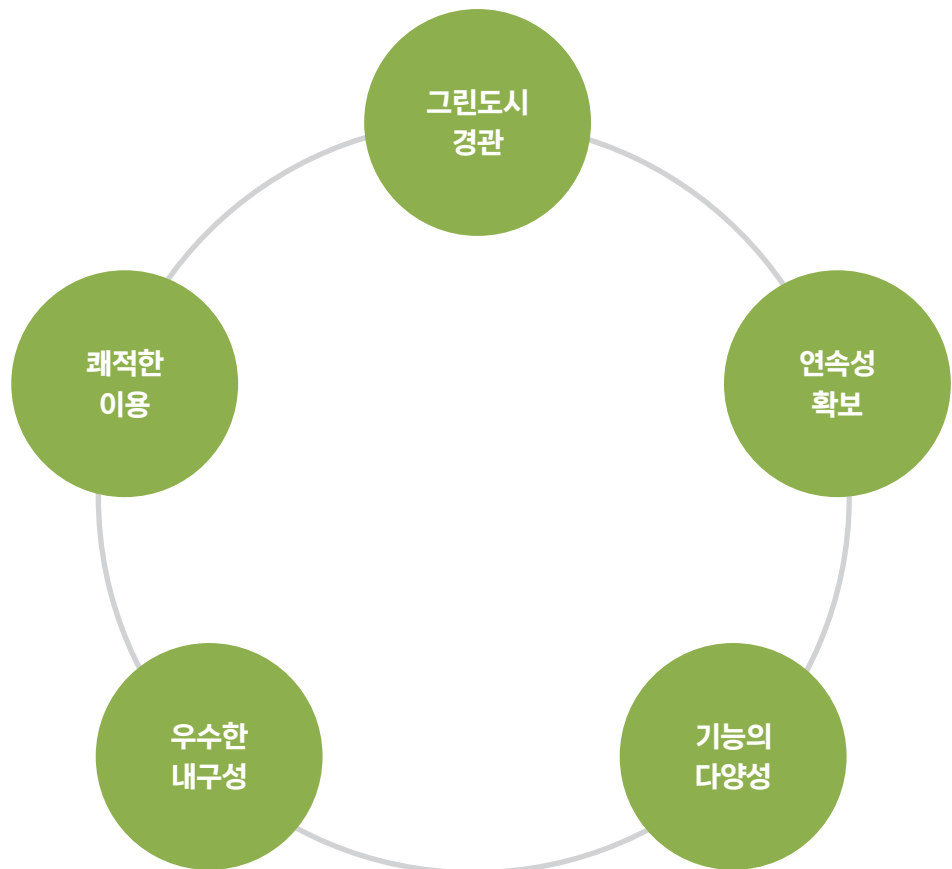
1. 내부에 재떨이만 제공
2. 바닥 도색, 재질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흡연구역

B5. 녹지·수경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녹지·수경시설물은 도시 내 녹지공간에 있는 가로수, 가로 화분 등 녹지와 관련된 시설물을 의미하며 수경시설물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을 의미한다.
- 도시 공간의 어메니티와 자연친화적 풍경으로 품격높은 그린도시를 형성하는 녹지·수경시설물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달리 운영·활용될 수 있으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로수 보호 덮개, 가로 화분대, 분수대의 디자인 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B5-1. 가로수 보호덮개

정의 및 구성체계 ·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 훼손이 예상되는 곳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통일되지 않은 형태로 정돈되지 않은 도시이미지를 준다.
- 화려한 타공 패턴으로 자연친화적인 식재와 부조화를 이룬다.
- 수목 생장 크기를 고려하지 않은 덮개가 사용되어 가로수 생장에 방해가 된다.
-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보도블록이 돌출된다.
- 파손된 수목 보호덮개를 방치하여 보행 위험요소로 작용된다.
- 바닥 마감재와 다른 색상을 사용하여 도시품격을 저하시킨다.
- 정교하지 않은 마감 및 유지보수가 어려운 구조이다.

기본방향

- 인접한 가로수 간 디자인 통합계획으로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한다.
-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쾌적성을 강화한다.
-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강화한다.
- 수목의 종류에 따라 덮개의 크기와 내부 지름을 설계한다.



설치**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연속적인 배치 계획**

- 다수 개체를 반복 설치할 경우 가로경관과의 통일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보행자 안전과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수목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접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의 가로수 장애폭 0.9~1.2m, 가로수지지대 장애폭 1.5m를 고려한 배치를 권장한다.

**형태****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적용**

- 과도한 형태 및 패턴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디자인한다.
- 간결한 디자인 계획을 위해 다각형은 지양하며 사각형 혹은 원을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한다.
- 시, 구·군 로고, 상징물, 특산물, 캐릭터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설계**

- 수목 성장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가로수 지지대와 분리 및 결합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상부 마감재에 충분한 두께를 확보하거나 구조재 보강으로 출렁거림을 방지한다.
- 우천 환경을 고려하여 빗물의 투수가 용이한 형태를 한다.
- 배수 관리 및 청소를 위해 쉽게 해체가 가능한 구조를 권장한다.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로 인한 틈 발생 최소화**

- 보행보조기구 및 구두굽이 덮개부 틈에 끼지 않도록 한다.
- 보도 높이와 동일하게 시공하여 장애물로 전락을 막는다.
- 보행약자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어린이 발 혹은 휠체어 이용자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 필수 ○ 권장

1. 식물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조명 설치
2. 시 로고와 홍보문구가 들어간 디자인
3. 분리 및 결합이 용이한 구조 적용

재료

보도와 연속적이며 조화로운 재료 사용

- 보도블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소재 및 무채색 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 파손이 쉬운 내구성이 약한 재료나 고풍택 재료의 사용은 금지한다.
- 보행의 안전을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 생태성이 높은 공간의 경우나 녹지 시설을 필요로 하는 도심공간은 인공적인 디자인보다는 잔디 식재를 통해 가로수와 조화로운 이미지를 유도한다.

색채

보도와 연속적인 색채 사용

- 볼트 및 부속물은 본체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한다.
- 시설 주체, 제작 업체 등의 표기는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보도블록과 유사한 재질 사용
2. 쉽게 파손되는 재질 사용

B5-2. 가로 화분대

정의 및 구성체계 · 소형 관목 및 지피식물에 적합한 생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보행자 이동 동선 내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단절을 유발한다.
- 좁은 보도에 과도한 크기의 가로화분대 설치가 많다.
- 주변 시설물과 다른 색채 사용으로 혼재된 인상을 준다.
- 상징적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주변 환경과 부조화를 이룬다.
- 좁은 간격으로 배치하여 보행약자가 지나가기 어렵다.

기본방향

- 통일되고 주변 시설물과 통합된 디자인으로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 과도한 장식이나 이미지를 적용한 디자인은 금지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사용한다.
- 보행약자 통행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보행동선 내 가로화분대 설치를 금지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구축한다.



설치

가로경관과 조화롭게 설치

- 동일 구역 내 반복 설치할 경우 가로경관의 통일성 및 연결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 및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유효 보행폭을 확보하여 보행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일정한 배치 간격에 따라 설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화분대 간 폭을 1.5m 이상 확보하여 배치한다.



형태

도시품격을 증진하기 위해 간결한 형태 적용

- 광역 차원의 통일된 디자인과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통일성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인다.
- 상징적인 형상은 지양하고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를 고려한다.
- 보행동선을 향한 모서리는 부딪힘 사고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처리한다.
- 구·군 로고와 시설물 제작업체, 각종 도안, 패턴, 문구의 남용을 지양한다.
- 주변 환경 및 설치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벤치 등의 휴게 기능을 통합하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유지관리를 고려한 구조계획

-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외부통과 내부통으로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 이동이 용이하고 물 공급과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로 설계한다.

● 필수 ○권장

1. 가로경관 연속성을 고려한 디자인
2. 간결한 형태 적용
3. 벤치와 가로화분대 기능 통합

재료**내구성을 고려한 소재 사용**

-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부식에 강한 소재를 사용한다.
- 플라스틱 등 인공 재질과 외부 충격에 약한 소재는 지양한다.

색채**인지하기 쉬우며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색채 활용**

- 보행약자 및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보행가로 위 설치된 가로 화분대의 색채는 보도블록과 구분이 용이하고 단일 색채를 사용한다.
- 자연친화적 이미지 조성을 위해 석재, 목재 등 재료 자체의 색채 활용을 권장하며 목재 사용시 방수, 방부, 방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 필수 ○ 권장

1. 인공적인 느낌이 나는 플라스틱 재질 사용
2. 보도와 구분하기 쉬운 색상 적용

B5-3. 분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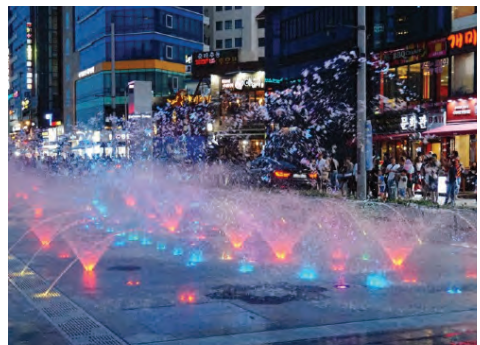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원, 광장 등 집객장소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하게 밝은 조명 사용으로 빛공해가 발생한다.
- 조명 설치 시 과도한 색채 사용으로 도시품격을 저하시킨다.
- 보행로와 분수대 간 단차가 있어 발걸림 사고가 발생한다.
- 고채도 색상을 사용한 조형물로 인해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다.
- 바닥분수는 미끄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바닥 마감재 사용으로 위험한 놀이 시설로 조성되었다.

기본방향

- 도시품격 향상을 위해 통일성 있는 조명디자인을 한다.
- 빛공해 방지를 위해 과도하게 밝지 않은 조명을 설치한다.
- 주변과 조화로운 시설물 설치를 위해 저채도를 적용한다.
- 안전한 놀이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단차 제거 및 미끄럼 방지 바닥 마감재를 사용한다.
- 보행공간 점유를 최소화하고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개방적인 공간으로 디자인한다.



설치

시설물 이용성 증진

- 미끄럼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한 안전시설을 필수적으로 배치한다.
- 야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어린이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광장은 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바닥 분수를 설치한다.
- 보호자가 휴게공간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관찰할 수 있도록 시야를 확보한다.
- 분수조명을 주거지 인근 광장에 설치할 시에는 조도를 낮춰 주민에게 빛 공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치한다.
- 수경시설 설치 시 수질관리를 위한 정수 여과시설을 반드시 함께 설치한다.

형태

주변 시설물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

- 과도한 형태 및 패턴은 지양하고 최소한의 구조로 디자인한다.
- 간결한 디자인 계획을 위해 다각형은 지양하며 사각형 혹은 원을 기본 프레임으로 사용한다.
- 어린이 방문빈도가 높은 분수에는 스팟 조명을 사용한다.
- 공원 내 시설물(벤치, 퍼걸러 등)은 과도하게 장식적인 디자인은 지양하며 분수대와 통일되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미작동 시에도 훌륭한 조형적 가치를 지니게 디자인한다.
- 웅벽이나 단차가 심한 곳에는 벽천 등을 활용한다.
- 벽천이 설치된 광장의 경우 벽천 소음 완화를 위해 광장 외곽에 교목을 식재한다.

● 필수 ○ 권장



1. 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바닥분수 조성
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은은한 조명 사용
3. 어린이 방문빈도가 높은 분수에 스팟조명 적용
3. 단차가 심한 공간에 벽천 형성

모두가 안전한 놀이시설 계획

- 바닥분수 설치 시 어린이 발이 끼는 상황의 방지를 위해 배수구 크기를 필수적으로 조절한다.
- 바닥조명 설치 시 경계석 및 턱을 바닥면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재료

물로 인한 부식 및 안전사고 예방

- 수경시설 주변에는 미끄럼을 최소화하는 마감재료를 사용한다.
- 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 과도한 장식,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색채

안전하며 주변과 조화로운 공간 형성

- 주변과 이질감을 형성하는 채도나 명도가 과도하게 높은 컬러 조명 사용을 지양한다.
- 보행동선과 수경시설이 위치한 동선의 바닥면 컬러 및 재질을 명확하게 분리한다.
- 낙엽이 많이 지는 수종은 배수로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종 선정과 위치 선정시 충분히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원색의 과도한 조명 및 음향이 큰 음악기능의 도입은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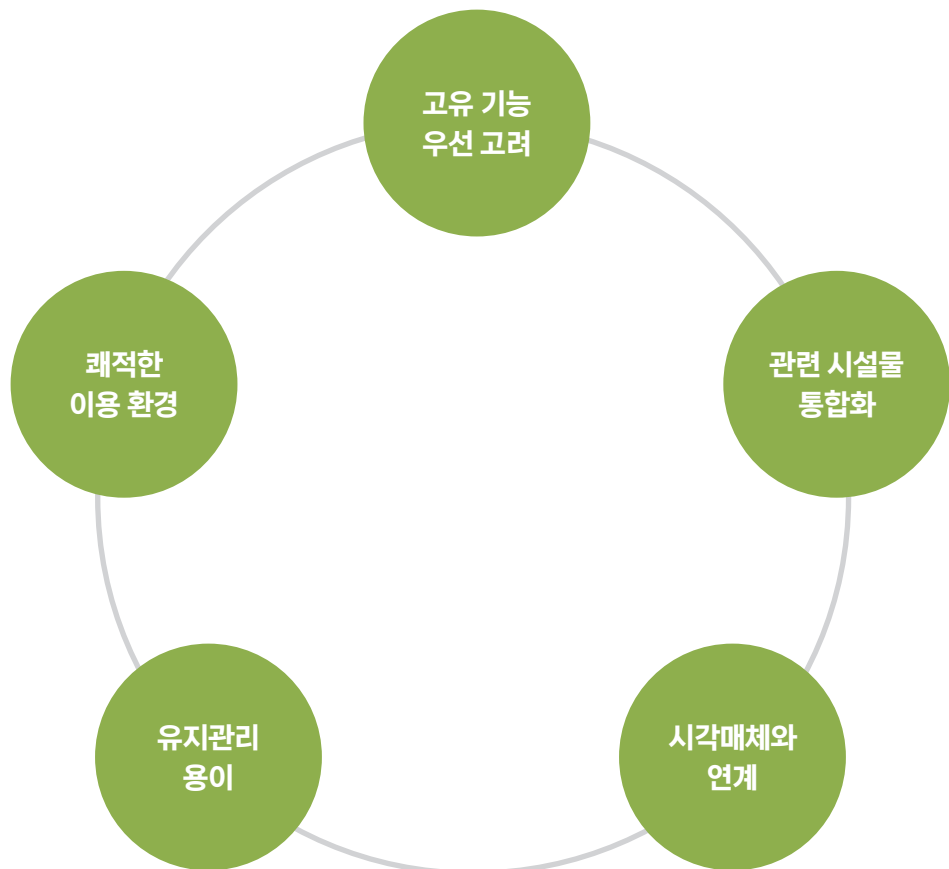
1. 경계석 및 바닥면을 동일하게 설정
2. 고채도의 색상 조명 사용

B6. 공급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특수용도를 가진 시설물인 만큼 고유의 목적 및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디자인하여야 한다.
- 공급시설물은 부피감을 최소로 하며,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를 지양하여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맨홀, 방재시설, 분전함/배전함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B6-1. 맨홀

정의 및 구성체계 · 땅속에 매립된 수도관이나 하수관, 배선을 검사하거나 수리 또는 청소를 위해서 만든 그 구멍과 덮개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맨홀 설치 시 보도블록 접합부의 마감처리가 미흡하다.
- 맨홀 주변 정돈되지 않은 보도블록이 방치되고있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 다른 용도의 시설물과 중첩 설치되어 타 시설물 기능이 저해된다.
- 차도의 맨홀 주변부 아스팔트의 균열, 색 차이 등으로 도로 미관이 저해된다.
- 맨홀 설치 시 주변과 이질감이 드는 재료 및 컬러 사용이 많다.
- 지면과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위협적이다.

기본방향

- 평탄하고 연속적인 가로공간을 위해 맨홀 설치 마감방법 적용한다.
- 보행로 시설물의 기능성을 위한 시설물을 배치한다.
- 맨홀이 설치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보행자를 위한 맨홀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설치**보행자와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성 확보**

-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필수적으로 확보한다.
-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로 덮개의 이탈을 방지한다.

가로공간의 기능성을 고려한 맨홀의 설치

-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과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횡단보도와 같이 페이빙이 있는 가로에는 덮개 개폐 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덮개 상단에는 페이빙 적용을 지양한다.
- 맨홀 덮개 상단을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포장으로 덮는 방식의 설치를 금지한다.
- 차도의 쾌적성과 미관을 위해 맨홀 주변부 아스팔트의 균열 및 요철의 지속적인 관리를 계획한다.

**형태****보행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

- 보행자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맨홀 덮개 상부의 요철이 있는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다.
- 평탄한 보도 조성 및 단차 발생 방지를 위해 맨홀 설치 시 보도블록과 맨홀 간의 틈을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보도면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맨홀의 형태와 통일된 판형으로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점자블록과 중첩된 맨홀
2. 아스팔트로 상단을 덮은 맨홀
3. 요철이 있는 패턴 디자인이 적용된 맨홀 덮개

관광지 특색을 드러내는 디자인

-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는 상징성이 드러나는 덮개 상단부 디자인 적용한다.
- 맨홀 덮개에는 평면적 그래픽이 아닌 음양각을 이용한 입체적 디자인을 연출한다.



재료

가로공간과 조화로운 맨홀디자인

- 차도용 맨홀은 내구성이 강한 주철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 보도용 맨홀의 경우는 구조체는 주철을 사용하고 뚜껑 상부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재를 적용한다.
- 주재료와 보조재료를 포함한 재료사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색채

가로공간과 조화로운 맨홀디자인

- 맨홀 덮개의 재료와 조화롭지 않거나 주변의 공공공간과 무관한 표면의 도색을 금지한다. (단, 지하식소화전 맨홀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정해진 표식을 할 수 있다.)
- 우수, 오수 구분을 위한 정보나 시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정보 외에는 장식적 개념의 그래픽이나 정보를 삽입하지 않는다.



● 필수 ○ 권장

1. 관광지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덮개 디자인
2. 음양각을 이용한 입체적 디자인
3. 지하식소화전 맨홀에 불법 주정차 방지 표시

B6-2. 방재시설

정의 및 구성체계

- 방재시설이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제설함, 지상식소화전, 옥외소화전 등이 포함된다.

현황 및 문제점

- 제설함의 경우 내구성이 약한 재료의 사용으로 파손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렵다.
-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 및 재질로 인해 미관을 저해한다.
-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설치 위치가 불규칙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차량운전자의 동선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 방재시설 주변 환경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사용 시 불편함을 초래한다.
- 야간에 식별성이 부족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방향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주변환경을 관리정비하여 시설물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 보행자 및 자전거 운전자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로우며, 쉽게 인지 가능하도록 디자인한다.
-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설치

동선 단절이 되지 않는 공간 내 설치

-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공지, 공원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설치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방재시설의 위치가 인지될 수 있는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한다.
- 제설함은 교통량 집중 구역, 사고 다발지역을 고려하여 설치수량과 위치를 결정한다.
-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형태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쓰레기 적치가 불가능하도록 덮개 부위를 곡면으로 처리한다.
-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디자인한다.
- 고정시설물이 아닌 이동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설물을 알리는 문구와 픽토그램 이외 장식적 요소의 표기는 금지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사용 가능하도록, 간결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개방적인 공간에 설치된 소화시설
2. 파손되어 시설물 내부로 우수가 침투할 수 있는 제설함

B6-3. 분전함/배전함

정의 및 구성체계

- 배전함이란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박스(Box)형태의 전력관리 시설물을 말하며 내부에 설치된 배전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과도한 크기로 보도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된다.
- 기능적 시설물이지만, 전단지 등 부착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산만한 주변 환경을 형성한다.
- 특화거리, 지자체별 지나치게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래픽 요소 적용으로 미관을 저해한다.
- 시설물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받침대가 돌출되어 있어 보행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방향

-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른시설물과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무채색의 단색 사용을 권장한다.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하며, 크기를 최소화한다.
- 색채 도안이나 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은 지양한다.
- 보행 위험요인으로 작용되는 돌출된 콘크리트 받침대는 지양한다.



설치

보행자 안전성 확보

- 배전함 및 분전함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받침대의 노출을 지양하고,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배전함과 받침대의 너비를 일치시켜 미관이나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설치한다.
- 배전함의 위치 선정 시 보행공간을 점유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주변 공간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공개공지, 공원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 위치를 결정한다.

인근 시설물과 통합설치

- 보행자의 동선과 가로환경을 고려하여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배전함 주위의 펜스 설치를 지양하고, 배전함의 위치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설치한다.
- 벤치, 갤러리, 안내사인 등 기능과 통합하여 설치하며, 필요 시간점조명을 함께 디자인하여 거리가 활기차고 영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형태

보행자를 배려하는 디자인 적용

- 가로공간 개방성을 형성하기 위해 배전함이나 분전함 형태는 기능성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부피감과 설치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간결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배전함이나 분전함 형태는 지역을 상징하는 동식물 등과 같은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하여 디자인하지 않는다.
- 시각적으로 안전하게 보이고 보행을 위협하지 않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필수 ○권장



1. 보행안내표지판과 융합 적용된 분전함
2. 갤러리와 기능 통합
3. 부피감을 최소화 한 분전함

안전을 우선으로 디자인

- 모서리 등의 마감부위가 날카롭지 않고 모서리 부분이 어린이나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와 일치하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 보행자 및 운전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과도한 그래픽 요소나 장식적인 도안은 금지한다.

재료

주변환경과 조화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원색 또는 고채도의 사용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배전함 및 분전함은 스틸을 주재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스틸의 표면에는 차량 충돌과 같은 외부 충격에 강하고, 먼지 제거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불법광고물 및 장식물 부착을 금지하고, 패턴 또는 특정 이미지를 형상화한 슈퍼그래픽, 공공미술 등을 적용하지 않는다.
- 배전함 및 분전함 표면에는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재료의 사용이나 후처리 가공을 권장한다.

관광지 특색을 드러내는 디자인

- 부산 내 주요 관광지에는 상징성이 드러나는 디자인 적용 시 무채색의 표면은 유지한다.
- 관광지를 홍보하는 실사 이미지를 지양하며, 바탕색을 포함한 2~3가지의 컬러를 적용한 심플한 디자인을 사용한다.
- 특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배전함 및 분전함에 부여되는 정보(권역 표시, 고유관리코드 등)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 필수 ○ 권장



1. 모서리가 날카로워 안전사고 우려
2. 저채도 컬러를 바탕으로 디자인
3. 관광지를 홍보하는 실사이미지가 적용된 디자인

재료

주변환경과 조화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제설함이나 옥외소화전의 재료는 미관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 고광택 스테인리스 스틸의 사용을 지양하고, 부득이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 면적을 최소화하고, 반광택 또는 무광택으로 표면을 처리한다.
- 방재시설임을 상징하면서 주·야간 주변 환경 대비 시인성 높은 색채를 사용한다.
- 외부 충격 및 부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안내를 위한 안내시설물 및 시각안내 시설물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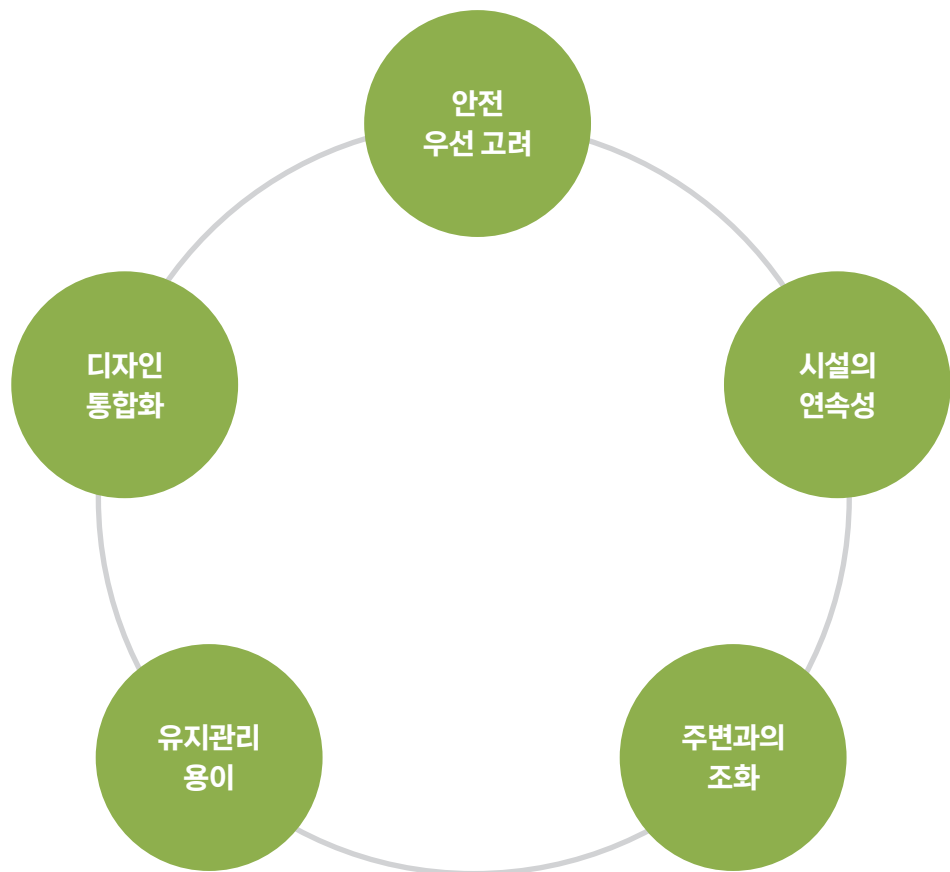
1. 시인성이 좋은 색채 적용
2. 주정차 금지를 안내하는 사인물 설치

B7. 범죄 및 안전시설물

정의 및 구성체계

- 범죄와 관련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특정 유형의 범죄를 예방하고 저감시키는 맞춤형 디자인 전략을 통해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예방하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기법을 적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범죄 예방 환경디자인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CCTV, 보안등, 비상벨, 틸새공간 안전장치 등 4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 중점방향



B7-1. CC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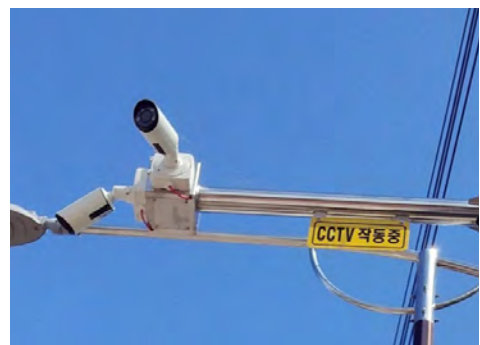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행동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용 감시기계로 감시영역 강화를 통해 범죄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범행 욕구를 저지하는 안전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다수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로수 등과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어 기능의 효용성이 부족하다.
- 독립 지주형태로 쓰레기 투척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도시 미관이 훼손된다.
- 고광택 금속재료의 사용으로 주변과 부조화를 이룬다.
- CCTV 지주의 지면부 결합부위가 돌출되어 있어 안전성 및 심미성이 부족하다.
-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사업이 진행된 일부 지역은 비상벨 등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기본방향

-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다른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 이용자의 시야 확보를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유지관리를 고려한 금속재 또는 친환경재료를 사용한다.
- 최소한의 색채를 사용한다.



설치

통합화로 시설물 효용성 강화

- CCTV 디자인 시 관리기관인 경찰청 및 관제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 기초 결합부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지면 밑으로 매립하며, 지면 위로 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캡 등을 사용하여 지면 결합 부위를 미려하게 마감 처리한다.
-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부착 시설물(보행자 작동 신호기, 안내표지 등)은 등주와 일체감을 주도록 설치한다.
- 범죄의 발생빈도, 불안감, 동선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 교차점이나 코너, 막다른 골목 등과 같이 시선 연결이 차단되는 지점에는 반사경을 함께 설치하여 자연감시 사각지대의 발생을 방지한다.
-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내표지, 비상벨, 조명, 색채 등을 연계하여 계획한다.
- 단독 지주 설치를 지양하고, 다른 시설물(예 : 신호등, 비상벨)과 통합 설치한다.
- CCTV 기능의 효용성을 위해 가로등과의 연계성을 검토 후 위치를 설정하고, 빛이 닿는 범위를 겹치도록 설정하여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시야각에 방해가 되는 배너걸이의 설치는 지양한다.

형태

필수기능 외 장식적 요소 부착 금지

- 용도에 부적합하고 과도한 형태의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며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자연물, 상징요소를 모방한 형상, 패턴의 사용은 지양한다.
-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하고 문자나 시 상징요소, 관리 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 요소의 표기 남용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신호등과 통합 설치된 CCTV
2. 사각지대의 경우 반사경을 함께 설치
3. 과도하게 장식적인 지주 디자인

재료 및 색채

CCTV와 지주가 일체감 있도록 유사한 색채 적용

- 지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의 색상을 적용하며, CCTV는 시인성 및 주목성을 위해 고명도의 색채를 적용한다.
- CCTV가 설치되는 지주는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CCTV 지주는 고광택의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가공을 한다.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을 한다.
- 지주에는 2m 이상의 광고물 부착방지도료를 적용하여 CCTV 시인성을 높인다.



● 필수 ○ 권장

1. 지주에 저채도, 저명도 색상 적용

B7-2. 보안등

정의 및 구성체계

- 12m미만의 도로폭에 설치한 도로조명시설로 주로 소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 보행 취약 지역에 설치하여 야간 통행의 보행안전 확보 및 민생치안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지나친 소형 및 지방자치단체 상징물 등이 과도하게 적용되어있다.
- 인근 시설물과 다른 디자인 및 색채 적용으로 시각적 혼란을 야기하고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적절한 조도 확보가 되지 않아 시설물 효용성이 저하된다.
- 지상으로 돌출되어 있는 결합 부위로 보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기본방향

-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 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전선 등 위험요소 노출을 금지한다.
- 공간에 적절한 조도 확보 및 에너지 절약형 등주를 사용한다.



설치

적절한 조도 확보

- 기타 설치 및 기준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과 <부산광역시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른다.
- 보안등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 조명시설은 전방과 주변 시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확보한다.
-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다수 설치하여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 주택가 골목 등의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조도를 갖는 보안등을 설치한다.
- 지면에 고정되는 하부구조는 미관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정 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구조적 결합 부위에 대해 마감을 미려하게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접 접합은 지양하며, 볼트를 사용한 분리 가능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담장 등의 빛을 막는 요소가 없도록 한다.
 - 조명 주위에 나무를 식재 할 경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정기적인 확인과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필수 ○ 권장

1. 적절한 조도 확보
2. 분리 가능한 디자인 적용

형태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보안등은 장식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를 권장한다.
- 설치하는 공간의 포장재 훼손을 최소화하여,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 보안등에 부여되는 정보(고유관리코드 등)를 표시할 공간을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변경이 가능한 구조로 디자인한다.



재료 및 색채

주변환경과 조화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 기본적으로 등주는 금속재 또는 친환경재료(목재 등)를 사용하며, 금속재의 경우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 고광택 재질사용을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택을 줄이는 표면 가공방법으로 디자인한다.
- 금속재는 분체도장을 권장하며,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에 대한 선 가공을 한다.
-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저채도, 저명도의 무채색 계열을 적용한다.
- 폴, 암, 조명기구 헤드 등은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알록달록하고 현란한 자극적인 색채 및 빛 연출을 금지하며, 반복적인 점멸 기능을 지양한다.
- 목재 사용 시 목재부에 방부처리를 하며, 페인트 도장은 지양하며, 목재부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보호대 설치 대신 도색을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1. 간결한 디자인 적용
2. 금속재에 분체도장 처리
3. 각 구성요소의 색채가 통일되지 않은 디자인

B7-3. 비상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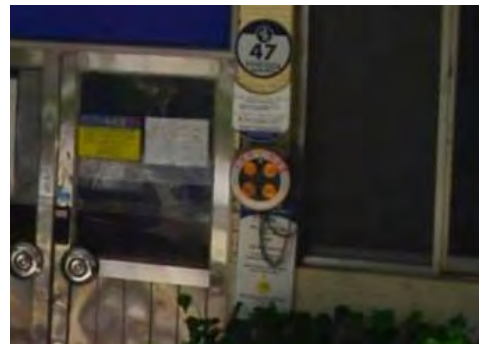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설치해 둔 벨이나 경보장치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경찰청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다수 설치하여 디자인 상이하다.
- 옐로 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통일성 결여되어 있다.
- 안심존 표지판이 함께 디자인되어 있지만, 비상벨의 인지성이 부족하다.
- 관리되고 있지 않은 주변 환경으로 시설물 사용성이 저감된다.

기본방향

-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단순하고 신뢰성있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안전시설물임을 인지 할 수 있는 인지 컬러 디자인을 적용한다.
- 유지관리 용이한 내구성있는 소재 및 신기술을 적용한다.
- 타 시설물과 통합 디자인으로 인지성 및 사용성을 강화한다.



설치

위급시 즉각적 사용을 위한 인지성

- 보행자가 위급 시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위치, 번호 등을 표기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사각지대와 인적이 드문 골목 등에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한다.
-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위치를 공지하는 표지판을 명료하게 설치하여 위급 시 사용 효용성을 높인다.
- 설치 시 사용자들을 고려하여, 지면에서 1~1.2m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며, 설치할 장소를 주로 이용하는 사용자(노인, 어린이 등)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형태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비상벨 모듈을 간결하게 제작하며, 장식적인 디자인을 지양하고, 기능성 중심의 간결한 형태를 적용한다.
- 지역의 상징적 아이콘을 적용할 경우 비상벨의 형태에 변형을 주지 않도록 한다.



재료 및 색채

부산시 안전인지 컬러 적용

- 비상벨을 쉽게 인식 가능한 색상 사용 및 안내시스템을 적용한다.
- 야간 시인성과 주목성을 위해 고명도, 고채도의 단색을 적용한다.
-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높은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 내수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눈이나 비로 인해 고장이 나는 일을 방지한다.



● 필수 ○ 권장

1. 위치를 표시한 안내사인을 함께 설치
2. 기능 중심의 간결한 형태의 비상벨 디자인
3. 야간 시인성을 위한 고명도 및 고채도 적용

B7-4. 틈새공간 안전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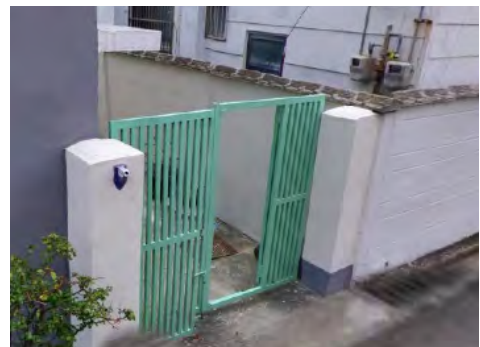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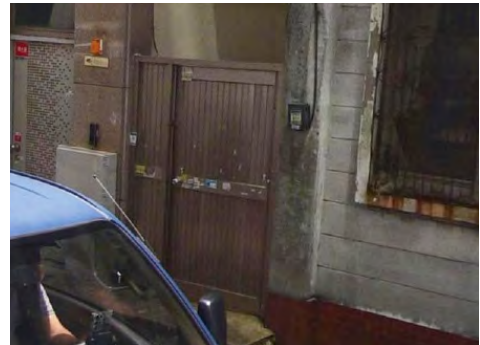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범죄의 표적이 되는 공가의 출입을 막기 위한 장치로 범죄취약공간에 설치함으로써 영역성 강화 및 접근통제로 범행 욕구를 저기하는 안전시설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이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
- 사이공간을 활용하여 가스통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이 존재한다.
- 사이공간의 쓰레기 등의 방치로 위생적이지 못하다.
- 막혀있는 협소한 골목으로 불안감을 초래한다.
- 대부분 노후주거지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기본방향

-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은 물리적으로는 차폐하되 시각적인 차폐는 금지한다.
-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경광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다.
- 장난 등으로 인한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규제가 필요하다.
- 최대한 보행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설치

범죄 취약지역에 설치

- 막혀있는 협소한 골목 및 관리가 되지 않는 방치되고 있는 공간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간에 설치한다.
- 사각지대 등 범죄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며, 벽면 현황을 고려하여 지지할 수 있는 고정부위 및 전용면적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건물과 건물사이 협소한 공간에 설치할 경우 내부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이 관리가 가능토록 디자인한다.
- 잠금장치는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고리부분에 연철을 사용하여 잠금장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형태

기능 위주로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사람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를 적용하며, 투시형 개방형태로 디자인한다.
- 틈새공간 안내장치는 진입금지 등의 안내사인이나 관리번호를 함께 설치하여 공간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한다.



재료 및 색채

주변과 조화로운 색상 및 견고한 소재

-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지역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색상을 적용하여 역으로 범죄의 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틈새공간 안전장치는 안전시설물로 2가지 이상의 색상 사용을 지양하며, 화려한 패턴의 디자인을 금지한다.
- 견고한 소재로 적용하여 기후변화 및 외부압력에 쉽게 변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필수 ○ 권장

1. 잠금장치가 설치된 틈새공간 안전장치
2. 투시형 개방형태로 디자인된 틈새공간 안전장치

공공건축물

PART.3

공공건축물 기본방향 및 목표	238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원칙	239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47
행정 가이드라인	249
문화 가이드라인	256
복지 가이드라인	267
교육연구 가이드라인	278

공공건축물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공공의 역할과 행정의 신뢰성을 부각하며, 공공건축물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하여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함이다.

부산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조성 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을 설정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목표



부산다운 건축

과도한 조형미를 지양하며 주변과 조화로운 건축물

품격있는 공공

품격있고 신뢰도 있는 정돈된 건축물

안전한 건축

재난 등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

쉬운 이용 건축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건축물

친환경 건축

효율적 유지를 고려한 자연친화적 건축물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원칙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7원칙

1

부산 정체성을 부여하며
주변과 조화롭게 디자인한다

2

문화적 포용성을 고려하여
신뢰도 높은 디자인을 한다

3

안전 및 재난을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우선하여 계획한다

4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계획하여
보행연계성을 강화한다

5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FREE)로 설계한다

6

자연친화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해
충분한 녹지율·녹시율을 확보한다

7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게 계획한다

① 부산의 정체성과 주변과 조화로운 디자인

○ 권장

- 권위적인 담장을 허물고 시민의 공공적 사용과 커뮤니티 활동을 돕는 열린 디자인을 지향한다.
- 건축물 입면은 분절하여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역동성있는 건축물로 조성한다.
- 주변 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하거나 시각 통로를 확보한다.
- 부산시의 역사성과 장소의 기억, 주변과 조화로운 정체성을 부각한다.
-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함께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지양

- 관습화된 유사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건축 형태를 금지한다.
- 과도한 형태, 색채 등으로 주변과 부조화스러운 건축물 디자인은 지양한다.
-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디자인은 지양한다.
-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 디자인을 금지한다.



② 문화적 포용성과 신뢰도 높은 디자인

○

권장

- 획일적인 공공건축물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다양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추구한다.
- 공공공간의 시설물은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를 최소화한다.
- 과장된 디자인을 지양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와 외관으로 디자인한다.
- 건축물 경계부는 개방형 공원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여 시민의 접근이 자유로운 건축물 디자인을 권장한다.
- 쾌적하고 개방감이 느껴지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문화활동을 유도한다.



×

지양

- 위계가 느껴지는 외관의 계단, 캐노피 설치하는 지양한다.
- 단순 기능 위주로 계획하거나 환경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계획은 지양한다.
- 시민의 활동 중심이 아닌 관리 위주의 계획은 지양한다
- 보행자의 접근에 불편을 초래하는 건축물 전면 주차장 계획을 지양한다.



③ 안전 및 재난을 대비하여 안전시설 우선 디자인

○

권장

-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이미지를 부여하며, 심리적·시각적으로 확장·개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재난에 대비하여 주목성이 국제표준 픽토그램 및 인지 컬러계획으로 누구나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우범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개방된 내·외부 공간을 계획하며, 시설 안내 사인을 계획하여 영역성을 확대한다.
-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역성 확보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빠른 대응이 가능한 안전시설물을 필수로 설치한다.
- 안전 및 재난 대비시설물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권장한다.



×

지양

- 위급시 시각적 혼돈을 초래하는 과도한 색채 및 패턴 사용을 지양한다.
- 자연적 감시가 되지 않아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공간계획은 금지한다.
- 진출입로 및 휴게공간 등에는 수종의 높이가 큰 식재의 사용은 지양한다.
- 주거지 내에 위치한 공공건축물의 지나친 야간 경관 조명을 금지한다.



4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계획하여 보행 연계성 확보



권장

- 공공건축물의 전면 진입 외부 공간은 도심형 공원, 광장 등으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이용자의 보행동선을 배려하고 보행권을 우선하는 건축물 진입부를 계획한다.
- 쾌적하고 도심 개방감을 확보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지형에 순응하는 배치계획과 가로 연접부 건축 프로그램을 통해 가로를 활성화 한다.
- 녹지공간, 수공간, 휴게공간 등을 적극 권장하며 시민을 위한 친화적 공간을 제공한다.



지양

- 지역 주민의 통행을 단절하는 공공건축물 계획을 금지한다.
-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주는 옹벽·담장 및 펜스 설치를 제한하고 자연 지형을 존중한다.



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Free) 디자인

○ 권장

-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과 장애가 없는 디자인(Barrier-Free)을 필수적으로 적용한다.
- 교통약자를 배려하며 시민의 보행권을 우선으로 동선을 계획한다.
-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이 충분히 보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양

- 지역 주민의 통행을 단절하는 공공건축물 계획을 금지한다.
- 불필요하게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담장 설치 지양한다.
- 보행공간은 장애가 없는 디자인(Barrier-Free)에서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급격한 단차는 금지한다.
- 노약자, 유모차,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한 계획은 금지한다.



⑥ 자연친화 도시 이미지 형성을 위한 디자인

○ 권장

- 건축물 벽면 녹화 등을 적극 권장하여 친환경 · 녹색 건축물로 계획한다.
-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식생으로 녹화계획을 하며 녹지율과 녹시율을 높인다.
- 공공건축물 외부 공간은 시민 휴게 위주의 도심형 공원으로 디자인할 것을 권장한다.
- 공해와 오염에 강한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한다.



✕ 지양

- 삭막한 도시이미지를 줄 수 있는 옹벽 · 담장의 설치 지양한다.
- 방음벽의 무분별한 설치 지양한다.



7 사회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0 권장

- 개발 및 성장 위주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친환경, 고효율의 미래지향적 환경을 조성한다.
- 탄소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건축형태(패시브 건축)를 권장한다.
- 동·식물 서식 생태공간 및 친수공간 조성과 빗물 재활용 방안 수립 등을 권장한다.
- 내구성 있고 관리, 보수, 교체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한다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적용대상

공공건축물의 유형은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과 복지 관련 건축물,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건축물, 환경 및 위생 관련 건축물, 의료 관련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으로 구분된다.

공공건축물은 「건축법」과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의 내용을 준용하며 공공건축물 디자인의 원칙적 측면을 다룬다.

구체적 사안별 적용의 수준과 예외사항 처리 등은 관련 법에 의거한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능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행정건축물 2종, 문화 관련 건축물 3종, 복지 관련 건축물 3종, 교육 및 연구 관련 건축물 2종, 기타 건축물 1종으로 총 10개로 구성한다.

중분류	코드	소분류	심의대상	페이지번호
행정	C1-1	공공청사	심의대상	p.250
	C1-2	행정복지센터	심의대상	p.253
문화	C2-1	박물관	심의대상	p.257
	C2-2	공연장	심의대상	p.261
	C2-3	근대건축물	-	p.264
복지	C3-1	노인복지시설	심의대상	p.268
	C3-2	장애인복지시설	심의대상	p.272
	C3-3	보건소	심의대상	p.275
교육연구	C4-1	공공도서관	심의대상	p.279
	C4-2	교육시설	-	p.282

관련 법규사항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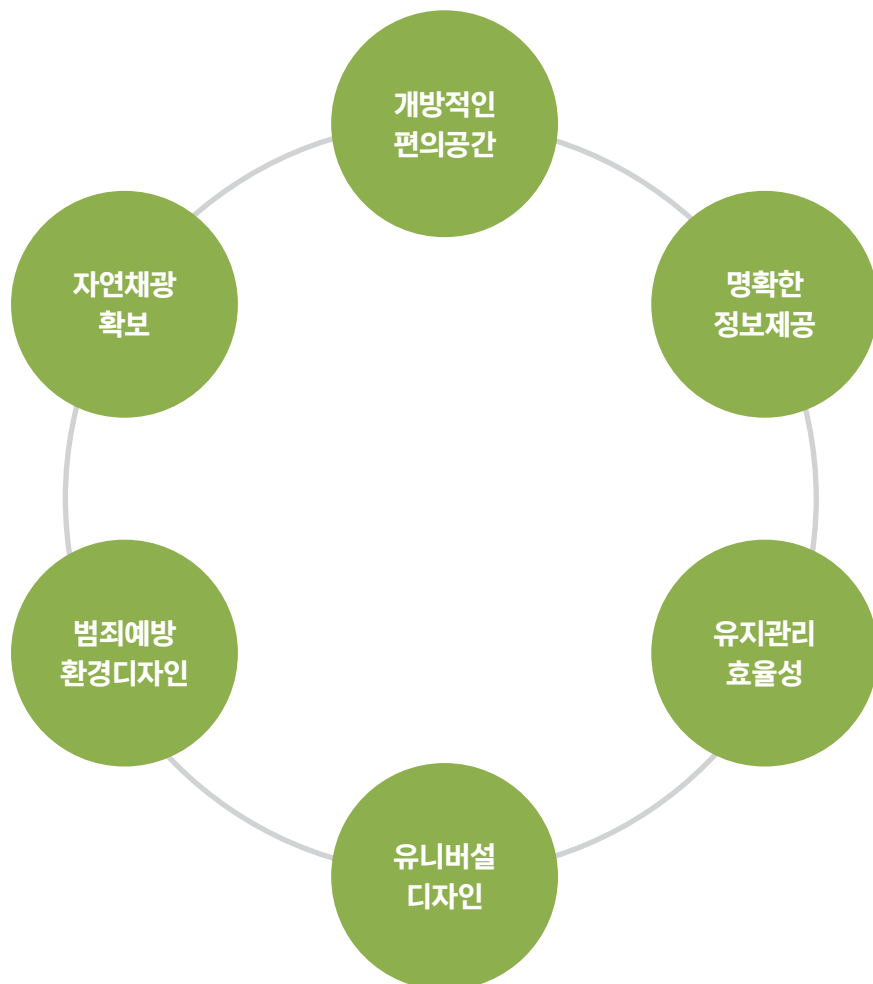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행정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 2023)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국토교통부, 2023) 공공청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안내책자(행정안전부, 2018)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문화	박물관 공연장 근대건축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 2023)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국토교통부, 202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복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 2023)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국토교통부, 202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교육 연구	공공도서관 교육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 2023) 보행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국토교통부, 2023)	부산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2023)

C1. 행정

정의 및 구성체계

- 자치구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거나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및 그와 연계된 외부공간을 지칭하며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청사, 행정복지센터로 구분한다.
- 특히, 행정건축물은 권위적이고 장식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부산다움의 품격을 고려하여 건축물 설계 시 세부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최소한의 방향성과 주변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중점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C1-1. 공공청사

정의 및 구성체계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원도심의 경우 좁은 골목 및 고가도로 등 도시구조물로 인해 외부 인지성이 낮고 식재 및 담장으로 인해 차폐되어 개방감이 부족하다.
- 획일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의 재료 사용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롭지 않으며 단조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 리모델링 시 고채도, 고명도 컬러를 적용한 페인팅으로 산만하고 현란한 경관을 형성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혼재로 보행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몇몇 행정건축물은 전면 주차공간과 함께 방문객이 휴식할 수 있는 열린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협소한 면적으로 활용성이 저하된다.

기본방향

-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개방적인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가능한 공공공간을 조성한다.
- 자연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위해 사계절이 느껴지는 녹지공간을 형성하여 녹지율 및 녹시율을 높인다.
- 대형 규모의 주차공간은 보행자와 차량을 분리하여 보행약자 등 안전성을 확보한다.
- 방음벽, 펜스, 담장 등 차폐적 요소 사용을 금지한다.
-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 계획한다.
-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한 체계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지

접근성을 고려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

- 대중교통 및 도보로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 위치하도록 한다.
- 보행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주차장 계획 시 방문객 전용 주차장을 주출입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조성한다.
- 대지 경계부에는 차폐성 있는 높은 담장이나 과도한 식재를 지양하고 키 낮은 조경 식재 등을 활용하여 개방된 시야를 확보한다.
- 주·야간 모두 주차장과 통로의 조도 유지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시민과 공무원을 위한 옥외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하며 보행 접근로와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개방된 열린공간으로 조성한다.



건물

무장애 공간으로 계획하여 이용 편의성 강화

- 이용자 편의를 우선 고려하여 민원 업무시설의 위치 및 내부 동선 등을 계획한다.
-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도입하여 청사 내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보행약자의 이동성을 보장한다.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 조성

- 과도한 형태의 캐노피나 계단식 출입구 설치를 지양한다.
- 권위적 이미지의 대칭적 디자인 및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의 외장 재료 사용을 금지한다.
- 출입구에 과도한 광고 게시물 부착과 시설물 배치를 지양한다.



친환경적인 건축물 구축

- 태양광 집열판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는 지붕이나 입면에 일체형으로 설치한다.
- 탄소 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패시브 건축 형태를 고려한다.

● 필수 ○ 권장

1.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
2. 무장애 설계를 적용한 공공청사 진입부
3.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집열판 설치

시설물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분위기 형성

-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전면부에 휴식시설, 편의시설을 배치하여 인지성을 강화한다.
- 자전거보관대, 주차부스, 안내표지판 등은 건축물과 조화로운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다.
- 건축물의 미관을 저해하는 설비시설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노출되는 경우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범죄예방기법 적용

- 접근로, 휴게공간 등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활동을 도모한다.
-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하고, 피난대피도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정보전달 및 영역성을 강화한다.
- 피난대피도는 코팅처리한 종이, 아크릴, 강판 등으로 제작하며, 계단, 비상구, 피난 동선 등을 명확하게 디자인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자연 감시가 불가한 공간에는 비상벨과 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최소화한다.
- 재난을 대비하여 피난대피동선을 계획하며, 누구나 인지가 가능한 픽토그램 및 인지컬러를 적용한다.
- 대피안내사인에는 화재 시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표기한다.
- 피난대피동선은 단순 페인트 사용은 지양하며,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UV특수재질 등을 사용하여 피난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함께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건축물 전면부에 휴식시설 확충
2. 적절한 야간조도를 확보한 공공청사 진입부
3. UV특수재질을 활용하여 피난대피동선 표기

C1-2. 행정복지센터

정의 및 구성체계 · 동 단위의 행정 사무기관으로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부가적으로 문화·복지기능을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행정복지센터 전면부 과도한 식재로 인해 차폐된 인상을 연출한다.
- 주요 출입로 내 단차 및 계단이 형성되어 보행·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장소가 조성된다.
- 보행약자의 방문을 고려한 슬로프, 턱낮춤, 안전 난간 등 시설물이 구축되지 않아 발걸림 사고를 유발한다.
- 출입구 전면에 주차공간이 구축되어 진출입로를 인식하기 어려운 공공건축물을 형성한다.
- 친근한 이미지로 내부를 조성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축한다.

기본방향

- 차폐된 요소 없이 개방적인 출입로를 형성한다.
-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약자, 노약자 등 누구나 방문하기 쉬운 행정복지센터를 조성한다.
- 행정복지센터 내·외부를 주민에게 친숙하게 조성한다.



대지

방문하기 편리한 공공건축물 구축

- 대중교통과 거리가 200m 이내인 장소에 계획한다.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 진출입은 주접근로에서 차량 진출입은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협소한 대지 내에 행정복지센터를 계획할 경우 경계부에 높은 담장 및 식재 등 설치를 지양하고 건물의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한다.
- 건물 전면부는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여 보행자 접근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전면 주차장 구획이 불가피한 경우 보행로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면공지의 바닥 패턴과 색채는 저채도·중명도로 하되, 인접 보도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포켓공원 등 주민 휴게를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건물

보행약자 등 누구나 보행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보행로에는 담장, 화단 등 보행을 방해하는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한다.
- 건축물 진입부는 단차가 없거나 되도록 낮은 단차로 조성하여 경사로 설치 길이를 최소화한다.
- 주요 진입로에 시각약자를 위한 점자블록 설치를 의무화한다.
- 보행을 방해하는 저층부의 돌출 부스형 증축을 지양한다.
- 내부와 외부를 공간별로 배분할 시 이용자의 동선과 편리성을 고려한다.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분리
2. 담장과 높은 식재로 인해 개방감 부족
3. 진입부 단차로 인해 길이가 긴 경사로 구축
4. 주요 진입동선에 점자블록 설치

● 필수 ○ 권장

조화성을 강화하는 건축물 디자인 적용

- 과도하게 장식적인 입면 디자인이나 공공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직설적인 입면 디자인을 금지한다.
- 개방감 확보를 위해 통유리 등 자연채광과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민원업무 공간 외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쾌적한 공간 창출을 위해 원도심 지역 내 노후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한다.



시설물

쾌적한 공공공간을 위한 개별 시설물 통합 정비

- 현수막 또는 홍보물 부착을 위한 장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장소는 공익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지양한다.
- 안전 시설물은 건축물과 통합적으로 구성되도록 계획한다.
- 유모차 보관소는 접근하기 쉬운 1층에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안내시설물 확충으로 이용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하고, 피난대피도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정보전달 및 영역성을 강화한다.
- 피난대피도에는 코팅처리한 종이, 아크릴, 강판 등으로 제작하며, 계단, 비상구, 피난동선 등 간략하고 명확하게 디자인하여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 재난을 대비하여 피난 대피동선을 계획하며, 응급시 누구나 인지 가능한 픽토그램 및 인지컬러를 적용한다.
- 대피동선은 단순 페인트는 지양하며,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가능하도록 UV특수재질을 사용하여 피난방향 화살표를 디자인한다.
- 피난 안내도에는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등을 필수로 표기한다.
- 바닥 웨이파인딩(Way finding)을 통해 실내공간 인지성을 강화한다.
- 업무공간의 개방성을 강조하여 유리파티션 사용을 권장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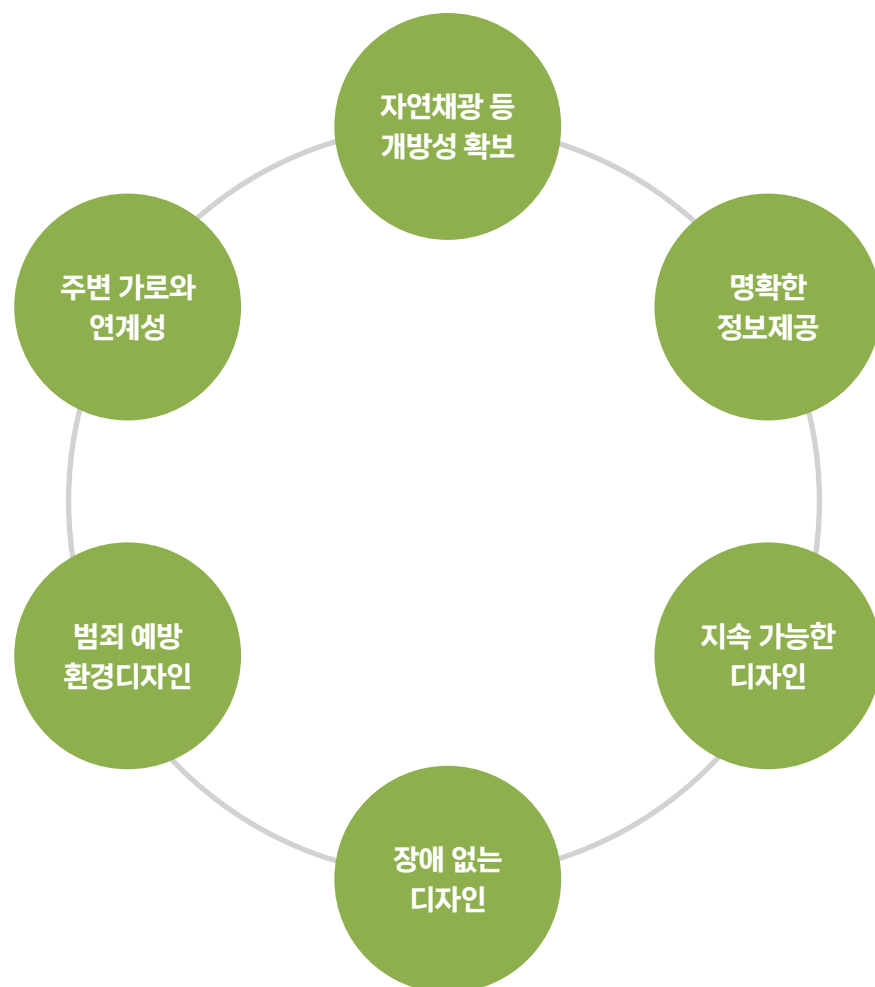
1.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2. 지정된 홍보게시판 내 홍보물 부착
3. 바닥 웨이파인딩 기법 적용

C2. 문화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 본 가이드라인 적용되는 문화건축물은 박물관, 공연장, 근대건축물로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C2-1.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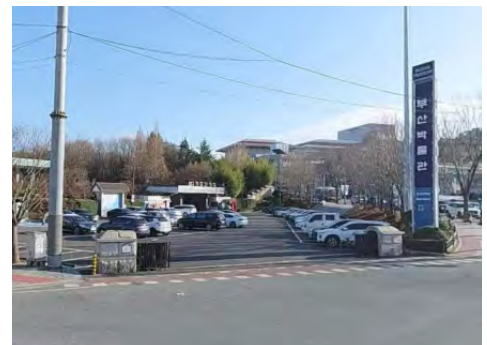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학술적 자료를 모아 보관 및 진열하여 관중에게 전람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보행 이동을 위한 슬로프가 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경사도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
- 대부분 외부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열린 공간으로 되어있으나 공간의 활용도가 부족하다.
- 도로에서 이격 배치되어 있으나, 수목 등의 관리 부족으로 차폐된 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다.
- 차량 동선만 고려한 주 진입로로 인해 보행 접근성이 저하된다.
- 명확하게 인식되지 않는 진출입구로 인해 방문하기 어렵고 권위적인 공간 이미지를 준다.
- 주변 도로 및 자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
-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기본방향

- 진출입구 인지성을 강화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디자인 한다.
- 보행약자에 맞는 경사로 계획 및 엘리베이터로 누구나 접근가능한 디자인을 한다.
-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조성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을 구축한다.
- 주변 자원 및 연결도로와 보행 연계성을 강화한다.
- 보행·차량 동선 분리를 통해 안전한 진입부를 형성한다.



대지

차량 방문이 많은 공간 특성을 고려한 구조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계획한다.
- 원활한 공간 이용을 위해 일반 차량과 전시물을 이동하는 화물차량 동선을 구분한다.
- 도로 폭이 협소하여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연접한 건축물의 경우 도로연접부에 보도를 확보한다.

주변 자원과 연계한 보행로 조성

- 연속성 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이 인접하게 위치할 경우 건물 외부공간과 보행 동선을 연계한다.
- 공공건축물 전면공지 내 턱 설치의 지양하고, 보행가도와 연접한 전면 공지는 보행가도를 포함한 경사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대규모 필지 개발을 통하여 단지 및 건물을 조성할 시 주변의 기존 보행로와 연결되는 보행로를 구축한다.
- 개방감 있는 시설 연출을 위해 건축물 계획 시 주요 도로 보도와 이격하여 배치한다.
- 다양한 외부 전시가 가능한 옥외공간을 구축하고 편리한 외부 관람을 위해 쉼터 및 캐노피 설치를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
2. 건물 외부공간과 광장을 연결한 보행로로 연계성 강화
3. 다양한 외부 전시가 가능한 옥외공간 구축

건물

특색있는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축물 계획

- 기본적인 설비시설은 건물 계획 시 건물 입면과 통합하여 일체감 있도록 계획한다.
- 전시물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입면 디자인을 계획한다.
- 주변 건물 크기가 뚜렷하게 일정한 지역에 대형 건물을 조성할 경우, 기존 건물 규모와 최대한 조화되는 입면을 계획한다.
- 주거지와 인접한 건축물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적용한다.
- 주 보행로와 건물 주 출입구 사이 옥외주차장 설치의 지양하며, 지하주차장 및 건물 후면 옥외주차장을 조성한다.
- 옥외주차장은 아스팔트, 시멘트, 보도블록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소화하고 친환경적인 녹화 계획을 적극 권장한다.

다양한 방문객을 유도하여 활력있는 시설 창출

- 진입부 및 내부공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가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다.
- 기획전시공간은 상설전시공간과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진입부 및 내부 동선을 분리하여 조성한다.
- 수장고 및 보존연구시설 일부를 대중에 개방하여 교육적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내부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내외부가 단절되지 않는 사용자 위주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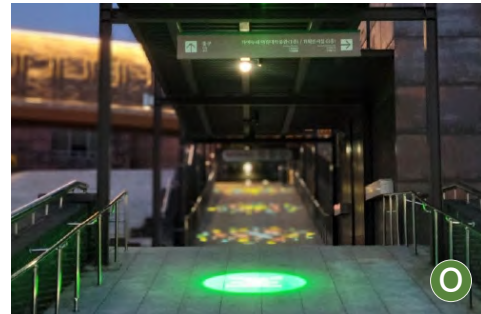


1.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입면 디자인
2. 조화성이 강화된 건축물 입면
3.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적용
4. 무장애 설계 적용

시설물

건물 특성과 조화로운 시설물 구축

- 프로그램 안내 정보, 게시판 등 안내 시설물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건물 설계 시 입면과 통합하여 디자인한다.
- 안내표지판 및 기타시설물의 도안 및 형태, 색채는 건물 특성을 반영한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다.
- 야간 접근성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조명을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건물 특성을 반영한 안내표지판 디자인
2. 야간 방문객을 고려한 조명 설치

C2-2. 공연장

정의 및 구성체계 · 연극, 콘서트 등을 관람하기 위한 시설로 옥외 및 실내공연장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주 진입부에 광장이 조성되어 있으나 공연장 입구와 연결하는 이동 위주의 광장으로 이용성이 저하된다.
- 진입부에 계단이 많아,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약자가 이용하기 어렵다.
- 야외 공연장은 존재하나, 건축물 및 주변공간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활용성이 떨어진다.
- 실내주차장 입구와 보행자 진입공간이 중첩되어 보행에 위협적이다.
- 주차장, 공연장 내부공간 등의 안내사인이 부족하다.

기본방향

-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특색있는 건축물 입면을 구축한다.
- 개방감 있는 건축물을 형성하기 위해 야외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조성한다.
-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 다양한 공간 구성을 위해 야외 공연장은 통합적으로 계획한다.
- 실내주차장 진입부는 보행공간과 물리적, 시각적으로 명확히 분리한다.
- 통합적인 안내사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지

방문 편의성을 증진하는 건축물 및 동선계획

- 주변 건축물이나 장애물로 인해 공연장이 시각적으로 차폐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 응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비상 동선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차량의 접근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한다.

많은 인원을 수용 가능한 진입광장 조성

- 진입광장은 대중교통 이용성이 우수하거나 보행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배치한다.
- 공연시작 및 종료 후 예상되는 대규모 인원의 진출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맞는 진입광장을 계획한다.

건물

특색있고 지역과 조화로운 입면 조성

- 지역 랜드마크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외관 디자인을 권장하되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대규모 건축물이 갖는 위압감을 최소화하고 친근하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물 저층부는 외부공간과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관람객의 대기 및 휴식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도시의 야간경관 개선을 위해 건물의 독창적인 형태를 반영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필수 ○권장

1. 대규모 인원을 수용 가능한 진입광장
2. 창의적인 외관 형태 적용
3. 건물의 독창적인 형태가 반영된 야간 조명

방문 인원이 많은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 진입부 및 내부공간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가 관람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다.
- 내부 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여 내외부가 단절되지 않는 사용자 위주의 공간으로 계획한다.



시설물

방문객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계획 수립

- 동선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적절히 배치하여 이용자가 혼란없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내·외부에 휴게시설물을 배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한다.



활력있는 야외공간을 위한 시설물 조성

- 야외 공연장 계획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한 무대창고, 무대조명, 캐노피 등 공연부속시설을 설치한다.
- 안전한 야간 옥외활동이 가능하도록 가시성이 높은 조명계획을 수립한다.

● 필수 ○ 권장

1. 무장애 설계 적용
2. 야외 공연장 내 공연부속시설 설치로 사용성 강화

C2-3. 근대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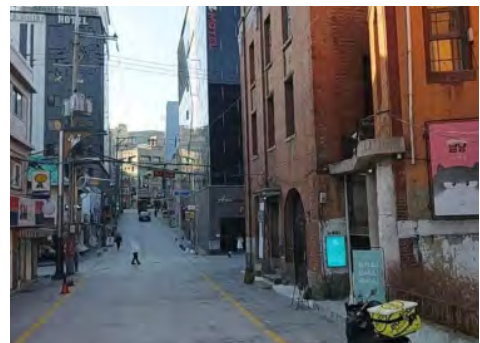
정의 및 구성체계 · 일반적으로 건립 이후 50년에서 100년이 지난 물리적으로 현존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의 근대건축물 주변 각양각색의 역사 특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산만하고 복잡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오래전 조성된 건축물로 노후된 계단, 단차 등 보행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있다.
- 대부분 건축물의 주 출입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기본방향

- 근대건축물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물은 보존한다.
-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한다.
- 휴게시설을 함께 계획하여 활력있는 공간을 연출한다.
- 근대 건축물 주변 특화거리는 역사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등을 디자인한다.



대지

역사적 가치가 보존되고 특색있는 공간 연출

- 근대건축물 옥외공간 계획 시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대지 내부에 신규 보행로 및 차량 진출입로 설치를 지양한다.
- 공간 이용성 증진을 위해 근대건축물 진입부 주변에 휴게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주변 자연과 연속적인 접근로를 조성하여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시설 구축

-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차 없이 평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침하·파손된 보도를 정비한다.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진입 공간을 조성한다.
- 주차장은 되도록 근대건축물 대지 외부에 별도 부지를 확보하여 계획한다.

건물

건축물의 역사적 의의를 보존하는 계획 수립

-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진행 시, 근대건축물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복원 방식 및 재료를 활용한다.
- 기존 근대건축물과 연계하여 신축 또는 증축이 필요할 경우 주요 입면을 가리지 않도록 계획한다.
- 관람객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시설물 설치 시 기존 근대건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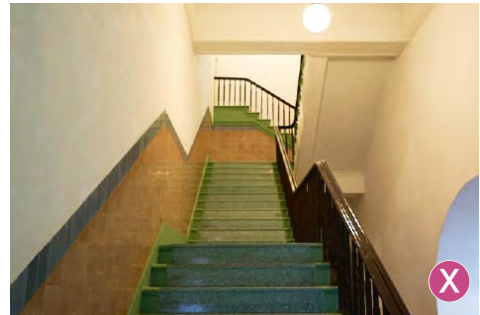
● 필수 ○권장



1. 평탄한 보행로 조성
2. 근대건축물 외부의 별도부지에 주차장 구축
3.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지 않는 리모델링 진행

보행약자가 관람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 조성

- 진입공간 및 내부 공간은 노약자 및 장애인 관람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장애(Barrier Free)로 설계한다.
- 보행약자의 원활한 관람을 위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물 설치 시 근대건축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시설물

근대건축물의 정온한 분위기를 강화하는 시설물 계획

- 내·외부에 설치되는 안내표지판의 도안, 형태, 색채 등이 근대 건축물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 편안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벤치, 휴게공간을 설치한다.
- 개방감 있는 근대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및 펜스 설치를 지양한다.
- 야간에 근대건축물의 심미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필수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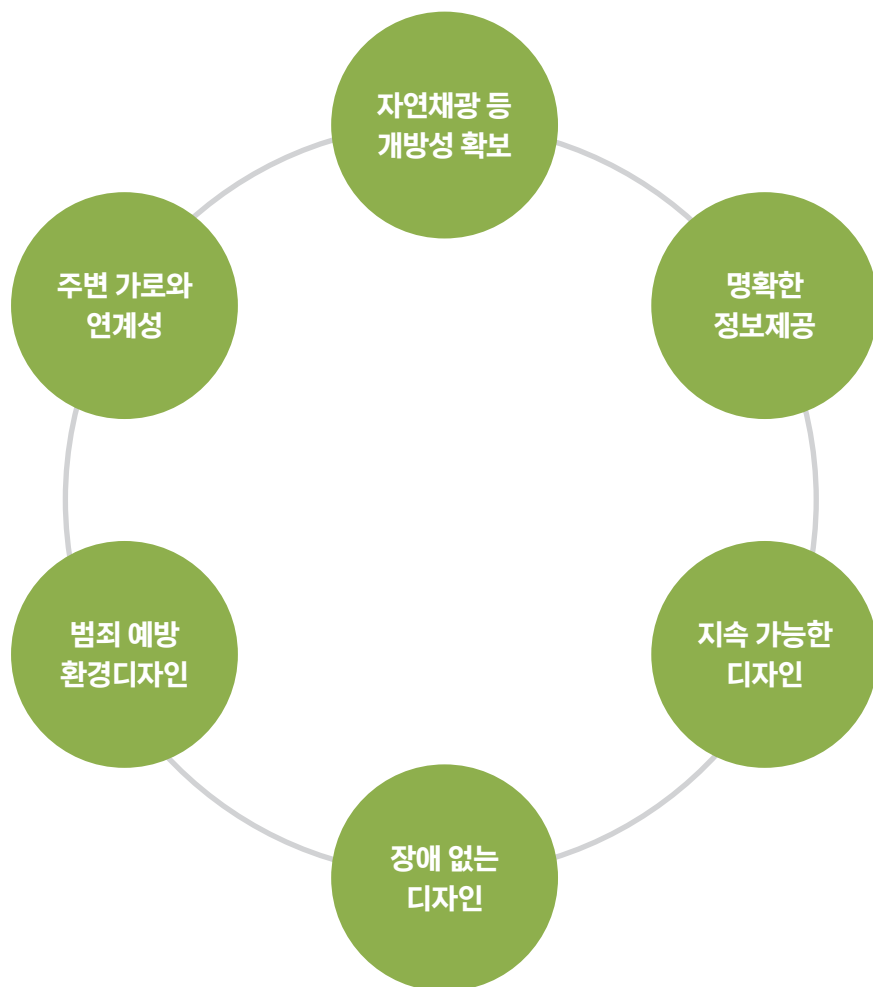
1. 보행약자가 이용 가능한 경사시설 부재
2. 적절한 야간 조명을 활용한 근대건축물

C3. 복지

정의 및 구성체계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 및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 본 가이드라인 적용되는 복지건축물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로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C3-1. 노인복지시설

정의 및 구성체계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주변 여건과 어우러지지 않는 건축물 외관으로 인해 지역과의 단절감을 형성한다.
- 주 진입부가 필로티 구조로 설계되어 진출입시 어두운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보행 보조시설물을 사용하는 노약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 시설의 연접부는 난간, 울타리 등 폐쇄적이고 단절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다.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지역 사회와 조화롭지 않은 시설 이미지를 형성한다.

기본방향

- 지역 사회와 조화로운 노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해 시설적인 분위기를 완화한다.
- 공간 이용자를 고려하여 안전성이 강화된 공공건축물을 구축한다.
- 활력있고 밝은 인상의 건축물 진입부를 형성하여 지역 주민에게 개방적인 공간을 조성한다.
- 인접가로 연결하며 차폐시설물 최소화로 우범화를 방지한다.
- 인지디자인 요소를 사용하여 공간구성을 한다.



대지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는 공간구조 형성

- 보행자 진출입은 주요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은 이면도로에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며 비상 차량의 전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 유니버설디자인, 배리어프리 디자인 적용을 통해 휠체어나 보조 기구 이용객, 노약자의 접근성 및 이용성을 강화한다.
- 주 출입구 로비에서 건물 주요 공간으로의 동선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한다.
- 시설 입구와 대중교통 정류장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 대지 주변으로 공원 및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을 경우, 이와 연계할 수 있도록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쉼터공원, 휴게공간 등을 가로와 일체화된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친근한 지역시설이 되도록 한다.

노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입부 형성

- 대지 밖 보도와 대지 진입부, 건축물 주 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을 확보한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접근로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되어 보행자가 주 출입구까지 차량의 간섭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주 출입구까지 연결되는 보행로는 단차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대지 밖 인접 보도와 대지 내 보행접근로와의 경계 부분에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한다.(장애인등편의법 : 단차 2cm 이하, BF 최우수 : 단차 없음)
- 보행접근로 전체 종단 구간 기울기는 1/24 이하로 한다.(장애인 등편의법 : 1/18 이하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까지 완화 가능], BF 최우수 : 1/24 이하)
-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휴식공간으로 30m마다 길이 1.5m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한다.
- 주 이용자의 보행 속도와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주변부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 노인복지시설 위치 선정 시 노약자의 위급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의료시설로의 응급이송이 가능한 곳으로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주요 도로에서 전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
2. 로비에서 주요 공간으로의 동선 인지 가능
3. 기울기 1/24 이하의 경사로 구축

건물

이용자의 건강한 삶 유도를 위해 개방적인 공간 연출

- 개방감있는 자연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형태와 구조를 조성한다.
- 시설 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의 질을 유지 가능한 공조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 옥상이 평지붕일 경우 옥상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하며, 텃밭 등 체험공간 형성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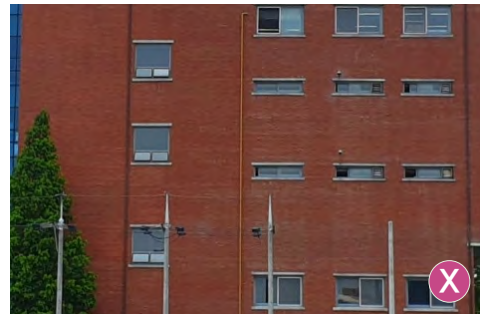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축물 디자인 적용

- 정적이고 딱딱한 건물 이미지를 지양하고 친근하고 활력있는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공간형성을 위해 신축이나 이전 복합 시설과 함께 배치한다.
- 건축물 외부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을 선도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천연색, 원색 계열의 색채는 활력있는 공간 창출을 위해 건축물 일부에 강조색으로 활용한다.

다양한 이용객을 유도하여 활력있는 공간 창출

- 외부와의 단절을 야기시키는 폐쇄형 담장과 펜스의 설치를 지양 하며, 안전 및 관리상 필요시에는 투시형 울타리, 디자인 담장 등을 설치한다.
- 로비는 이용자 및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을 설치하되, 이용객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밝고 경쾌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원, 친수공간, 휴게공간 등을 가로와 일체화된 옥외공간으로 계획하여 친근한 지역시설이 되도록 한다.

● 필수 ○권장



1. 텃밭 등 체험공간 조성
2. 정적이고 딱딱한 입면 적용
3. 활력있는 건축물 분위기 연출
4.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건축물 경계부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시설물 설치

- 건물 내외부 보행동선에는 레일형 손잡이 설치 등 휴먼스케일에 맞춘 디자인을 계획한다.
- 계단이나 경사로의 난간, 욕실 및 화장실의 타일 걸이 등 주요 시설물은 체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튼튼한 구조로 설치한다.
- 부득이하게 보행접근로에 계단이나 경사로 등이 설치될 때에는 보행을 돕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 노약자, 환자 등 이용객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에 인지창 설치를 권장한다. 단, 사생활 보호를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별한다.
- 세면대 아래는 휠체어 다리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비우는 구조를 계획한다.

노약자 특수성을 고려한 시설물 구축

- 출입문은 문턱 등 단차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단차가 있을 경우 2cm 이하로 하며, 모깍기 또는 턱 낮추기를 하여 단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단차를 인지할 수 있는 마감으로 한다.
- 미닫이문의 경우 바닥면의 레일이 돌출되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설치한다.
- 이용객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표지판의 도안 및 글자 크기, 설치 위치 등을 가독성 높게 계획한다.
- 창은 앞으로 밀어서 여는 구조(여닫이) 대신 옆으로 여는 구조(미닫이)로 설치한다.
- 여닫이문은 통행량이 적은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계획하며 복도 쪽으로 열리는 경우 충돌 방지를 위해 알코브공간 설치를 권장한다.
- 문손잡이의 높이는 그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 사이에 위치하고,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6m 이상으로 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동선에 레일형 손잡이가 설치된 노인복지관 내부
2. 이용객의 특성을 고려한 안내표지판

C3-2. 장애인복지시설

정의 및 구성체계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의료·교육·직업 등을 통한 생활 안정이 목적인 시설

현황 및 문제점

- 주 보행로와 차량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 건축물 전면부 대다수를 주차공간이 차지하여 출입로를 인지하기 어렵다.
- 셔틀버스 승·하차공간이 출입로 주변부에 조성되어 있어 이용객의 안전성을 침해한다.
- 건축물 주변부로 자전거 보관대 등 시설물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객이 접근하기 어렵다.
- 과도한 형태의 필로티 건축물로 인해 어두운 분위기의 진입공간이 많다.

기본방향

- 열린 공간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개방감 있는 진입부를 조성한다.
- 안전한 시설 조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원활한 보행 동선을 구축한다.



대지

개방감 있는 건축물 외·내부 조성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고,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불편함이 없도록 주출입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전면공간은 모든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하고, 대지 경계부에 폐쇄적인 담장이나 과도한 식재 등의 설치를 지양한다.
- 건물 외부공간에 쉼터, 벤치 등 활용하여 시설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활용 가능한 야외활동 공간을 조성한다.
- 복지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남향 배치를 통해 자연채광을 확보하고,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건물

지역 사회와 조화로운 입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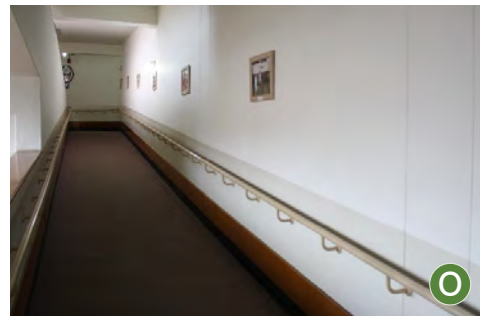
- 정적이고 딱딱한 건물 이미지를 지양하고 친근하고 활력있는 입면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 사회와 어우러지는 공간 형성을 위해 신축이나 이전 복합 시설과 함께 배치한다.
- 건축물 외부공간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주민 누구나 활용 가능한 쉼터를 제공한다.



공간 이용성을 증진하는 시설 구축

- 장애인 직업, 교육, 유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참여공간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을 계획한다.
- 건물 내 모든 공간은 계단식 진입을 지양하고, 진출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다.
- 외부 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 계단이 바로 연결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이용자에게 위험요소가 되는 사각지대 공간과 모서리 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시설을 구성한다.

● 필수 ○ 권장



1.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 중복으로 위험한 진입부
2. 친근하고 활력있는 건물 입면
3. 무장애 설계 적용

시설 이용객을 고려한 재질 및 색채 적용

-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단단하고 평평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소재를 적용한다.
-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근하고 밝은 이미지의 형태 디자인 및 색채를 사용한다.

안전한 공간을 위한 시설 및 설비 구축

- 주요 피난동선은 이용자의 신체적 불리함을 고려하여, 짧고 명료하게 계획하여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한다.
- 화재 시 이용자 피난시간을 고려하여 건물 내외장재는 연소로부터 안전한 재료를 사용한다.
- 이용객의 신체적 움직임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시설물

안전성 및 인지성을 강화하는 시설물 조성

- 모든 시설물은 이용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모서리가 둥근 형태, 명확한 색채 구분 등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 각종 안내 시설물은 이용객에게 정보전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계획한다.
- 장애인 주차 공간의 전방 시야를 확보하며,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 필수 ○권장

1. 짧고 명료한 피난동선 확보

2. 시각장애인도 활용 가능한 점자안내도 설치

C3-3. 보건소

정의 및 구성체계

- 지역 주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여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폐쇄적인 주 진출입로 및 출입구로 인해 방문하기 어려운 공공 건축물이 형성된다.
- 휴식공간과 함께 조성되어 활력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동일하여 차량 부딪힘 사고가 증가한다.
- 응급차량 동선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비상상황 시 늦은 대처가 우려된다.
- 주요 보행로와 연계성 부족으로 방문객 편의성이 저하된다.
- 안내 표지판 및 안내시설 확충 미흡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 형성된다.
- 주요 공공건축물과 통합 계획하여 정돈된 시설을 구축한다.

기본방향

- 방문하기 편리한 공간을 위해 개방감 있는 진입부를 형성한다.
- 안전한 공공건축물 형성을 위해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명확히 분리한다.
-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여 응급 차량 동선을 별도로 계획한다.
- 누구나 인지 가능한 충분한 안내 시설물을 구축한다.



대지

동선 분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 대지 내 보행로는 차량 동선과 분리하고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가로폭을 확보하고 단차없는 진입로가 되도록 계획한다.
- 전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격리된 동선으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환자 승하차장을 배치한다.

편리한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계획

- 입지조건은 대중교통과의 거리가 200m 이내에 있도록 계획한다.
- 전면 공간 및 대지 내 공지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원 및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건물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입면 계획

- 입면 디자인은 지역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의 색상 및 재질을 사용한다.
- 주거지와 근접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은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베리어프리 디자인 적용

- 보건소 내부의 모든 공간은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Barrier Free)로 설계한다.
- 휠체어 이용객을 고려하여 모든 진료시설은 이동통로를 최소 1.2m 이상 확보한다.

공간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된 공간구조 조성

- 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별도의 격리동선을 구축한다.
- 건물 내부는 진료공간, 대기공간, 연구공간 등 기능별 영역 구분을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 필수 ○권장



1. 휠체어의 원활한 통행이 가능한 진입부
2. 1.2m 이상의 통로 확보
3. 전염병 발생 시 별도의 격리동선 구축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는 시설 계획

-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안락한 분위기의 실내공간을 조성한다.
- 중정, 옥상정원 등의 다양한 휴게공간을 계획한다.
- 유아 및 어린이 동반한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수유실, 전용 휴게실 등의 계획을 권장한다.



시설물

쾌적한 공간 조성을 위해 편의성이 고려된 시설물 설치

-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안내표시물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크기, 형태, 색상 등을 통일하여 디자인한다.
- 벽이나 바닥 마감재의 재질, 색상 등을 층별 또는 영역별로 달리 하여 이용자가 건물 내 현 위치를 인지하기 쉽도록 계획한다.
- 계단을 내려오는 도중 넘어짐 방지를 위해 디딤판이나 계단 끝 부분이 식별 용이하도록 색상, 질감 등을 달리 설치한다.
- 야간 이용 시 안전한 보행을 위한 상시 조명을 설치한다.
-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설치시설물 재질은 유해 요소가 없는 친환경인증 획득 자재를 사용한다.
-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목재 및 석재 등의 자연소재나 자극적이지 않은 형태의 공공미술품을 설치한다.



안전성 고려된 시설물 설치

-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하고, 피난대피도 안내사인을 설치하여 정보전달 및 영역성을 강화한다.
- 비상벨과 CCTV등을 설치하여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없앤다.
- 재난을 대비하여 피난대피 동선을 계획하며, 누구나 인지가능한 픽토그램 및 인지컬러를 적용한다.
- 피난대피 동선은 단순 페인트 사용은 지양하며, 어두운 환경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UV특수재질을 사용하여 피난방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화살표를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안락한 분위기의 실내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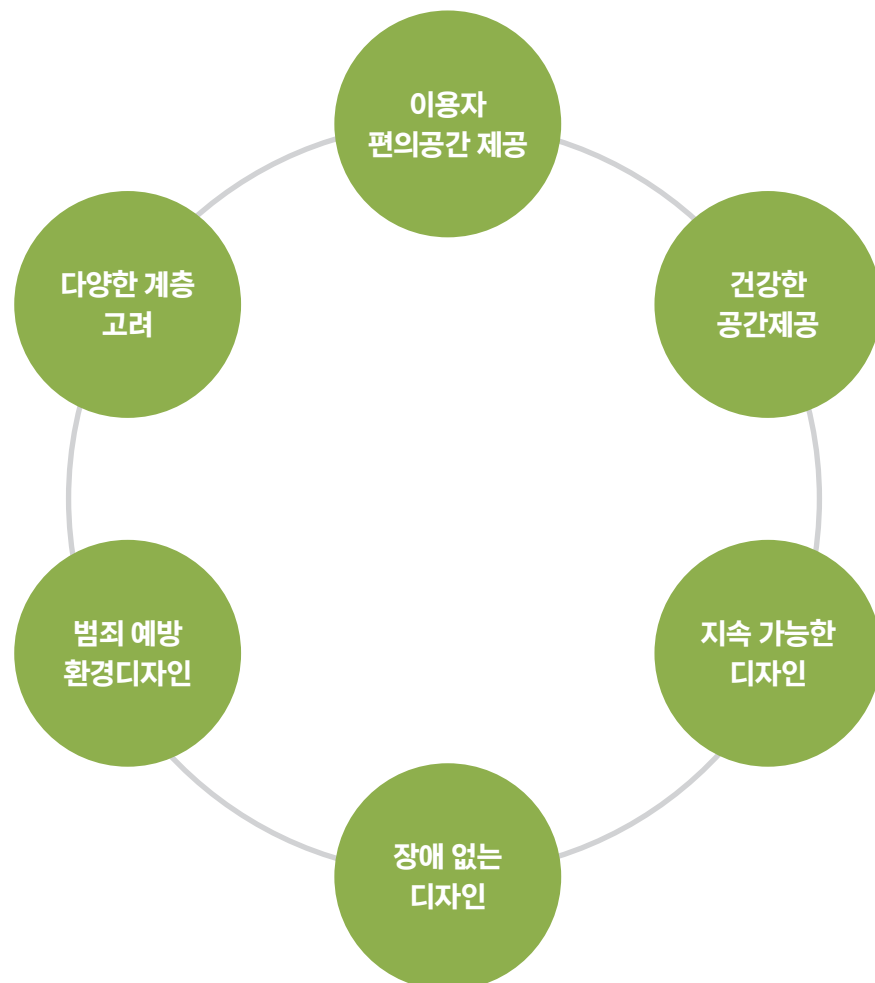
2. 건물 외벽의 색상과 유사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안내표시물

C4. 교육연구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중의 교육·연구 및 정보이용, 보육 등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 및 그와 연계된 외부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칭한다.
- 다양한 계층이 복합적으로 이용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은 주로 어린이 등의 이용도가 높으므로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무장애 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우선 계획하여야 한다.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공도서관, 교육시설로 구분하여 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

가이드라인 중점 방향



C4-1. 공공도서관

정의 및 구성체계 · 공공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불라드, 가로화분대 등 주요 진출입로 주변에 과도한 수량의 공공 시설물 설치로 인해 보행약자가 통행하기 어렵다.
- 언덕 등 보행약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위치에 도서관이 조성되었으나 엘리베이터 등 보행편의시설물 전무하다.
- 올바른 경사로 설치로 시설물 이용성이 저하된다.
- 크기가 큰 시설물이 도서관 진입부에 조성되어 근거리에서 주요 출입로 인지성 부족하다.
- 진입부가 주요 도로와 연결하여 방문하기 편리하나,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안전성이 결여된다.

기본방향

- 인근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된 시설을 조성한다.
-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하여 교통약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한다.
-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구조 계획한다.



대지

시설 특성을 강화하는 배치 계획

- 정온한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나 소음유발시설 등으로부터 이격 배치한다.
- 전면공간은 개방된 시야확보를 통해 안전한 보행접근이 가능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안전한 공간 형성

-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적용한 진입환경을 구축한다.
- 차량 동선은 측면 및 후면으로 배치하여 보행 동선과 분리하여 계획한다.

건물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건축물 입면 조성

- 주변 건축선과 정렬된 형태로 계획한다.
- 급격하게 돌출된 형태의 건축물 계획을 지양한다.
- 자연적 감시 및 투광률을 높일 수 있도록 투시형 건물로 계획한다.

다양한 계층을 고려한 공간 형성

- 어린이 및 고령 이용자를 위한 시설은 저층부에 배치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한 공간을 형성한다.
- 독서 공간 외 개인과 소그룹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공간을 이용하도록 계획한다.
- 안전한 보행을 위해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를 사용하고, 외부와 연결되는 공간은 우천 시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와 구조로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차량 동선과 분리된 보행 동선
2. 급격하게 돌출된 형태의 건축물

시설물

이용객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 모든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국제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한 안내 표지를 배치한다.
- 도서 무인 반납기 설치 시 이용자 활용성 증진을 위해 시설 내부와 별도로 운영될 수 있게 배치한다.

야간시간대 공간 활용을 증진하는 계획 수립

- 주 진입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명을 배치하여 야간 시인성을 강화한다.
- 건축물 간접조명을 통해 공공도서관 심미성을 높인다.
- 외부공간은 야간시간대 주민 활용을 고려하여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필수 ○ 권장

1. 도서관 픽토그램 안내표지
2. 야간 경관을 고려한 도서관 건축물

C4-2. 교육시설

정의 및 구성체계 ·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시설을 의미하며, 초·중·고등학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시설 주 출입로와 주차공간이 연결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 교육시설 정문 주변에 통학용 인도가 조성되지 않아 차량 부딪힘 사고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
- 원도심 등 일부 학교 주변에서는 보·차도 구분이 되지않아 어린이 및 보행자가 위험하다.
- 폐쇄적인 형태의 방음벽이 학교 주변으로 조성되어 삭막하고 단절된 인상을 준다.
- 딱딱하고 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 형태로 인해 따듯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없다.

기본방향

- 어린이 등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확보한다.
- 인접 보행가도와 심리적, 시각적, 물리적 통합을 추구한다.
- 친근한 공간 연출을 위해 주변 여건과 조화로운 시설을 형성한다.
- 인근 도로 구조와 물리적 시각적으로 연계하여 안전이 최우선되는 누구에게나 열린공간 조성한다.
- 단절되고 폐쇄공간을 없애 우범화 공간을 방지한다.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복합공간으로 계획한다.



대지

교육시설에 맞는 건강한 공간 형성

- 획일적인 배치 계획을 지양하고, 연령 특성에 맞고 창의적인 배치를 계획한다.
- 통학로와 차량 동선은 분리 배치하며 불가피한 경우 보차 분리용 펜스를 설치하여 보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주차공간은 운동장과 인접되지 않도록 한다.
- 일조가 원활하고 통풍이 잘 되도록 주변 건축물로 인해 차폐되지 않는 장소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 폐쇄형 담장 및 방음벽 설치를 지양하고, 소음 차단이 필요할 경우 방음림 및 부대건물 배치 등 미관을 해치지 않는 계획을 수립한다.
-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외부인 출입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 학교 건축물 눈높이와 운동장 사이의 급격한 차이는 지양한다.



건물

친숙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축물 입면

- 건축물 신축·증축 시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
- 건축물 내부 복도나 휴식공간은 밀폐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밝고 넓은 면적의 개구부를 설치한다.
- 대규모의 단일 건물보다 기능을 반영한 단위별 복합 건물을 권장하고, 동별 연결성과 디자인 통일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다수의 건물을 조성할 경우 후면공간, 위요공간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필수 ○ 권장

1. 창의적인 건물 배치 계획 적용
2. 보차 분리용 펜스 배치
3. 친근한 이미지의 건축물 입면

교육시설의 특성을 강화하는 공간 계획

- 교실 내부는 눈이 피로하지 않는 조도를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 시설 내·외부로 놀이공간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이용률을 증진한다.
- 하늘이 조망되고 빛이 내부로 들어오는 고층창이나 천장을 설치하여 투광률을 높인다.



시설물

어린이가 활동하기 안전한 공간 창출

- 표지판, 출입구, 휴게공간 등 주요 활동공간에는 충분한 조도 확보를 통해 안전한 공간을 조성한다.
- 건강하고 위생적인 실내환경을 위하여 인공마감재 사용 지양하고 친환경인증 및 천연재료를 사용한다.
- 도로와 연접한 운동장 경계부에 설치되는 안전망은 주변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재질 및 색채를 계획한다.



활력있는 교육시설 조성

- 외부공간에 쉼터를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간 이용자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자연적 요소인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한다.
- 인공조명은 용도에 적합한 조도와 눈부심이 없으며 부드러운 그림자를 줄 수 있는 자연광과 가깝게 계획한다.
- 어린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고려한 차분한 색채와 재료의 자연색을 고려하여 밝은 분위기로 디자인한다.

● 필수 ○ 권장

1.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지 못한 교실
2. 시설 내부에 확보된 놀이 공간

공공시각매체

PART.4

공공시각매체 기본방향 및 목표	288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원칙	289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297
교통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00
보행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14
안내관련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31
영상정보 시각매체 가이드라인	337

공공시각매체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여 정보전달 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공간과의 조화 및 통합을 지향한다.

공공시각매체의 조성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을 설정한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목표



기능 우선

정보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보 혼란을 줄이는 명료한 디자인

모두를 배려

외국인, 장애인 등 누구나 읽기 쉬운 디자인

매체 통합

시설물간 연계와 통합으로 안내시스템 구축

표준화

일관된 국가(국제) 표준규격 및 정보 표기 표준화 디자인 사용

정체성

부산 색채 및 서체 통일화로 일관성있는 디자인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원칙

부산광역시
공공시각매체
디자인 7원칙

1

정보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적정 수량으로 설치한다

2

정보표기는 가독성과 시인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3

누구나 접근성이 높고 쉽게 이해하며
정보 전달이 될 수 있게 디자인한다

4

연계 가능한 내용의 시각매체는
통합하여 설치한다

5

국가 또는 국제표준 픽토그램의
표기체계를 적용한다

6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한다

7

부산색 및 주의·안전 등
표준 색채 사용하여 디자인한다

① 정보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적정 수량 설치

○

권장

-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정보의 전달을 우선으로 설치한다.
- 주변 환경의 밀집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수량으로 설치한다.
- 다른 시설물 또는 구조물과 통합하여 공공시각매체의 점유공간을 최소화한다.
- 시인성 확보를 위해 보행자 동선을 고려하여 위치하며,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지양

- 불필요한 시각매체와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하여 설치하는 금지한다.
- 도시의 필수정보 이외의 시각매체 설치하는 지양한다.
- 특화거리 시각매체 시설물은 교통관련 시각매체와 중복하여 설치하는 지양한다.
- 과다한 크기 및 수량의 홍보문구 및 슬로건 표기는 지양한다.



② 가독성과 시인성을 우선하는 정보표기 디자인



권장

- 목적에 맞는 정보를 명확하고 명료하게 전달한다.
-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 색채를 고려하여 디자인한다.
- 가독성 좋은 서체 및 주의·안전 등 정보 전달이 우선시 되는 색채를 적용한다.
-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하여 가독성을 확보한다.
- 다중언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양

-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표기 및 설치를 금지한다.
- 가독성과 시인성에 영향을 주는 수목의 식재는 지양한다.
- 가독성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조명의 설치는 지양한다.
- 장식적인 요소는 배제한다.



③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정보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

○

권장

- 다양한 시각언어를 사용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한다.
-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문자의 크기, 정보의 위치는 눈높이를 고려한다.
- 다국어 병기하여 표현하는 시각매체는 다국어 표기원칙을 준수한다.
-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채 및 픽토그램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지양

- 모든 사람의 사용성이 고려되지 않은 시각매체 설치는 지양한다.
-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야를 차단하는 디자인은 금지한다.
- 정보전달보다 시설물의 외형적 디자인에 치중된 시각매체는 지양한다.



4 연계 가능한 내용의 시각매체 통합 디자인



권장

- 인근에 위치한 연계가능한 안내표지는 통합하여 디자인 설치한다.
- 다른 지주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여 간결하고 일관된 디자인으로 설치한다.
- 최소한의 시설물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전달한다.



지양

- 다양한 종류의 시설물로 정보의 혼란을 주지 않는다.
- 정보전달 기능이 저하되는 장식적 형태 및 과도한 크기의 통합화는 지양한다.
- 형태, 색채의 일관성이 없는 디자인은 지양한다.



⑤ 국가 또는 국제표준 픽토그램 표기체계를 적용

○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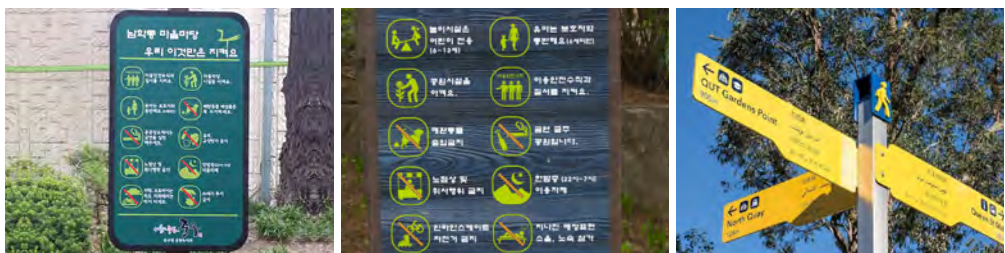
- 주요 표기요소 픽토그램은 국가 및 국제표준을 적용한다.
- 통일된 형태, 색채, 컬러를 적용한 픽토그램을 사용하여 전체 공간 통일성을 확보한다.
- 누구나 인지 가능한 크기의 픽토그램을 명확하게 적용한다.



×

지양

- 국가 및 국제표준 픽토그램과 유사한 디자인을 금지한다.
- 무분별한 픽토그램의 적용으로 정보전달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다.
- 고채도, 고명도의 색을 혼용하거나 입체형 픽토그램 사용을 금지한다.



⑥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와 형태로 디자인



권장

- 금지·안전표기의 시각매체는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표준색채를 적용하여 디자인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 사용을 권장하며, 지나친 지자체 강조색 및 그래픽은 지양한다.
- 경사지 및 계단 등에서도 항상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지양

- 시각적 피로감을 주는 고채도 고명도의 사용은 지양한다.
- 주변의 정보가 가려지거나 방해되는 색채 및 설치는 금지한다.
- 교통 신호등 및 주의·안전색채와 동일한 색채 사용으로 정보의 혼란을 주지 않는다.



⑦ 부산색 및 주의·안전 등 표준 색채 사용 디자인

○

권장

-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을 반영한다.
- 주의·안전 등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표준인지 컬러를 공통으로 적용한다.
- 글자의 크기, 색채 및 형태는 통일되고 일관되게 적용한다.



×

지양

- 일관되지 않는 글자크기, 색채 및 형태는 지양한다.
- 다양한 서체를 중복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인지 컬러를 남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과도한 크기의 지자체 심볼 및 상징물은 지양한다.
- 임의 조정 및 변형된 컬러, 서체는 금지한다.



공공시각매체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적용대상

교통관련 시각매체, 보행관련 시각매체, 안내관련 시각매체, 영상정보 시각매체에서 파생된 적용 대상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	코드	소분류	심의대상	페이지번호
교통관련 시각매체	D1-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 표지	심의대상	p.301
	D1-2	노면표지	-	p.303
	D1-3	이정표·방향·방향예고 표지	심의대상	p.304
	D1-4	공공시설·시설안내표지	심의대상	p.306
	D1-5	버스정류장 표지·노선안내도	심의대상	p.307
	D1-6	버스 측면 정보 영역	-	p.308
	D1-7	도시철도 안내표지판	-	p.309
	D1-8	도시철도 노선·역사안내도	심의대상	p.310
	D1-9	택시외관	-	p.311
	D1-10	택시정류장 표지	심의대상	p.312
	D1-11	유람선 외관	-	p.313
보행관련 시각매체	D2-1	보행자 안내표지·방향표지	심의대상	p.315
	D2-2	무단횡단 금지표지	심의대상	p.318
	D2-3	도로명판·건물번호판·건물안내도	심의대상	p.319
	D2-4	공원 안내표지·시설안내도	심의대상	p.321
	D2-5	문화재 설명 표지판·기념표석	심의대상	p.323
	D2-6	관광안내소·매표소 안내	심의대상	p.325
	D2-7	관광안내표지·안내도	심의대상	p.326
	D2-8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심의대상	p.328
	D2-9	장애인 유도사인·안내표지	-	p.329
안내관련 시각매체	D3-1	현수막게시대	심의대상	p.332
	D3-2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	p.334
	D3-3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	p.336
영상정보 시각매체	D4-1	대기오염 전광판	심의대상	p.338
	D4-2	도로소음 전광판	심의대상	p.339
	D4-3	교통상황·교통사고 전광판	심의대상	p.340
	D4-4	버스정보 전광판	심의대상	p.341
	D4-5	디지털 영상매체	심의대상	p.342

관련 법규사항 및 가이드라인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교통 관련 시각 매체	주의·규제·지시·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2009)
	보조·단속 표지	(2012, 경찰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노면표지	공공표지판 다국어 번역 표준안	라인(2010)
	이정표·방향·	(2023, 행정안전부)	부산교통공사 안내표지 디자인
	방향예고 표지	도로표지규칙(2002, 국토부)	가이드라인(2022)
	공공시설·시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안내표지	(2023, 국토부)	
	버스정류장 표지·		
	안내도		
	버스 측면 정보		
	영역		
	도시철도 안내		
	표지판		
	도시철도 노선·		
	역사안내도		
	택시외관		
	택시정류장 표지		
	유람선 외관		
보행 관련 시각 매체	보행자안내표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	부산광역시 도시색채계획(2009)
	방향표지	(2012, 경찰청)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
	무단횡단금지	주소정보시설규칙(2021, 행정안전부)	라인(2010)
	표지	도로표지규칙(2002, 국토부)	
	도로명판·건물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번호판·건물	(2023, 국토부)	
	안내도		
	공원안내표지·		
	시설안내도		
	문화재 설명		
	표지판·기념표석		
	관광안내소·		
	매표소 안내		
	관광안내표지·		
	안내도		
	자전거도로 안내		
	표지		
	장애인유도사인		
	·안내표지		

분류	관련요소	관련 법규 및 매뉴얼	부산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안내 관련 시각 매체	현수막게시대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영상 정보 시각 매체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교통상황·교통 사고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		부산 야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2022)

D1. 교통관련 시각매체

정의 · 차량 운전자 및 이용자에게 교통안내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시각매체를 의미한다.

구성체계 · 교통 안전 표지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 표지, 노면표지, 이정표·방향·방향예고 표지, 공공시설·시설안내표지, 버스정류장 표지·안내도,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지하철 안내표지판, 지하철 노선·역사안내도, 택시외관, 택시정류장 표지, 유람선 외관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 11개로 분류한다.

현황 및 문제점

- 버스전용차로 정보 중복표기로 인해 빠른 정보인식이 불가능하다.
- 감시카메라 후면에 표지판이 부착되어 인식하기 어렵다.
- 불필요한 안내판을 철거하지 않아 혼재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보행자에게 필요한 안내판이 도로 쪽으로 향하고 있어 표지판의 기능이 저하된다.
- 과도하게 작은 크기로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운전자 시야에서 인식하기 어렵다.
- 표지판이 가로수 및 타 표지판에 가려져 있어 보기가 어렵다.
- 안내표지판이 보행로를 침범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기본방향

- 운전자 시야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 최소화 등 정돈된 안내표지판을 구축한다.
- 안전한 보행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내표지판을 배치한다.
- 공공정보매체의 통합화를 통해 도로점유면적의 최소화로 개방감을 확보한다.



D1-1. 주의·규제·지시·보조·단속 표시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 주의구간, 도로상의 금지나 제한을 알리고 방향회전, 전용차로 등을 지시·단속하는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정보 표시를 말한다.

설치

운전자의 정보 인식성을 고려하여 표지판 구축

- 정보 인식성 강화를 위해 동일 표지는 중복 설치하지 않는다.
- 도로 구간 내 지주시설물이 많은 경우 다른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 높이는 다음과 같다.

표지 종류	설치 높이	표지 종류	설치 높이
주의표지	100~210cm	지시표지	100cm 이상
규제표지	100~210cm	보조표지	100cm 이상

- 표지의 판독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표지 전방 최소 40m 이내, 도시지역 밖에서는 70m 이내의 가로수, 기타 시설물 등 장애물을 제거하며 새로이 식재하지 않도록 한다.
- 도로 표지는 오른쪽 길 옆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중앙분리대 폭이 규정에 의한 시설 한계가 확보된 경우에 한해 중앙분리대에 설치한다.
- 지상도로와 표지 하단부가 수평이 되도록 설치하며, 도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위쪽 면을 기준으로 수평을 맞춘다.
-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며, 도로 형태와 설치 방법에 따라 10도 이내로 한다.

시설물 설치로 인한 통행방해 최소화

- 기초 시공 시 지지대와 앵커볼트 등, 부속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보도 폭이 1.5m 미만일 경우 휠체어 등의 이용자를 고려하여 50m마다 1.5mX1.5m 이상의 교행구역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 지주와 접한 바닥면은 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 마감재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혼재된 표지판으로 정보 인식 어려움
2. 가로수에 가려져 인식성 저하
3. 동일한 기능의 표지 중복 설치
4. 타 지주 시설물과 통합 설치

표기요소

정보 인식이 편리하도록 간결한 정보 표기

- 픽토그램은 국제표준(ISO) 또는 KS표준을 적용하여 외국인 등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도로 표기 전용체로 개발된 '한길체'를 적용한다.
- 과도한 장식이나 문양 등 정보 인식에 방해되는 요소는 지양한다.
-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정보는 통합하여 표기한다.

체계적인 정보 인식이 가능한 표기방식 적용

- 이용자의 패턴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적정거리에서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표기한다.
- 직진 정보를 불필요하게 많이 전달하여, 중요한 출구의 정보에 대한 인지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형태

정보 인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표준 디자인 적용

- 단속 등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는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한다.
- 규정된 교통안전표지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한다.
- 교통안전표지판의 경우 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 왜곡이 최소화 되도록 디자인한다.

재료 및 색채

인식하기 쉬운 색채 및 재료 사용

- 야간에도 식별 가능하도록 발광형 재질을 사용한다.
- 위험 및 주의 표지판은 안전색채를 사용한다.
- 시인성이 높은 명도와 채도 차이를 고려하여 인식하기 편리한 표지판을 디자인한다.

● 필수 ○권장



1. 정보가 명확하게 인식되는 표지판
2. 표준 단속표지판 사용
3. 야간에 식별가능한 발광형 재질 적용

D1-2. 노면 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이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설치

가독성을 강화하는 설치방식 적용

- 바닥면과 노면표지가 대비를 이루도록 도로면에 여유를 두고 표기한다.
- 노면표지 정보의 두께와 간격이 균일하도록 설치한다.
- 숫자의 너비는 시인성을 고려하여 차로폭의 1/3 이하로 한다.

형태

정보를 읽기 쉽도록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

- 바라보는 각도에 따른 형태의 왜곡이 최소화되도록 디자인한다.
- 고령운전자 통행이 잦은 지역의 표지판은 표지판과 안내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한다.

재료 및 색채

정보 시인성을 강화하는 색채 사용

- 시인성이 높은 명도와 도로와의 채도 차이를 고려하여 색채를 적용한다.

유지관리가 편리한 도로 사용

- 내구성 있는 도색 재료를 사용하여 통행량이 많은 도로 유지관리를 쉽게 한다.

● 필수 ○ 권장



1. 일정하지 않은 두께로 설치
2. 적절한 크기의 숫자 너비
3. 형태 왜곡이 최소화된 노면표지
4. 시인성을 고려한 색채 적용

D1-3. 이정표·방향·방향예고 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거나 방향 또는 방면을 예고하고 나타내는 표지를 말한다.

설치

정돈된 도로를 위해 최소수량으로 설치

- 동일한 정보 기능을 가진 안내사인물의 중복 설치는 금지한다.
- 도로점유 면적을 줄일 수 있게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표지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설치방법 적용

- 도로와 접한 표지 하단부는 지상으로부터 5m 높이로 설치한다.
- 시인성 확보를 위해 다른 도로표지 및 가로수 등과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 곡선 구간 등 시야가 차폐되는 위치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차량의 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며 도로 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 이내 안쪽에 설치한다.
-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하여 야간 이용성을 높이며 불가능할 시 가로등과 연계 배치하여 설치한다.

표기요소

일관성 있는 표지 체계 구축

- 도로명 안내체계를 적용한다.
- 외국인 이용자를 고려하여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 필수 ○ 권장



1. 다양한 표지가 함께 설치되어 시인성 약화
2. 야간 시인성이 확보되는 표지
3. 도로명 안내체계 적용

재료 및 색채

일관적인 도로경관 형성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규칙」 제 8조(도로표지의 색채)에 의해 도로 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하며 고속도로, 일반국도,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 이정표의 바탕색은 청색, 관광지 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을 적용한다.

유지관리가 편리한 재질 사용

- 표지판의 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정보 부분은 부착형 시트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도로표지규칙」을 준용하여 색채 적용

D1-4. 공공기관·시설안내표지

정의 · 공공기관 또는 시설기관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를 말한다.

설치

필수 위치에만 통합하여 설치

- 각종 기관안내표지는 다른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며, 표기할 정보와 시인성을 고려하여 크기를 최소화한다.
- 보도 폭이 1.5m 이하인 곳은 지주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하며, 1.5m 이상인 곳은 지주시설물과 연계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 공공기관 등 주요 시설의 안내는 정돈된 도시경관을 위해 '관광 안내표지 표준디자인-목적지 유도표지'를 활용한다.
- 시설 안내판 설치 시 가로등 통합형을 권장한다.
- 시설 출입문에는 축지도가 포함된 종합안내표지 설치를 권장하고, 점자표기로 시각장애인을 배려한다.

표기요소

간결하고 명료한 표기체계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을 적용한다.
- 문자, 화살표 및 거리 정보 등 주요 표기요소는 누구나 인지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
- 글자 크기는 이용자가 적정 가시거리 내에서 읽기 쉽도록 표기한다.
- 외국인을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를 병기하되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명 및 시설명은 영문 이외의 다국어 병기는 지양한다.

재료 및 색채

유지관리 용이한 재료 및 색채사용

- 지주는 스테인리스 스틸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도로표지규칙」의 색채와 중복된 색채의 사용을 금지한다.
- 안내표지판의 배색은 시인성이 높은 색채디자인을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관광안내표지 표준 디자인 적용
2.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기된 안내요소

D1-5. 버스정류장 표지·노선안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버스 승·하차 장소와 함께 노선알람 및 버스정보, 공공시각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시각매체 시설물을 말한다.

설치

버스 이용자가 읽기 쉬운 위치 내 설치

- 버스노선 안내도는 지면으로부터 1.5m 내외로 설치한다.
- 지주형 안내표지만 설치하는 경우 승하차 지점에서 1m 이내에 설치한다.
- 보행로 폭 넓이에 따라 버스정류장 설치 규모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노선도와 실제 도로의 차량진행 방향을 일치시킨다.
- 설치 관련 사항은 본 가이드라인의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한다.

표기요소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기

- 보행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지 가능한 색채 및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교통 환승이 가능한 곳에는 환승정보를 표기한다.
- 주요 환승가능 정류장 표기에는 한글과 영문을 병기한다.
- 가독성을 고려하여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설정한다.
- 쉽게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선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 노선안내도에서 동일구간 왕복 표시는 지양한다.
- 버스정류장 표지에는 현재 위치의 정류장명을 크게 표기한다.
- 버스정류장 전후의 정류장명은 작게 표기한다.

형태

표준 디자인 형태 준용

- 시내버스 정류장은 표준 표지판 디자인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는 시설물을 구축한다.
- 마을버스 및 공항버스, 시티투어버스의 정류장 표지는 각 표준형 디자인 매뉴얼 기준을 준수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자가 원거리에서도 인지 가능한 색채 사용
2. 노선 방향, 운행시간 등 정보가 누락된 노선 안내도

D1-6. 버스 측면 정보 영역

정의 및 구성체계 · 버스 전면 및 측면부분을 활용하여 버스 유형 및 노선을 표시하는 정보매체 시설물을 말한다.

표기요소

노선 안내 외에 정보 표기 최소화

- 인도방향 버스 측면에는 노선도를 표시한다.
- 버스 측면의 상업광고는 최소화한다.
- 표시면적은 창문을 제외한 각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 상업광고 표기시 광고 간 정보의 침해방지를 위해 인접하게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형태

자유로운 광고 표기가 가능하나 정돈된 인상 연출 필요

- 표시면적 형태 이내에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단, 타이어휠 부분에는 금지한다.
- 인도면의 승차문 광고와 하차문 광고는 동일 제품의 광고로 배치한다.

재료 및 색채

상징적인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는 요소 활용

- 부산시 도시브랜드, 상징마크, 지역과 연계한 그래픽 및 색상을 적용한다.
- 시티투어버스는 부산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도안과 색상을 차별화한다.

● 필수 ○ 권장



1. 인도방향 측면에 노선도가 표시된 시내버스
2. 승·하차문에 동일한 광고 배치
3. 상징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시티투어버스

D1-7. 도시철도 안내표지판

정의 및 구성체계 · 도시철도의 노선, 승하차 방향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각매체를 말한다.

설치

도시철도 이용자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설치

- 도시철도 심볼 사인은 폴 사인으로 통합하고, 별도 설치의 지양한다.
- 지주와 접하는 부분은 정교하게 마감하여 설치하며 앵커볼트 등 부속철물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주변 시설물, 수목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한다.

형태

원거리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준형 디자인 적용

- 어느 방향에서나 역 표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도시철도 출입구 캐노피, 폴 사인은 부산교통공사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다.

표기요소

간결한 표기요소 적용으로 통일된 안내표지판 구축

- 도시철도 심볼사인, 노선번호, 역명, 출구번호 등을 표기하며 그 외의 표기는 지양한다.
- 역 내의 모든 표지가 일관성을 갖도록 심볼, 색상을 통일한다.
- 문자의 서체, 크기, 간격을 고려한다.

재료 및 색채

노선별 다른 색상 적용

- 노선별 색상을 강조색으로 사용한다.
- 빠른 인지를 위해 노선별 전용색채를 다르게 적용한다.
- 야간에도 가시성이 높은 사인체계를 구성한다.

● 필수 ○권장



1. 폴 사인으로 안내사인 통일
2. 노선별 전용색채가 다르게 적용된 안내표지판

D1-8. 도시철도 노선·역사안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도시철도가 운행하는 노선 및 역사의 정보를 알려주는 시각매체를 말한다.

설치

정보 전달 명확성을 위해 설치 위치 및 디자인 일관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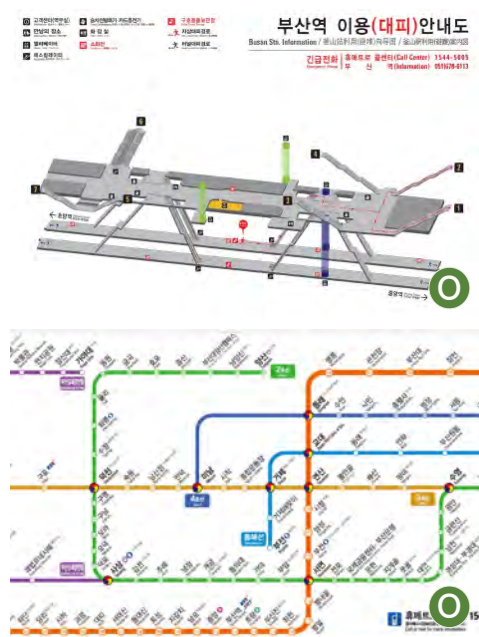
-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해 각 역마다 동일한 시각정보안내도를 게시한다.
- 지하철노선에 대한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주요 동선에 설치한다.
- 안내도 설치 시, 점자병기 및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한다.

표기요소

주요 정보를 명확히 표기

- 정보 간 여백을 최대한 확보하여, 가독성과 사용성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적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한다.
- 주변 시설정보와 역사 내 편의시설 정보를 포함하여 표기한다.
- 승강장의 승하차구간과 역사 출입구 및 환승 구간은 바닥에 노선별 색상을 달리하여 동선을 표기한다.

● 필수 ○권장



1. 역사 내 편의시설 정보가 포함된 역사안내도
2. 다국어(가) 병기된 지하철 노선도

D1-9. 택시외관

정의 및 구성체계

- 택시 전면과 측면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택시 유형을 나타내거나 공공 또는 상업적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표기요소

이용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통일성 있는 디자인 적용

- 택시 캡의 픽토그램, 형태, 색채, 서체 등을 통일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영어)를 병기한다.
- 광고물의 과도한 컬러 및 장식적 요소는 지양하고 택시외관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한다.

재료 및 색채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는 외관 계획

- 외관 랩핑을 활용하여 광고물 설치 시 외부환경에서도 부착물이 잘 떨어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 부산시 도시브랜드, 상징마크, 지역과 연계한 그래픽 및 색상을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통일된 디자인의 택시 캡
2. 영어를 병기한 택시 캡

D1-10. 택시정류장 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택시 승차를 기다리는 승객을 위해 공공시각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를 말한다.

설치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설치

- 설치 관련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공 공간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픽토그램, 글자, 색채를 적용한다.
- 광고면 규격 내 맞추어 설정한다.
- 광고 면적은 택시승차대의 표시면적 4분의 1 이내로 한다.



형태

도시환경을 훼손하지 않게 설치

- 택시정류장 안의 구조물은 불법광고 부착 방지 도료를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디자인한다.
- 구조물 지지를 위한 앵커볼트 등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택시 정류장과 안내도는 중복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표기요소

이용자 인식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명시성 높은 배색의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 픽토그램은 국제(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적용한다.

재료 및 색채

주변과 융합되는 재료 및 색채 사용

- 반사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광택이 나는 재료 사용을 지양한다.
- 프레임은 승차대와 동일한 색채를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과도하게 큰 광고 면적
2. 배색을 적용하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운 픽토그램

D1-11. 유람선 외관

정의 및 구성체계 · 해안경관 조망을 위해 운항되는 배의 외관을 의미한다.

형태

안전성을 강화한 외관 형태

- 안전한 승선을 위해 유람선 선착장과 간격이 과도하게 벌어지지 않는 유람선 탑승구를 구축한다.
- 어린아이가 펜스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절한 간격의 펜스를 유람선 외관에 조성한다.



재료 및 색채

해안과 조화로운 유람선 외관 구축

- 해안과 조화성 강화를 위해 고채도 색상 적용을 지양한다.
- 색채는 단색을 적용한다.
- 수상운송수단의 용도에 따라 색상을 달리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추락사고를 방지하는 펜스 설치
2. 자연경관과 조화롭지 않는 고채도 색상 적용

D2. 보행관련 시각매체

정의 · 보행자를 위한 표지등으로 현재 위치 파악, 방향 안내 등의 기능을 의미한다.

구성체계 · 보행자 안내표지·방향표지, 무단횡단금지표지, 도로명판·건물번호판·건물안내도, 공원 안내표지·시설안내도, 문화재설명표지판·기념표석, 관광안내소·매표소 안내, 관광안내 표지·안내도,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장애인유도사인 안내표지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현황 및 문제점

- 관광지 및 주요장소를 안내하는 부산형 관광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시설물이 정비되어 있어 통합적인 안내체계를 구축하고있다.
- 부산형 관광 안내표지판과 인접하여 설치되어있는 다양한 시설물 들이 통일성이 부족하여 정돈되지 않은 이미지가 연출된다.
-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안내표지 전면에 킥보드가 주차되어 보행객의 안내시설물 이용에 불편하다.
- 바위 등의 단차가 존재하는 곳에 안내시설물이 위치하여 가까이 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렵다.
- 구·군별 설치로 인하여 크기, 색채, 형태의 일관성이 없다.
- 지나치게 큰 규모와 무분별한 장식으로 도시경관을 훼손한다.
- 많은 정보를 담고자 글자의 크기를 작게하여 가독성이 떨어진다.

기본방향

- 우선순위의 정보제공으로 간결하고 가독성을 높이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 누구나 인지하기 쉬운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 보행에 방해되지 않은 곳에 설치하여 정보의 전달을 명확히 한다.
- 이용객에게 친절하고 편리한 안내시설물을 조성한다.
- 부산광역시 표준디자인(추후 계획 예정)이 적용된 시설물의 사용 으로 통일성을 확보한다.



D2-1. 보행자 안내표지·방향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보행자에게 현재 위치 및 인근 시설물, 장소를 알려거나 방향을 안내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설치

누구에게나 용이한 정보전달

- 다양한 연령에 따른 사용자 및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높이와 크기를 결정한다.
- 방향안내표지판(이정표)은 타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시설물이 설치되는 보행로의 폭이 2m 미만일 경우 보행방향과 평행하여 설치한다.

보행환경을 고려한 지주 설치

- 보도폭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 보행방향과 표지면을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 지주 설치 시 하부 부품이 지면 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형태

보행자 편의를 지향하는 디자인

- 보행자의 이용 쾌적성 증진을 위해 시설물의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 폴 형태로 통합된 외관 형태를 적용한다.
- 각 부품을 모듈형으로 제작하여 설치 및 이동, 유지·관리·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정돈된 공간 구성과 시설물의 활용성 증대

- 정돈된 가로환경 구성을 위해 단순화·통합화·규격화 된 형태와 크기로 설계할 것을 권장한다.
- 후면이 노출될 경우 양면 사용을 고려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되어 보행 방해
2. 지주시설이 돌출되어 보행객 안전 위협
3. 가로등과 통합하여 설치

재료 및 색채

조화롭고 인지성 높은 재질 및 색채 사용

- 반사율이 높은 스틸 위주 재질을 지양하며 무광택 소재 사용 및 분체도장 사용을 권장한다.
-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서체의 색상이 서로 대비되도록 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고채도 색채 및 경관을 저해하는 색채의 사용을 금지한다.

이용 인지성을 위한 색채 사용

- 고채도 원색사용은 긴급, 위급 등 강조할 부분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한다.
- 시설물의 배경색은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의 사용을 지양한다.

표기요소

전달력있는 시각적 요소 적용

- 목적별, 장소별 정보매체의 체계적인 구성과 통일성 있는 표기를 통해 이용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 정보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표지면의 크기에 비례해 서체의 크기를 최적화하고 적당한 여백을 주고 인지성을 향상한다.
- 주변의 주요 도로 정보, 거리 표시, 거리 이동시간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시각적 요소는 제거한다.
-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와 보행약자를 고려하여, 표기요소의 높이와 서체의 크기를 결정한다.

● 필수 ○권장



1. 바탕색과 서체의 색상 대비로 정보 인식성 강화
2. 일반 바탕색으로 고채도 색 사용
3. 도로 정보, 거리 표시 외 불필요한 시각요소 제거

읽기 쉬운 정보 표기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를 병기한다.
- 인근의 랜드마크, 공공시설, 교통시설, 문화유적을 우선적으로 표기한다.
- 주요서체와 보조서체 관계를 크기로 구분하여 주목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필수 ○ 권장

1. 다국어를 병기한 방향안내표지

D2-2. 무단횡단 금지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보행자 및 운전자가 원거리에서도 쉽게 식별하여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설치

통합된 경관을 고려한 안전장치 설치

- 무단횡단금지 표지판의 단독 설치는 지양하되 단독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무채색을 사용한 기능 위주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무단횡단금지 표기의 설치는 지양하되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곳 위주로 설치한다.
- 통합된 경관을 위해 펜스 시설물과 결합된 표지를 설치한다.



형태

사용자와 경관을 고려한 사인물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한 간결한 형태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 중앙분리 기능을 하는 웬스 시설물 설치 시 단순 접착 방식이 아닌 견고한 고정장치를 이용한 설치를 권장한다.



재료 및 색채

위험성 전달을 위한 색채 사용

- 행위의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배경색은 무채색을 적용하고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한다.
- 점자블록과 유사한 색채를 배경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야간 식별이 용이하도록 부착하는 반사시트의 경우 황색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고휘도급 반사시트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펜스 시설물과 통합 무단횡단금지표지
2. 다양한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금지표지

D2-3. 도로명판·건물번호판·건물번호 안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명판은 도로의 이름 및 주택과 건물에 부여된 번호를 안내하는 표지를 뜻하며 건물번호판, 건물번호 안내도는 새주소 체계에 따라 건축물에 부여된 번호 및 그림을 의미한다.

설치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안내사인물

-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및 행정안전부 「도로명판 전용지주 등 표준설계 매뉴얼」 규정에 따른다.
- 도로명판은 이용 형태에 따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분류하여 설치하고 차량용은 교차로에 한정한다.
- 도로명판은 타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하며, 통합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지성을 고려하여 건물 벽면에 설치한다.
- 건물번호판은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외부에서 인지성이 높은 진입부에 설치한다.

사인물의 쾌적성과 인지성 확보

- 건물번호판의 경우 중복 설치를 지양하며 다른 사인물과 중첩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건물번호 안내도는 설치하지 않는다.
- 건물번호판의 원활한 인지를 위해 건축물 상부에 부착하는 것을 지양한다.
- 건물번호판은 접착제 및 PIN으로 부착한다.



● 필수 ○ 권장

1. 타 지주시설물과 통합 설치된 도로명판
2. 인지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

형태

경관 정돈에 기여하는 시설물

- 건물번호판은 형태, 서체를 통일하고 일관성있는 디자인을 적용한다.
- 도로명판에는 지자체의 상징로고 및 픽토그램 등의 부가내용은 표기를 금지한다.
- 상징물 등을 적용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은 지양하며 간결하고 통합된 디자인을 사용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다국어를 병기하고, 한글도로명은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며 영문 도로명은 띄어서 표기한다.
- 건물번호판의 한글과 영문은 상하 배치한다.
- 도로명판을 위한 지주설치 시, 결합부위가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한다.
- 도로명판을 고령운전자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하는 경우 안내 글자 크기를 10~20% 크게 적용한다.

재료 및 색채

통합적이고 안전한 사인물 디자인

- 도로명판은 야간 시간대를 고려하여 태양광 LED 및 발광시트를 부착한다.
- 건물번호판의 경우 필요할 시 일반용, 관공서용, 문화재용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계획한다.
- 건물번호판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유사하거나 같은 경우 인접한 다른 색채의 벽면에 부착을 권장한다.

● 필수 ○권장



1. 일관적이지 않은 디자인 적용
2. 상징물을 간결하게 적용한 도로명판
3. 태양광 LED 조명 설치로 야간 인지도 증진

D2-4. 공원 안내표지·시설안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원 이용 또는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안내 표지 및 그림 등을 말한다.

설치

누구나 보기 쉽고 활용가능한 안내시설물

- 사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크기로 설치한다.
- 식재 및 수목에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한다.
- 공원의 면적 및 정보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한다.
- 설치되는 위치의 지형을 고려하여 시설물은 수평적으로 설치한다.
- 풍압, 외부 물리적 압력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뒷면이 노출되는 경우 양면이 활용가능한 위치와 방향으로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안내표지를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 구역에 설치하며 공원입구에 설치할 경우 우측 녹지 공간에 설치한다.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는 가급적 정보 매체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경관 정돈에 기여하는 시설물

- 통합적이고 단순한 외관형태를 지향한다.
-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고 최소한의 글자 사용 및 간결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 공원의 정체성 확보 및 내부 안내시설물의 통합을 위해 한 공원 내에는 통일된 형태 및 디자인의 안내사인물을 적용한다.
- 불필요한 상징적 표기는 지양한다.

● 필수 ○권장



1. 공원 입구 설치 시 우측 녹지 공간 내 설치
2. 디자인이 통일되지 않은 공원 내 안내시설물

다양한 방문객을 수용하는 공원 조성

- 주요 시설명, 주요 시설까지의 거리, 방향표시를 함께 표기한다.
- 공원 시설 안내도는 공원 명칭, 역사나 환경 등의 교육용 정보를 주 요소로 표기한다.
- 다양한 방문객을 고려하여 다국어 표기를 병기한다.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 사용자의 눈높이와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 공원 내 표지판 높이는 1,200mm가 넘지 않도록 한다.
- 공원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유도한다.
- 본문의 자간과 행간 조정을 통해 가독성과 주목성을 향상한다.

재료 및 색채

-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재료를 사용한다.
- 이용자가 안내정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명도 대비가 높은 색채를 적용한다.
- 저채도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간결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도록 디자인한다.
- 동일 공원 내에는 기본 색상을 모든 안내사인물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디자인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 반사율 높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사용을 지양하며 무광택 소재사용 및 분체도장을 권장한다.

자연성을 추구하는 재질 사용

- 재질 고유의 색상을 사용한다.
- 자연환경이나 공원의 테마 등과 연계되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색채로 표현한다.

● 필수 ○ 권장



1. 필요한 정보를 모두 표기한 안내표지
2. 주변과 조화로운 재료 사용

D2-5. 문화재 설명 표지판·기념표석

정의 및 구성체계 · 문화재 관람 및 이용 또는 문화재 시설안내 및 역사에 관한 표식을 말한다.

설치

누구나 보기 쉽고 활용가능한 안내시설물

- 문화재를 가리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시작점, 도착점, 주요분기점에 설치한다.
- 노약자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을 고려하여 계단이나 경사로에는 설치를 지양한다.
-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결정한다.
- 시설물 설치 위치의 지형을 고려하여 수평적으로 설치한다.

다양한 환경을 고려한 시설물 설치

- 뒷면이 노출될 시 양면이 활용가능한 위치와 방향으로 설치한다.
- 문화재 안내표지를 보도 상에 설치할 경우 장애물 구역에 설치하며, 진입부에 설치할 경우 우측 녹지 공간에 설치한다.
-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는 가급적 정보 매체의 설치를 지양한다.

형태

역사성과 조화롭고 전달력있는 안내시설물

- 문화재 안내판은 역사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품격있는 디자인을 적용하되 과도한 장식적 요소는 금지한다.
-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간결하고 쉽게 표현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안내문의 내용을 조절한다.
- 안내 분량은 안내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작성하되 종합 > 권역 > 개별의 위계를 준수한다.
- 표기요소는 [한국 관광안내표지 표준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정돈된 공간을 연출한다.

● 필수 ○ 권장



1. 이동 동선 시작부에 설치
2. 역사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디자인

경관 정돈에 기여하는 시설물

- 기초 시공 시 지지대 및 앵커볼트 등의 부속물이 지면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하여 설치한다.
-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별도로 입체지도 혹은 상징그림 등의 삽입이 가능하다.
- 안내판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2개국어(한글, 영어) 표기를 권장한다.



재료 및 색채

- 공간의 역사성을 저해하지 않는 색채를 적용하며 가급적 무채색을 적용한다.
- 시각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위해 저명도, 저채도의 시각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문화재 시설과 조화로운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1~2가지 이내 최소색채를 사용한다.



관람객을 고려한 색채 사용

- 경고, 주의 등에는 진출색(Red, Yellow)등의 원색을 사용하나 가급적으로 최소화한다.
- 눈의 피로를 감소시키며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색상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이해를 돕는 입체지도가 정보와 함께 조성
2. 역사성이 드러나는 색채 적용

D2-6. 관광안내소·매표소안내

정의 및 구성체계 · 관광안내소, 매표소에 관광 관련 편의 및 정보 등을 안내하는 표지로 주로 관광안내소 외벽에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설치

관광지와 조화를 이루는 안내사인물

- 멀리서도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며 가로수, 시설물에 가려지지 않도록 배치한다.
- 주변 환경 및 관광안내소와 조화되는 크기로 설치한다.
-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하여 안내사인물을 부착한다.
- 보행유도 기능이 있는 표지의 경우 분기점사이가 멀 경우 가시거리를 고려하여 약 70~200m 간격으로 설치한다.

표기요소

인지성을 높이는 정보 기입

- 외국인 관광객을 고려한 다국어 표기 및 픽토그램을 적용하며, 국가 표준규격(KS A 0901) 또는 국제표준(ISO)을 적용한다.
- 관광안내소의 안내판에는 관광안내소 픽토그램과 거리정보만 표기한다.
- 안내도의 해당 관광지나 관광시설 등 지도에 표기하는 문자에 해당하는 적절한 이미지 및 일러스트를 사용한다.
- 표지판의 크기, 색상, 가시거리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사용하며 제목 글자의 경우 적정 가시거리(10~20m)에서 읽기 쉬운 크기로 결정한다.

재료 및 색채

누구나 보기 쉽고 활용가능한 안내시설물

- 반사율 높은 재료의 사용을 지양하며 변색, 탈색, 갈라짐 등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바탕색과 문자, 기호 등은 서로 대비가 높은 색상을 사용한다.

● 필수 ○권장



1. 원거리 인식성 확보
2. 적절한 관광지 이미지 사용

D2-7. 관광안내표지·안내도

정의 및 구성체계 · 관광객에게 도시의 주요장소를 안내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표지 및 안내도이다.

설치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물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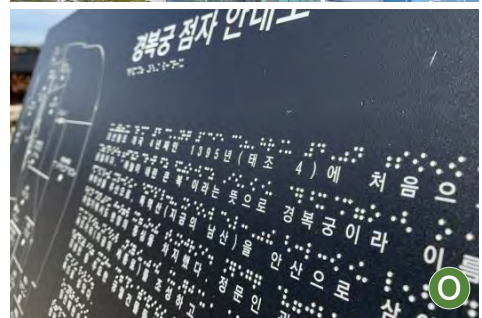
- 설치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과 「부산시 부산형 관광안내표지 표준화 구축사업 관광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른다.
- 도로 진행 방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 보행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 동일 구역 내 2개 이상의 시설물 설치 시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 관광객의 이동 시작점과 도착점, 분기점을 중심으로 설치한다.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하여 눈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m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형태

이용객이 쉽고 빠르게 인지하는 정보 기재

- 부산형 관광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 관광지도 내 주요 공공정보 명칭을 표기한다.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중요한 콘텐츠 표기는 지면에서 0.8m~1.6m 위치에 표기하고 0.6m 이하에는 표기를 지양한다.
- 표기정보가 변경될 경우를 고려하여 내용 교체가 용이한 방식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 시각장애인을 배려한 점자안내판 및 음성안내장치 설치한다.
- 시설물의 아래쪽 부분에 정보가 기입된 경우 내려다보기 쉽도록 정보면에 각을 조성한다.



1. 도로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설치된 관광안내표지
2. 부산형 관광 안내표지판 표준디자인 적용
3. 점자안내판 설치

● 필수 ○권장

재료 및 색채

주변 환경과 이질감 없는 관광안내시설물

-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색채를 적용하며 지나친 장식 및 상징표현은 지양한다.
- 현란하고 화려한 디자인을 방지하기 위해 2~4가지 색상 이내의 최소색을 사용한다.
- 지나친 색상 남용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을 방지한다.
-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다.
- 경관과의 조화성이 부족한 스테인리스 스틸 등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지양한다.

효율적인 색채 사용을 위한 기준 제시

- 표준디자인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보조색은 명도 5 이상, 채도 4 이하를 적용하고 전체 면적 20% 이내로 적용한다.
- 강조색은 채도 8 이상으로 하며 전체면적 5% 이내로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고광택 재료를 사용한 관광안내표지

D2-8. 자전거도로 안내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자전거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되는 표지를 말한다.

설치

간결하게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

- 안내표지는 독립지주형 표지의 설치는 지양한다.
- 자전거도로 노면표지와와의 중복 설치는 제한한다.
- 노면표지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표기한다.
- 표지판은 패널이 지상으로부터 2.5m 이상 되도록 디자인한다.

인지성 높은 노면표지

- 자전거도로 포장면에 자전거도로 노면 표지를 명확히 표기한다.
- 바닥면에 노면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안내 위치와 인지효율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설치한다.

형태

부산광역시 내 통합적인 안내체계 구축

- 자전거도로 안내표지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보조표지, 이용 안내표지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교통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형태, 규격, 색상을 준수한다.
- 명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장식적 요소를 배제하여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표지시설물

-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접합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미려하게 처리한다.
- 표지판의 각 부품을 모듈로 제작하여 설치와 이동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한다.

● 필수 ○ 권장



1. 독립지주형 안내표지 설치
2. 자전거도로 표지 명확히 표시

D2-9. 장애인 유도사인·안내표지

정의 및 구성체계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직진, 정지 등을 안내하는 점자블록 및 표지를 말한다.

설치

이용객의 인지성을 우선시 한 안내시설물 설치

- 점자블록은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도면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한다.
- 휠체어 통행로가 조성된 경우 점자블록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 선형블록 좌우 0.9m 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 선형블록 좌우에 0.9m의 보행안전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최소 1.2m 폭의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한다.
- 이외의 설치사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따른다.
- 휘어진 보행 교차로, 차도와 만나는 난간의 경계석은 점자블록 및 다른 질감을 연속되게 설치한다.
- 폭이 넓고 휘어진 차도 중앙 보도에는 블라드를 함께 설치한다.



형태

누구에게나 편리한 안내시설물

- 안내표지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음향정보 등을 설치하여 필요한 안내정보를 적절히 전달하도록 한다.
- 지팡이와의 접촉소음이 적고 탄력 회복성이 좋은 고무 및 유연성 있는 폴리우레탄 타일을 사용한다.
- 사고다발구역이나 위험요소가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에는 발광형 점자보도 블록을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선형블록과 인접한 전신주
2. 발광형 점자블록을 사용한 횡단보도

재료 및 색채

인지하기 쉬운 재료 및 색채 적용

- 가장 안전한 노란색 유도블록을 기본색으로 적용한다.
-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변 바닥 색상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한다.
-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점자 및 선형블록 사용을 지양한다.
- 보행자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모래가루를 마찰코딩하거나 범프 표면에 미끄럼 방지 합성물을 첨가한다.



● 필수 ○ 권장

1. 인지성이 좋은 노란색 점자블록 설치
2. 주변 바닥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자블록

D3. 안내관련 시각매체

정의

- 안내관련 시각매체란 시민에게 정보, 범죄예방, 쓰레기 투기금지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는 표지를 의미한다.

구성체계

- 현수막게시대, 범죄 예방시설 안내표지,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사인이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총 3개로 분류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조성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재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한다.
- 거주 중인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디자인으로 우범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다.
- 과도하게 작은 글씨로 구성된 안내표지로 고령자 거주인 활용도가 저하된다.
-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해당 공간에 쓰레기가 쌓여서 방치되고 있다.
- 실효성 없는 안내표지로 인해 정보 인식성이 저하된다.
- 통일성 없고 기준에 맞지 않는 안내표지가 다수이다.

기본방향

- 조명시설과 함께 조성하여 안내표지의 기능성을 향상하여, 주·야간 모두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자발적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으로 실효성 있는 디자인을 한다.
- 주민을 배려하여 주변과 조화성을 강화한 디자인으로 구축한다.



B3-1. 현수막게시대

정의 ·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홍보·안내 등 공익 목적이거나 광고문 따위를 표시한 막(천, 종이 또는 비닐 등)을 통합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설치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보도 내 설치를 금지하며, 도로와 경계부에 설치한다.
- 지면과 접합된 기둥 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한다.
- 가급적 녹지대나 조경구역 내에 통합 설치한다.

최소화를 통한 보행 및 이용성 확보

- 가로 10m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m 이내로 설치한다.
- 지자체별 수요를 고려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수량을 적절하게 설치한다.
- 도로교통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한다.

형태

기능 중심의 디자인으로 도로 쾌적성 강화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며 간결하고 개방성이 확보되는 형태로 디자인한다.
- 지자체 상징 요소, 특산물, 캐릭터 등과 같은 특정한 이미지를 형상화한 일차원적인 형태는 금지한다.
- 2단형 또는 5단형으로 설계하고, 5단형은 태풍피해 예방에 적합한 접철방식으로 설치한다.

● 필수 ○ 권장



1. 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로 경계부에 설치된 게시대
2. 녹지대에 통합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
3. 2단형 현수막게시대 설치

재료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사용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를 기둥의 2m 높이까지 적용하여 오염을 최소화한다.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도료 사용 시 표면을 부드럽게 마감한다.
- 파손 방지를 위해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한다.
- 현수막게시대 상부는 디자인 교체·변경이 가능한 재질로 계획한다.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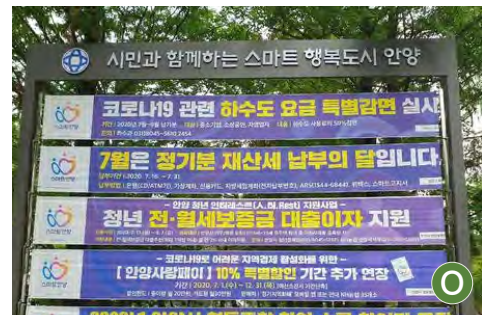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한 재료를 사용한다.
- 내구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되 빛 반사로 인해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무광택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이질감을 최소화한 색채 사용

- 시각공해가 적은 무채색 또는 저채도 색채를 사용한다.
- 기능성 색채를 사용할 경우 지나치게 명시성이 높은 색채는 사용하지 않는다.

● 필수 ○ 권장



1. 필요 시 교체 가능한 현수막게시대 상부
2. 빛반사가 심한 광택 소재 적용
3. 저채도 색채 사용

D3-2. 범죄예방시설 안내표지

정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내시설을 말한다.

설치

범죄 발생을 방지하는 위치 내 설치

- 범죄심리를 위축하고 보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도록 범죄 다발구간 및 협소하고 어두운 골목길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 안내시설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며 다른 가로 시설물과 통합 설치한다.
-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 위치확인이 곤란한 지역에 통합 위치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범죄안전시설물 설치 시 타 방범시설이나 다른 가로시설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공간 여건에 맞는 디자인으로 설치

- 유흥공간에는 환경적 개선을 위해 시각적인 그래픽 디자인을 사용한다.
- 공간 인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각지대에는 반사시트를 설치한다.

표기요소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기

- 중복되지 않으며 일관성 있는 픽토그램 및 디자인을 적용한다.
- 정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내용과 어울리는 픽토그램을 병기한다.
- 상권 인접 골목길의 경우 주거 영역에 대해 알리는 내용과 함께 주의사항에 대해 표기한다.
-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다국어를 병기한다.

● 필수 ○ 권장



1.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안내시설물
2. 통합 위치정보 안내 시스템이 탑재된 시설물
3. 픽토그램 적용

형태

통일된 표준형 디자인 적용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형태를 적용하되 일관성 있는 색상 및 표기 요소로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한다.
- 비상벨과 같은 안전시설물 설치 시 벽면 및 가로시설물에 부착한 형태를 적용한다.

야간 활용성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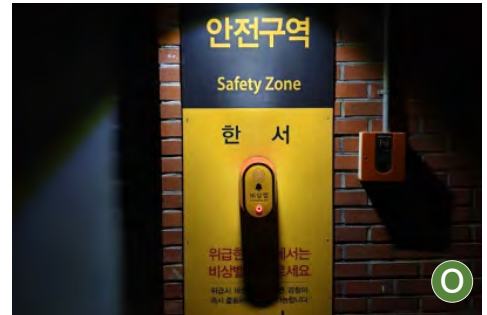
- 고보조명 및 안내방송 장치를 함께 설치하여 야간 범죄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
- 야간에도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형 주소판을 함께 조성한다.

재료 및 색채

범죄예방시설 기능을 강화하는 재질 및 색채 사용

- 표지 훼손으로 인한 우범지역과 같은 분위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내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야간 시간대를 고려하여 반사 소재를 적용한다.
- 원거리 인지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인성이 높은 색상을 적용한다.
- 공간 인지성 강화를 위해 동일 구간 내 일관성 있는 색채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벽면에 설치된 비상벨
2. 조명형 주소판 설치
3. 반사 소재 적용

D3-3. 쓰레기 투기방지 안내

정의 ·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안내시설을 말한다.

설치

안내표지 인식성을 강화하는 위치 내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심각한 장소에 설치하며 자연감시를 고려한 위치에 설치한다.
- 전봇대 및 벽면을 활용하여 설치한다.
- CCTV와 함께 설치하여 감시효과를 극대화한다.
- 물품 적치를 통한 감시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형태

올바른 쓰레기 투기를 유도하는 디자인

-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유도하는 넋지디자인을 적용한다.
- 안내표지 설치 시 경고문구와 책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 지속적인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방안 등을 함께 모색한다.



표기요소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안내표기

- 올바른 쓰레기처리 방법을 안내하고 분리수거 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병기한다.
-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다국어 표기나 그래픽 등을 활용한 정보 전달을 통해 올바른 쓰레기 투기방법에 대해 전달한다.

재료 및 색채

야간 인지성을 고려한 재료 적용

- 바닥부 그래픽 및 야간에도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 및 반사소재를 사용한다.

● 필수 ○ 권장

1. 전봇대에 설치된 안내사인물
2. 넋지디자인을 적용한 쓰레기통 디자인

D4. 영상정보 시각매체

정의

- 디지털 방식의 움직이는 정보를 제공하는 전광판을 의미하며, 대기오염이나 도로소음, 교통 상황, 지하철 정보 전광판이 해당한다.

구성체계

- 대기오염 전광판, 도로소음 전광판, 교통상황 전광판, 교통사고 전광판, 버스정보 전광판, 디지털 영상매체가 세부항목으로 포함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해 과도한 크기의 글자로 안내한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보의 전달력이 저하된다.
- 상업적 이용 광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 '사망사고 다발지역' 등 전광판 이용객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 지나치게 화려한 색채 및 고휘도로 시각적 혼란을 야기시킨다.

기본방향

- 최소한의 글자수와 가독성있는 크기를 적용하여 정보 전달 및 인식성을 증진한다.
-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대체하여 디자인한다.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돈된 환경을 구축한다.



D4-1. 대기오염 전광판

정의 및 구성체계 · 대기의 적정 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을 말한다.

설치

도시 분위기와 조화로운 형태로 설치

-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별도 지주를 추가하지 않고 유사 기능의 시설물에 통합 설치한다.
- 문화재 지역 등 고유한 분위기를 띄는 지역 내 설치를 지양한다.

표기요소

정보 인식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표기

-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시각 언어 및 이미지로 표현한다.
-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등 환경 정보는 보조 요소로 표기한다.

형태

유지관리가 편리한 형태 적용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한다.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충격 및 빗물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절전 기능이 포함되어 예산 절감이 가능한 전광판을 사용한다.

재료 및 색채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색채

- 여러 색상을 혼용하거나 차량 신호체계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햇빛 반사가 생길 수 있는 광택성 재료는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별도 지주로 조성
2. 다양한 정보가 혼재되어 정보 인식 어려움

D4-2. 도로소음 전광판

정의 및 구성체계 · 도로 소음의 적정기준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을 알리는 전광판을 말한다.

설치

최소화된 형태로 조성

-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크기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 별도 지주를 추가 설치하지 않고 공사장 가림막 등 관련 시설물과 통합하여 설치한다.

표기요소

정보 인식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게 표기

- 빠르게 전달이 가능한 시각언어 및 이미지로 표현한다.
- 평균지수-기준지수 비교 정보는 보조 요소로 표기한다.
-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휘도를 제한한다.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재료 및 색채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색채

-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공사장 가림막과 통합하여 설치된 전광판
2. 기준 요소 부재로 정확한 정보 인식 불가

D4-3. 교통상황·교통사고 전광판

정의 및 구성체계 · 현재의 교통상황을 알려거나 교통사고 건수를 알려 경각심을 유도하고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전광판을 말한다.

설치

원거리 인지성을 고려한 설치 위치

- 원거리에서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높이에 배치한다.

표기요소

정보 전달 목적에 맞는 표기 디자인

- 현재 교통상황, 주의구간, 소요시간, 교통상황 지연 이유,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주 요소로 표기한다.
- 제공하는 정보량에 비례하는 적절한 크기로 디자인한다.
-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한다.

형태

가독성 있는 정보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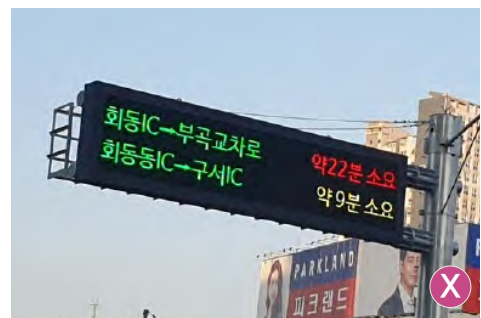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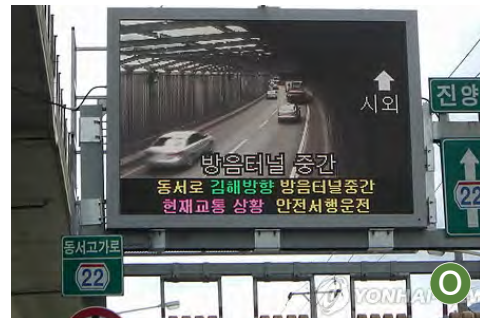
- 정보 인식성을 고려하여 상업광고 비중을 최소화한다.
- 단문 사용을 통해 정보 전달력을 강화하고 가독성이 좋은 문구를 적용한다

재료 및 색채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색채

-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 쓰이는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중요한 정보에만 명시성이 높은 색상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교통상황 주 정보요소로 표기
2. 상업광고 비중이 높아 정보 인식성 저하
3. 차량 신호체계에 쓰이는 색채 사용

D4-4. 버스정보 전광판

정의 및 구성체계 · 버스 또는 지하철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전광판을 말한다.

설치

버스쉘터와 통합하여 설치

- 독립 지주형 표지 설치의 금지하며 버스쉘터와 일체화하여 설치한다.
- 버스쉘터의 크기 및 형태를 고려하여 퍼걸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표기요소

간결한 정보전달로 명확성 강화

- 정보전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로고 및 슬로건 표기를 지양한다.
- 숫자를 활용하여 간결하게 정보를 표기한다.

재료 및 색채

시각적 혼란을 방지하는 색채

- 타 시설물 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휘도를 제한한다.
- 여러 색상의 혼용 및 차량 신호체계에 사용되는 색채 사용을 지양한다.
- 중요한 정보에만 명시성이 높은 색상을 적용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지양한다.

● 필수 ○ 권장



1. 버스쉘터와 일체화하여 설치된 전광판
2. 독립 지주형으로 설치된 전광판

D4-5. 디지털 영상매체

정의 및 구성체계 · 공익광고나 지자체 홍보 등에 사용되는 디지털 방식의 영상매체를 말한다.

설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

- 녹지, 주거, 문화재 지역에는 설치 금지한다.
-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풍량 및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한다.
-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한다.

형태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도 제한

-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주는 잦은 점멸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크기 및 휘도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롭도록 계획하며 용도 지역별로 휘도를 규제한다.
- 심야에는 조도를 낮추거나 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상업광고 표기 및 설치를 지양한다.
- 향후 디지털영상매체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별도의 종합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 적용한다.



● 필수 ○ 권장

1. 입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영상매체
2. 상업광고가 표기되는 디지털 영상매체

주관부서 부산광역시 건축주택국 공공도시디자인과

김봉철 국장
남건수 과장
김혁주 팀장
강혜림 주무관
한상윤 주무관
이영주 주무관

자문위원 김민수 (전)총괄건축가
이동흡 공원정책과 파크시티추진단장
최민준 부산디자인진흥원 도시공공디자인팀장
김용남 (주)삼현도시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이승장 시민공감디자인운영단 시민

수행기관 유원디자인연구소

노지현 대표
정상호 실장
이원희 팀장
나하나 과장
정진선 과장
이해원 대리
김경연 대리
장희주 주임
김원태 연구원